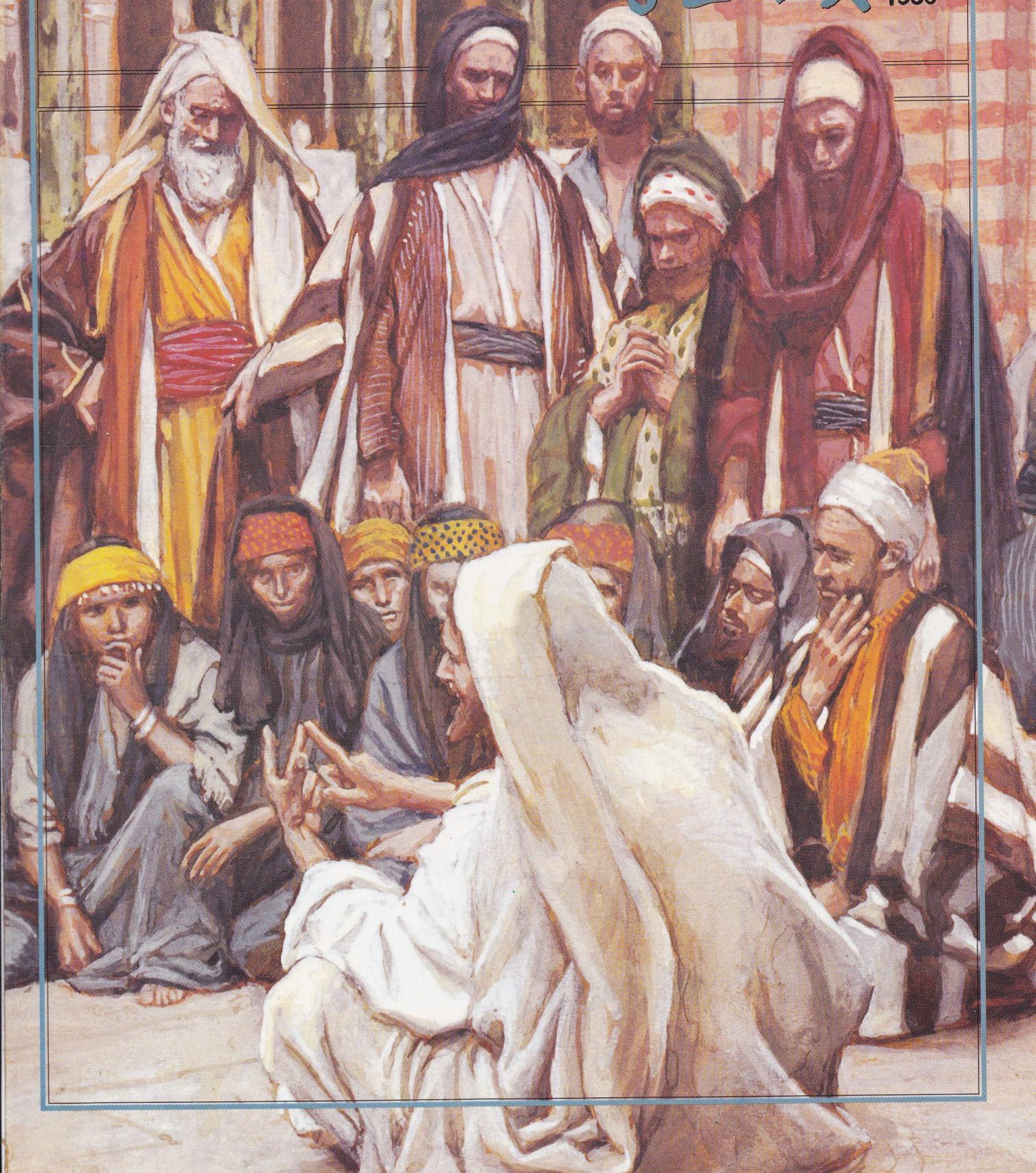


성도의 빛

1
198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8차 반 연차 대회 보고

1988년 10월 1~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넌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절차

“**몰** 문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 내듯이 쓸어 내게 하여...(주님의) 택한 자를 모으기’(모세서 7:62 참조) 위해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이 성스러운 경전은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10월 반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선언했다.

벤슨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몰문경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한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어느 정도로 보급되어야 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나, 나는 이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몰문경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진실로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맡겨 주신 이 큰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열린 폐회 모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벤슨 대관장의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루시퍼의 영향력에 힘입어 증가하고 선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아래 증가할 때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은 마지막 대결이 있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지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이 문제가 더 명백해지고 명확해질 때 온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나 악마의 왕국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돌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 의로운 자들은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이 이틀 동안 열린 대회를 감리했다. 대회 모임 중 일부는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사회했으며, 나머지 모임은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사회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오시히코 기꾸찌 장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를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취해진 행정 조치에는 십이사도 평의회와 새로운 회원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 4명에 대한 지지가 포함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었으며, 1988년 5월 20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리온 지롭니 회장이 별세함으로써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되었다.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유타주 케이스빌; 앨버트 출즈 이세 장로, 에리조나주 피닉스; 로이드 피 조지 장로, 유타주 오럼; 제럴드 이 멜린 장로, 캐나다 켈거리.

- 편집인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호는 1989년 제158차 교회 반 연차 대회 보고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1권, 제26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9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12KO
PRINTED IN KOREA 1/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가르치시는 모습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나와 있다.

책임...리오넬 엘 캔드리
의지...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미셸린 그래슬리(여성 대회)
속죄...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델린 에이치 옥스
감독...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물문경...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자녀...엘 톰 페리, 미셸린 그래슬리(일요일 오후 모임, 여성 대회)
기독교적 정신...델린 에이치 옥스
결심...몬트 제이 브라프, 엘버트 출즈 이세, 제럴드 이 멜친, 미셸린 그래슬리(여성 대회), 아더 캡, 에즈라 태프트 벤슨(여성 대회)
의사 소통...리오넬 엘 캔드리
자선...로버트 이 색클리
제자의 자격...닐 에이 맥스웰
환각제 남용...러셀 엠 넬슨
영생...제임스 이 파우스트, 윌리엄 지 뱅거터
우정 증진...엠 러셀 벨라드
장례식...보이드 케이 패커
병고침...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가정...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가정 복음 교육...진 알 쿡
불사 불멸...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결...마빈 제이 애쉬튼, 리오넬 캔드리
예수 그리스도...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리차드 지 스코트,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모임)
심판...마빈 제이 애쉬튼
지도력...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사랑...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결혼...에즈라 태프트 벤슨(여성 대회)
교회의 사명...조셉 비 위스린,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선교 사업...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모임), 엠 러셀 벨라드, 로이드 피 조지, 데이비드 비 헤이트
부모...몬트 제이 브라프,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엘 톰 페리, 미셸린 그래슬리(일요일 오후 모임)
동료 그룹의 압력...아더 캡
기도...하워드 더블류 헌터
준비...바바라 더블류 윈더
신권...조셉 비 위스린
재활동 촉진...진 알 쿡
임무...조셉 비 위스린, 진 알 쿡, 엘 톰 페리
희생...데이비드 비 헤이트
구원...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모임), 미셸린 그래슬리(여성 대회)
경전 공부...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자람...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봉사...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매리온 디 행스, 바바라 더블류 윈더, 에즈라 태프트 벤슨(여성 대회)
죄...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독신 여성...에즈라 태프트 벤슨(여성 대회)
영성...하워드 더블류 헌터, 바바라 더블류 윈더
스포츠맨십...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가르침...진 알 쿡, 미셸린 그래슬리(일요일 오후 모임)
간증...로버트 이 색클리, 존 케이 카머
복자...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지혜의 말씀...러셀 엠 넬슨
청녀...아더 캡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8차 반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온 지상이 물론경으로 차고 넘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6 중독을 원하는가 자유를 원하는가
러셀 엠 넬슨 장로
- 10 의로운 선택을 함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 13 거룩한 속죄의 은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16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봄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19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20 장례 - 경건한 시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23 제일 좋은 길
로버트 이 색클리 장로
- 25 그리스도인 다운 의사 소통
리오넬 캔드릭 장로
- 27 간증의 토양 및 뿌리
존 케이 카믹 장로
- 30 우정 증진의 손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34 "내게 대답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신권 모임

- 37 하나님의 신권
조셉 비 위스런 장로
- 41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함
진 알 쿡 장로
- 45 기꺼이 행하는 마음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 46 교회를 선택하라
앨버트 출즈 이세 장로

- 47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음
로이드 피 조지 장로
- 48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제럴드 이 멜친 장로
- 49 승리의 저편에 있는 목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3 교회의 감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58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6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
- 64 높은 곳으로부터의 축복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67 사랑의 율법
매리온 디 행스 장로
- 71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76 행복한 가정의 표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80 "자녀에게 가르치라"
엘 톰 페리 장로
- 84 참된 친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86 평화스런 어린이
미셸린 패커 그레슬리 자매
- 88 영생의 자질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 92 봉사하라는 부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96 나는 간증드립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99 준비된 사람이 됨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 102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름
미셸린 패커 그레슬리 자매
- 105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감
아테스 지 캡 자매
- 109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112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14 교회 및 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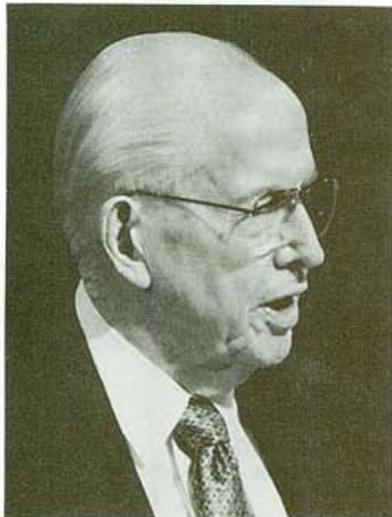
대회 연사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마빈 제이 에쉬튼
엠 러셀 벨라드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몬트 제이 브러프
존 케이 카믹
앨버트 출즈 이세
진 알 쿡
제임스 이 파우스트
로이드 피 조지
미셸린 패커 그레슬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로버트 디 헤일즈
매리온 디 행스
고든 비 힝클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아테스 지 캡
엘 리오넬 캔드릭
닐 에이 맥스웰
제럴드 이 멜친
토마스 에스 몬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로버트 이 색클리
리차드 지 스코트
바바라 더블류 윈더
조셉 비 위스런

온 지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물몬경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맡겨 주신 이 큰 책임을 돕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런 연차 대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이 몹시 들뜨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임명하신 종들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와 영감의 권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종교의 종석인 물몬경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한 경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 대하여 많은 분이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재산이라는 제목의 물몬경에 관한 교회 비디오를 제작, 배부하는 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치하드립니다. 그 비디오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처음으로 시연된 후 첫 주 동안에 수 만부가 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구원할 수 있는 세대를 키우기 위해 물몬경을 훌륭하게 사용해 주신 여러 교회 조직의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물몬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물몬경 전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물몬경에 가족 사진과 간증을 적어 넣어 보내신 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간증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으며, 그 책은 전세계의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 만명의 개종자를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출판물에 나타난 물몬경에 대한 훌륭한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몬경 내용을 방송해 주시는 방송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키워 주는 물몬경 강좌와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몬경에 관한 강의나 말씀을 말고, 기사를 쓰고 저술행위 등으로 계몽시켜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매일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주신 수많은 신앙깊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물몬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주님의) 택한 자를 모”(모세서 7:62)이기 위해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이 성스러운 경전은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몬경’은 사년에 한 번씩 주일학교와 세미나리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년의 학습 주기는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개인 및 가족 경전 연구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이 “그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교회정사 4:46)하는 이 책을 매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전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주제에 대하여 물몬경이 제시할 수 있는 기타의 주해를 자주 참조함으로써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3:40; 니파이이서 3:12 참조)

최근에 훌륭하게 만들어진 참으로 귀중한 재산이라는 제목의 물몬경에 관한 비디오는 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첫번째는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개심시켜 교회에 나아가게 하는 물몬경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인간이 그의 동료들에게 책의 이름이나 그것을 발행한 교회를 알리지 않은 채 것처럼 오랫동안 물몬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유로
물몬경으로 지상이 차고 넘치기에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자
매체와 인쇄술의 대중 전파의 시대에,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물몬경의
보급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몬경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있으며,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물몬경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한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어느
정도로 보급되어야 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나 교회의
안팎에서 물몬경이 어떤 책임인에 관한
참된 의미를 파악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물몬경이 이제까지 맡아온
역할과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새로운
증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데서 앞으로 맡게 될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몬경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온
지상과 백성들이 그 영향과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몬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뜻이 되고 음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밀레니얼 메시아,
159, 170, 179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수행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으로 온 지상을
가득 채워야 하며... 그것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생길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성 84 : 54~58 참조)

나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물몬경을 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선교사에게
물몬경을 보내 주십시오. 벤슨 자매와
나는 얼마 동안 이 일을 해 왔으며 좀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달 수백
만부의 물몬경을 선교사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나는 선교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로 하여금 물몬경
읽기와 그에 관해 기도하도록 권하는
방법을 보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선교사들은 물몬경 연구에 관한 인류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물몬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으며, 물몬경이
인간의 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
주는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 주제에 대하여 물몬경에
나오는 각종 복음 구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저자, 교사,
지도자들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위대한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물몬경의
개심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시기를 권합니다. 물몬경을 선교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지 알려 주십시오.

사업을 하시거나 기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웅집실에 물몬경이 놓여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카세트 녹음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때때로 물몬경 카세트를 틀어 집에서나,
건거나 달리거나 운전하면서 들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정마다 물몬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용문과 장면을 벽에 걸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인이 되는 이 물몬경을 좀더
우리 생활에 잘 받아들이며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보다
충만하게 받아들여 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는 물몬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영으로
우리 가정이 깨어나고, 교실에 생기가
돌고, 연탄이 불꽃 튀기듯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와드 및 지부 직원, 스테이크 및 선교부
지도자들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
물몬경을 활용하여 우리 성도들을

상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예술가들이 물론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제와 위대한 인물들을 영화와 연극, 문학, 음악 및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을 봅니다.

나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물론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을 암송하여 선교부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교회 전체가 물론경에 나오는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나는 물론경으로 온 지상이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구심 세가 됩니다. 나이들어 힘도 점점 쇠약해지며,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고 더 젊은 총관리 역원들이 지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을 새롭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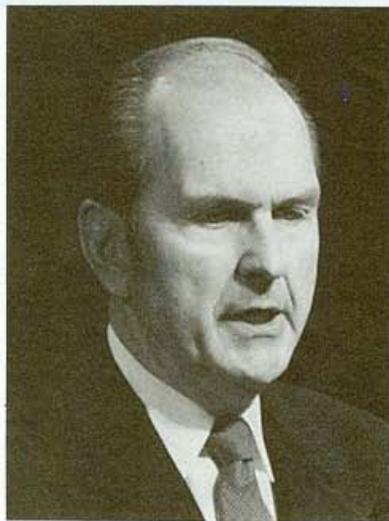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나, 나는 이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물론경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진실로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맡겨 주신 이 큰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결코 시온이 구축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물론경이 지상에 차고 넘치고 주께서 주님의 지주를 거두실 날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성 84 : 54~58 참조)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그 영광스런 일을 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보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중독을 원하는가 자유를 원하는가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약을 복용하거나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단 습관성 약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약물 중독에 우리를 표명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로서, 약에 관한 나의 연구는 일찌기 의과 대학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누구나 약 성분의 잠재적인 유익과 위험에 대한 것을 배우는 특별 과정을 밟습니다. 숙련된 의사들은 약의 처방을 합당하게 잘 합니다. 그들의 충고를 잘 따른다면, 그 결과로서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는 중에, 학식있는 전문가들이 현대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처방의 한계를 넘는 약물의 남용에 관해서, 그리고 그릇된 정보의 전달로 멋모르고 시작한 화학 물질의 오락 및 사교적인 사용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전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시험해 본다는 사소한 생각에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에서 의존으로, 의존에서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점차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습관에 매이는 것은 느끼기도 힘들 만큼 작은 것이나, 결국은 그 습관이 떼어 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약물은 영혼을 팔아 버리는 현대판 “팔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가족도 위험에서 벗어 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마약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¹ 담배와 알콜 음료에는 중독성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자 수와 사회에 끼치는 손실면에서 수위를 차지합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 및 의학계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시민들이 알콜이나 기타 약물을 소비하는 것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 문제의 범위는 국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적인 문제의 상당히 큰 범위를 보여 주기 위해 미국의 자료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담배

담배의 엄청난 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흡연은 심장 질환, 혈관 질환, 폐 질환 및 암 등을 가장 빈번하게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² 1982년에 미국에서 전체 사망자 수의 16퍼센트(314,000명)는 흡연으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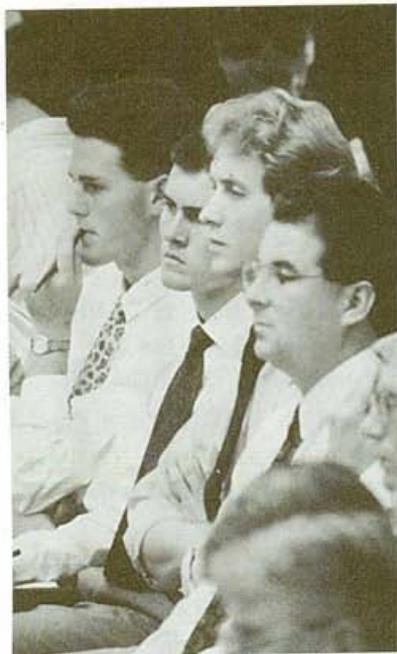
1985년에 흡연과 관련된 치료비와 생산 시간 손실에 대한 추산 비용이 650억 불에 달했습니다. 그 계산은 팔린 담배 한 갑당 평균 2.17불에 달하는 것입니다.⁴ 흡연의 사회적 결과는 담배 구입에 지불하는 비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최근에 한 보험 회사는 청구된 보험금의 5분의 1은 단순히 금연으로 예방될 수 있었던 질병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⁵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위생 장관인 시 에버렛 쿠프 박사와 오십 명이 넘는 과학자로 구성된 그의 팀은 최근에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320,000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며, 125,000명이 알콜로 인해, 그보다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코카인 중독으로 2,000명이, 기타 약물로 4,000명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니코틴이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독성 약물임을 발표했습니다.⁶ 다른 나라에서도 의학계에서 그와 비슷한 견해가 보고되었습니다.⁷ 그러나 담배를 피는 우리의 좋은 친구들 중에서 중독이 됨을 믿지 않으려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약물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이해합니다.

술

전 세계적으로 술의 소비에 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천 육십만 명의 성인이 알콜 중독자이며 네 가족중 한 가족이 알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추산합니다.⁸ 그것은 전국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반에 달하는 것입니다.⁹



지난 해에는 비극의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알콜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1,350,000명)가 미국이 이제까지 가담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수(1,156,000명)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¹⁰

기타 약물

환각제(LSD), 마리화나, 헤로인 및 코카인과 같은 마약도 전세계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이성, 성실 및 품위를 갖추고, 다른 모든 생명 형태와는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흔히 이러한 약품과 알콜로 인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함

우리는 국적이나 종파에 관계 없이,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국제적인 전염병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정부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실행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조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또는 선택 능력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의 영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엘마서 13:3; 모세서 4:4 참조) 그것은, 생명 그 자체 만큼이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흔히 자유의지는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일단 그와 같이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거나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단 습관성 약을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후 중독은 선택할 자유를 굴복시킵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실제로 그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회복의 길

병의 치료를 위해 나는 의사로서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임받은 사도로서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드리는 영적인 처방은 자유의지의 합당한 소유자에게 그 은사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회복에 이르는 가파른 길을 오르려는 사람은 일생의 투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특히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의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명약이라도 처음 복용하는 데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복 기간은 병의 발단 기간 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있게 꾸준히 지켜 나가면, 올바른 선택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처방

내가 영적으로 처방해 드리는 것은 여섯 가지 선택입니다.

삶의 선택

믿음의 선택

변화의 선택

남과 다름의 선택

훈련의 선택

자유의 선택

1.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및 의사를 찾으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니파이이서 10 : 23)

삶의 선택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가져다 주며, 무한히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부심을 불붙여 줍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 보아 살도록”(앨마서 37 : 47)하는 개인적인 결심을 일깨워 줍니다.

2.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육체의 뜻을 따르지 말라”(니파이이서 10 : 24)고 당부하십니다.

그 뜻에 따르면 신앙, 회개, 침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육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모사이야서 27 : 25)되게 하십시오.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교성 59 : 9) 정규적으로 성찬을

합당하게 취함으로써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온유하고 마음을 낮추도록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앨마서 37 : 33) 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를 믿고 그 축복을 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3.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좇으며 눈먼 길잡이에게 이끌려 다니려 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얼마나 오랫동안 빛보다 어둠을 더욱 좇으려 하느냐?”(힐라맨서 13 : 29) 오늘 변화하기를 택하십시오.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 : 15) 영체와 육체도 모두 육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업중 하나는 영적인 육구로 육신의 육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은 주님의 뜻과 합치될 때 강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은 육신과 영을 다 함께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영적인 다스림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다가 오느니라.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앨마서 34 : 32~34)

마음이 육육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니파이이서 9 : 39; 로마서 8 : 6 참조) 그 축복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울 것입니다.

4. **남과 다름을 선택하십시오.** 세속적인 무리와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은

공격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맥주는 스포츠에, 담배는 매력적인 것과, 마약은 재미있는 것과 연결시키려드는 약삭빠른 상인들이 있습니다. 경전은 속이려드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으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성 89 : 4) 지혜의 말씀은 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인도하심과 단순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콜 음료를 마셔서는 아니되며(교성



대회 방문자

89:5~7 참조) 담배도 피워서 안되며(교성 89:8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우리는 중독성 약물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고대의 계명과 비슷한 현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 버리고"(잠언 31:4~5)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술병을 더하여 그로 취케... 하는 자에게 화 있을찢저"(하박국 2:15; 잠언 20:1 참조)

확실히 현대 의학 연구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신체적인 유익을 입증해 줍니다. 그 증거는 대단히 많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이유의 반 정도만 올바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여, "한편쯤으로 해가 되겠어?"하고 합리화하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을 입에 대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장래의 신체적 보상에 대한 기대로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체적인 유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먼저 구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영적인 율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21)

첫번째 유월절에 멸망의 천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충실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적의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5. 훈련을 선택하십시오. 육신과 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회복을 향해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흔히 중독에 수반되는 절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훨씬 더 쉽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 하시겠음이라."(엘머서 37:37)

고상한 음악과 양서와 경전을 상고하는데서 힘은 나옵니다. 물론경이 "참으로 심한 부패가 이는 날"(물몬서 8:31)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특별히 그 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물론경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영과 육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6.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죄의 사슬"(모사야서 23:12; 니파이서 13:5 참조)을 부수십시오. "강철로 만든 멍에... 지옥의 수감이요, 사슬이요, 족쇄"(교성 123:8)는 버려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아침하다가도 나중에는 멸시하는 거짓 친구들에게서 벗어나기를 택하십시오.(교성 121:20 참조) 마약의 남용이 그들로 인해 시작된다 하여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멸망되는 자가 스스로 멸망을 이룬 것이요, 간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니, 보라 너희는 자유로와 임의로 행함이 허가되었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며

또한 너희를 자유로 행하도록 하겠느니라."(힐라맨서 14:30)

주님은 혼란스런 세상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표준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중독이 되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나이서 9:25)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인용 자료

1. 흡연의 건강 결과: 니코틴 중독, 공공 보건소, 미국 정부 출판사, 1988년, 262-63 페이지
2. 1985년도 흡연과 심장 혈관 질병: 특별 보고, 미국 심장 협회, (50-075-A)
3. 기술 사정국, 미국 국회 직원 비망록, 1985년 9월, 2페이지
4. 같은 책, 5페이지
5. 유 타 병원 지도자 다이제스트, 1988년 7월 15일, 2페이지
6. 흡연의 건강 결과: 니코틴 중독, 공공 보건소, 미국 정부 출판사, 1988년, 14, 334페이지
7. 관계 인사: 니콜 그레이, 책임자, 형암 협회,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데이비드 심슨, 책임자, 흡연과 건강에 대한 조직, 영국, 파멜라 헤일리, 대변인, 영국 의학 협회, 영국; 앤드루 파이프, 오타와 대학교 심장 연구소, 캐나다; 로베르타 페렌스, 중독 연구 재단, 캐나다; 버니 맥케이, 사무관, 연방 보건부,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즈 앤드 시즈즈, 담배에 관한 문서 기록, 1988년 7월
8.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87년 11월 30일, 56-57페이지
9. 건강한 사람: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공중 위생국 장관의 보고, 공공 보건소, 미국 정부 출판사, 1979년, 125페이지
10. 사고 현장 백서, 1975년도 전국 안전 협회 연례 보고서, 1988년 7월 20일 전화 대담 확인
11. 에스라 테프트 벤슨, 1983년 4월 연차 대회, 스펠더 더블류 김볼, 1974년 4월 연차 대회, 조셉 필딩 스미스, 1971년 4월 연차 대회,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0월 대회 보고, 4-17페이지

의로운 선택을 함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영생을 얻는 목표에 미치게 될 궁극적인 영향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중요한 일중 하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유혹이 산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생은 이러 저러하게 살아야 한다고 각자 한 마디씩 말해 주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취해 내고자 다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대해 영적인 인도와 용기와 결심의 느낌을 받기 위해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문제가 이슬 우화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은 도시의 시장까지 나가 겨울 양식을 사기 위해 당나귀를 팔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탔습니다. 첫번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저런 생각없는 사람같으니, 자기가 당나귀에 타고 아들을 견게 하는군!”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귀에서 내리고 아들에게 타게 했습니다.

그 다음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런 몹쓸 아들좀 봐, 자기가 나귀를 타고 아버지를 견게 하다니!” 아버지는 당황하여 나귀에 올라 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자 다음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인정머리없는 부자가 가엾은 나귀에 올라타 저렇게 잔인하게 대하다니!”

갓가지 말과 조롱하는 손가락질에 굴복한 부자는 함께 나귀에서 내려 짐을 덜어 주고 가는데, 그것을 본 다른 구경꾼들이 말했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좀 보게, 나귀가 무엇때문에 태어나고 무엇에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군!”

그러자, 화도 나고 도저히 어쩔 줄을 몰라, 충고를 말한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한 부자는 나귀가 쓰러질 때까지 함께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들려서 시장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런 나귀는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들 수도 없는 쓸모없는 나귀를 누가 원한담!”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팔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겨울 양식을 살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을 세워 따랐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랐을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야 삼분의 일은 내가 타고 가고, 삼분의 일은 내가 타고 가거라. 그리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우리 둘이 다 걸어 가기로 하자. 나귀가 기운차게 시장에 도착해서 잘 팔수 있게 되도록 말이다.”

그러면, 그들이 시장까지 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서로 엇갈린 충고를 받게 되더라도, 안심시키는 눈길을 주고 받으며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요”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계획이 있으니, 전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할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범사에 상대하는 것과 갓가지 유혹으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유의사 및 선택으로 받아 들이는 율법과 의식과 성약에 순종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생의 정의는 영원히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영생을 얻는 목표에 미치게 될 궁극적인 영향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목표로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지식에 기반을 둔 사실적인 분석에만 의지한다면 영원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 기도와 연구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타고난 예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구하고, 연구하고, 깨우쳐 나감으로써, 우리의 예지에 지식을 더해 갑니다. 우리의 지식에 경험을 더하여,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인도하심과 힘이 더해지도록 성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되어, “의의 일”(찬송가, 147장)을 행하여 보람을 찾게 됩니다. 이해력이 밝아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의로운 일을 분별하고 행하려는 확신에서 오는 평온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깨달음은 연구와 기도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에서 나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네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7-8)

우리가 지식과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우리의 결정이 옳은 것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동할 때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잠언 3:13)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언 4:7)

지난 토요일에, 나는 아이다호주 보이즈에 있는 조우와 린다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인생에서 내린 것과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려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삼 사년쯤 전에, 조우는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린다는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알콜 중독자인 남편의 태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과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콜 중독으로 고통받는 남편의 무절제한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구해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네 살난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조우는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났던 날 밤에 느꼈던 좌절감과 절망감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우는 두 세시쯤, 한 밤중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며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갯세마네 동산의 수난과 같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고난을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며, 자신의 무절제한 행위에 맞섰던 다정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이른 아침 빛 속에서 일어난 조우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우는 지금까지 그 결심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금주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간증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려 온 조스라는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게 기도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조스는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는 것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느낌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아무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하고 말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자신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리라는 확인과 위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까!

스테이크 부장이 선택될 때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은 조스나 조우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신앙으로 구할 때(야고보서 1:6 참조) 오는 확신의 느낌과 기도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현명한 충고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잠언 1:5)

현명한 충고를 구할 때는, 계명에 순종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영의 속삭임에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는 권고의 말씀으로 더욱 쉽게 계명에 따라 생활하게 되며, 빛나간 친구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받지 않게 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와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담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야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연구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성급하고 현명치 못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러한 엄숙한 충고의 말씀을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들려 주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된 이래 나는 사무실에 이러한 말씀을 걸어 두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나친 조바심이나 어두운 마음은 거의 용납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것 만큼 기다리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을 훌륭하게 살펴 본다면 함은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 동기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려는 데 있어서 나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결정은 계명과 일치하며 율법의 참 뜻에 맞는 것인가? 나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의롭고, 명예롭고, 황금률에

부합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의 결정의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너희 모든 일[결정]을 사랑으로 행하라”(고린도전서 16:14)

두려움과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동기를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탐욕에 의해서, 곧 금전 획득에 대한 욕심, 이해 상충에서 나오는 욕심, 그리고 권력, 호칭,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망 등에 의해서 동기가 물든다면, 우리는 보잘것 없고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짐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잠언 15:27)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움, 즉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인기를 얻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동기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리석고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칭송하였음이니이다.”(사무엘상 15:24)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주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읍니다.

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 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세상의 방식대로 크고 거대한 건물로 들어가야 할지 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로 가야할지 결정내려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시도해 보는 일이라는 하지만, 두 길 다 가볼 수는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덜 다닌 더 외로운 길을 걷는 데서 가장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영생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여 외로운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의로운 일을 행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가 나를 울려 주고, 내가 그대를 울려 주리니, 우리 함께 위로 오르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속죄의 은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모든 짐을 저 나르고, 어떠한 슬픔이든 감당해 내며, 이 생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맛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십육 년 전에 나는 이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으며, 십년 전 이 대회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한편 보람찬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내가 성임받은 기간중에 지상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나라에서 구세주에 대하여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오늘 날 나사렛 예수와 그의 사명에 대해 개인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과 속죄와 부활에 대하여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사건에 관해 예수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지식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 나와 총관리 역원과 제가 맡고 있는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따르는 임무와 신권, 부름 및 권능으로 간증드립니다.

속죄와 그것을 둘러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집단 및 개인으로서의 무거운 모든 죄악은 주님의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이 큰 고난의 놀라운 결과는 주께서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더불어 믿지 않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다 함께 육체적 사망에서 구해 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성 46 : 14; 사도행전 24 : 15; 고린도전서 15 : 22 참조) 이제까지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구세주의 중재와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엘마서 11 : 42 참조)

속죄의 행위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속죄하더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치하더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 개조, 67페이지) 무지의 상태를 떠나기를 선택한(니파이이서 2 : 23~25 참조)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타락 또는 아담의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니파이이서 2 : 26)하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를 낳는 위대한 능력을 받았으므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후손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 : 28 참조)

그들의 후손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니파이이서 2 : 22~26 참조)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그들의 범법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결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우리의 첫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범법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당해야 함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공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와 구속주로서의 역할로서 예수의 속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씻어내 버리고,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9 : 6~9;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 개조, 81페이지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회개와 개인적인 의로움을 조건으로 오는 것입니다.

불사불멸 또는 영원히 존재함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게 되는 영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사불멸은 모든 인간, 즉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또는 악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것”(교성 14 : 7)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이 위대한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견딜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리니”(교성 14 : 7)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충실한 자가 받게 되는 영생과 충실한 자나 불충실한 자가 다 같이 받게 되는 불사불멸의 차이는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 아니라' 이 말씀은 두 개의 개념을 분리시킵니다. 주님은 순종하지 않을 대다수의 인간에게는 불사불멸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완전에 이르는 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계보 협회, 1946년, 329페이지)

사망이 정복된 놀라운 때 미래로 거의 이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세주께서 어떻게 몸소 우리의 범법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슬픔과 짐을 짊어 지실 수 있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참아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표현할 길 없는 갯세마네에서의 그 고난은 너무도 큰 것이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누가복음 22:44)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치시며 모국어인 아랍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가복음 15:34)하고 크게 소리치신 것만 보아도, 그의 고난과 수치의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피방울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든 여자로든, 우리는 태어나 잠시 살다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후에도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의 은사로 우리 내부에 주어진 신성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권능과 통치권과 끝없는 진보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15 참조) 중재하심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루신 속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부활될 것입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르침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니파이서 9:8)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져본 충실한 추종자들의 간증은 오늘 날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의 시신에 기름바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6:1 참조)

그러나 헌신적인 여인들은 무덤 입구에 놓여 있던 그 큰 돌을 누가 굴러낼 것인가를 염려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3~4 참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한 천사가 돌을 굴러 그 뒤에 앉아 있어, 동산을 지키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2~4 참조)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곧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르고, 그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마태복음 28:7)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예수께서 너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마태복음 28:9)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낸 사십일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성역은 사도들을 명확실하고, 혼란되며, 분리되고, 약한 무리에서 주님의 강한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열한 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마가복음 16:14)했으므로 꾸짖으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묻히신 예수께서 영화로운 존재로 지상에 다시 오신 것을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하여 그들을 부당하게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런 일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전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로의 딸(마가복음 5:22, 23, 35~43 참조), 나인의 청년(누가복음 7:11~15 참조), 또는 나사로(요한복음 11:1~44 참조)의 살리심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시 죽지 않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를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누가복음 24:11) 하였습니다.

이 경험에 대하여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사도들에게 던졌던 동요와 의심과 절망의 마음은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있게, 두렵없이



대회 방문자

힘차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 나셨다는 계시였습니다. 그의 약속은 지켜졌으며,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성취되었습니다. 저명한 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에는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봉인이 찍혔으며, 그의 모든 가르침에는 거룩한 권능의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망의 음울한 그림자는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주 구세주의 임재하시는 영광스런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편견이 없고, 기대하지 않던, 의심받던 증인들의 증거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무너질 수 없는 기초를 놓았습니다."(생의 보좌, 클레어 미들미스,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2년, 15~16페이지)

구약의 사도들과 같이, 그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자신있고 안정되게 두려움없이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지식과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저 나르고, 어떠한 슬픔이든 감당해 내며, 이 생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맛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구세주와 함께 걸어간 제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 : 32) 그들이 그에게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하고 강권하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누가복음 24 : 29~30)하셨음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귀중한 순간과 느낌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무덤을 비우신 일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지 않고, 사망 그 자체가 극복되었음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해 보았으며, 어디를 가나 절름발이와 장애인, 불구자, 고난받는 자와 약한 무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거듭 슬픔을 느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자녀의 장애와 복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엠올레이크는 육신의 사망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명백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 서리라"(엘마서 11 : 4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생의 원리를 맛볼 수 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생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서 그 맛을 보시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38페이지) 그러므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새로운 믿는 사람, 어린이, 청소년 또는 성인이 영생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요한계시록 21 : 1, 3)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요한계시록 21 : 7)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요한계시록 21 : 4) 누구든지 우리 구속주요 구세주 그리스도의 존재하심과 속죄와 구원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끊임없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리와 의식과 성약에 순종하여 복음의 진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 겟세마네 동산에 가 볼 수 있으나, 주 예수는 그곳에서 찾을 수 없고, 동산 무덤에도 계시도 않습니다. 그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나,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위대한 보혜사(요한복음 14 : 16 참조) 및 영원한 신권의 권세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 권세에 대하여, 리하이의 아들, 야곱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무를 명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산이나 대양의 물을 명할 수 있게 되리라"(야곱서 4 : 6)고 간증했습니다.

나는 의로움으로 인해, 이 신권의 권세와 속죄의 놀라운 은사와 증재하심이 우리의 생활에 작용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 : 17)하신 예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겸손히 말씀드리고 확신합니다. 엄숙한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간증을 받은 것은 일생 동안의 연구나 이성이나 논리로서만이 아니라, "예언의 영에 의한 개인적인 계시"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낮게 하시며,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펼치신 팔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없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봄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순수한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 는 크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기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용 능력이나 중요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됩니다. 크기는 비교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내가 “저 여학생은 평균이 80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학력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측정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를 어렵잡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재는 것에는 인간적인 실수가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세대에서는 인간의 지능 지수(IQ)는 인간의 학습 능력에 대한 고정된 치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현재 강단에 선 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불신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9세기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성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자에게

내리는 진리의 빛에 대해 기울이는 조심성과 근면성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48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 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신체적인 외모나 외형, 즉 그들의 “잘 생긴 얼굴”이거나, 사회적인 지위, 가문, 학위, 경제력 등을 근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평가하는 데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선택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주께서 사람을 측정하실 때,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을 재어 보기 위해 그의 머리에 줄자를 대어 보시지 않으시며, 그의 남성다움을 알아 보기 위해 가슴을 재어 보시지도 않으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마음을 재어 보십니다.

왜 마음을 재어 보실까요? 마음은 인간의 전체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때 마음에 대한 말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친절함 마음씨를 가진 사람 등으로 말합니다. 또는 마음씨가 좁다거나, 현명하다거나 순수한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교활한 마음, 용기있는 마음, 냉정한 마음, 무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마음씨를 재는 것은 우리의 행실 전체를 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하십니까? 결국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한 행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언젠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보여진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교리와 성약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죽은 형 알빈이 해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는 알빈이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았읍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 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라.”(7, 9절)

우리의 행실과 우리 마음의 소망이 우리 성품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다고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될 마음과 관련된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나는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이 정직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리에 마음을 열고, 편견이 없이
어떤 사항이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걸치레나
위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실에서 믿을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또는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 비밀 계획같은 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왜곡시킵니다.

정직한 마음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마음의 변화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개심의 경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모사이사서 5:2)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론경을 연구해 보면 마음이 완악한
자와 주님의 영에 의해 마음이 부드러운
자를 흥미있게 대조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신의 영향을 받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니파이의 간증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심히 알고자
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느니라. 보라
주께서 내게 임하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니파이일서
2:16)

복음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은 후, 우리는 마음이 순결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임할
것이며 결국 싸움이 없는 사회가
약속됩니다. 그것이 구세주의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둘째 질문: 나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위해 경전을 다시 살펴
봅시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얻으리라.”(교성 64:34)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대업을 먼저 행하고자 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편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봉사하는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준
사람으로서, 나는 항상 회원들이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힘과
수고를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렇게 합니다.

제사 정원회 고문으로 봉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소년들과 고문은 유타주
플레이밍 거지에서 보트 여행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얼마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정원회 회원이 조용히

고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트
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마이크는 노를 저을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거예요.” 마이크는 몸
오른 쪽이 부분 마비였습니다. 정원회가
자기 때문에 활동을 떠나지 않기로
했음을 안 마이크는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난 노를
저을 수 있어요.” 정원회 고문은 손을
마이크의 어깨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마이크야. 너와 내가 함께 노를
젓자.”

그래서 일월부터 팔월까지 소년들은
타고 갈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팔월 첫 주에 저수지로 떠났습니다.

보트를 일렬로 맞추기 위해서는 리듬과
침착성과 단결력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이크와 그의 상대는
리듬에 맞춰 노를 젓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오른 손으로는 노를 젓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문은 왼쪽 노는 쉽게 젓고 오른
쪽은 힘들여 노를 젓는 것으로 만족해야



대회 방문자

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노젓기를 배우고 난 후, 마이크가 그의 고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일회용 반창고를 갖고 계십니까?” 고문은 지갑을 꺼내 일회용 반창고를 마이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손마디에 터진 커다란 물집 위에 댔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던 손과 팔이 이제는 노를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마이크는 다시 후미의 조종석에 있던 고문을 돌아다 보고, “반창고 더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고문은 몇 개를 더 꺼내 마이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이크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살이 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반창고를 대고 다시 노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문은 마이크에게 노젓기를 쉬고 손에 휴식을 취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은 채 만체 했습니다. 마이크는 전날 했던 것과 똑같이 노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들 무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여느 날과 같았으나 오후에 바람이 보트를 짓는 소형 선대로 곧장 불어 왔습니다. 때문에 더 힘들여 노를 저어야 했으며, 더 많은 힘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상처난 자리가 몹시 아팠으나, 마이크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각자 그에게 쉬라고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자기 짐을 저 나르려는 그의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이크는 자기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여기 저기 터져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그는 포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 기간에, 그의 선배 동반자의 대화는 대개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는 물었습니다. “나도 선교사로 나가게 허락해 주었으면 해요. 나의 문제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걸을 때는 오른 발이 눈에 띄게 절룩거렸습니다. 그는 왼 손으로 존은 악수를 했으나, 오른 손은 언제나 퍼지 않았습니다.

눈에 뜨이는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마이크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 중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소망으로 또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함으로 것처럼 많은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문인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신체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결심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따를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나머지 열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이크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선교 사업을 명예롭게 마치고 현재는 그의 고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봉사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행하는 마음과 열심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 질문: 나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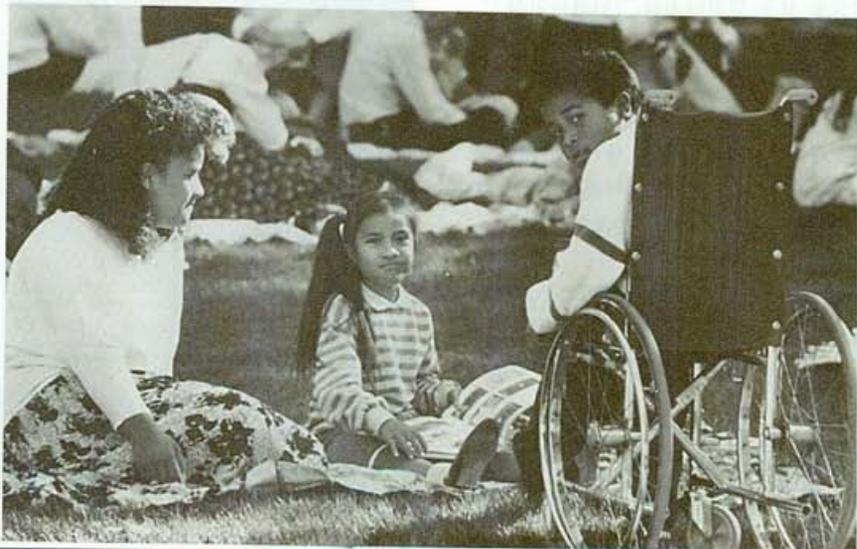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감정에서도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린도전서 13:7)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가장 그리스도와 가깝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재능이나 지식은 “익힐 수 있을지언정 지혜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문제점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봉사로 가득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것은 물문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나?”(앨마서 5:26)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인가 “마음의 변화”를 느껴 보았다고 해서 현재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 주었다고 해서 현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언제나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어느 젊은 이상주의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처의 상점에 새로운 상점이 생긴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점에 들어가서 한 천사가 판매대 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흥분이 되어, 그 상점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마음 속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상의 평화를 원하는데요.” 그 이상주의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기근과 슬픔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만 판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순수한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씨앗을 취하여, 그것을 심고, 영양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활익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최후의 심판이 행해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아리실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개개인이 순결하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순수하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친절하며, 사랑하는 마음씨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오후 모임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벤슨 대관장님의 요청에 따라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0일에 별세하신 매리온 지 롬니 회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롬니 회장이 별세하신 후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부름받고 성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을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랙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코트 장로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합니다.

우리는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봉사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몬트 제이 브러프, 엘버트 즐즈 이세, 로이드 피 조지, 제럴드 이 맥킨 형제들과 이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새로 지지받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은 단상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경건한 시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집이사도 정원희

“장례식은 다른 모임과는 달리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으니, 즉 복음의 교리, 영감을 주는 영, 서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모인 가족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 코트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이 정원희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차드 스코트 장로님은 영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며, 영적인 권능 면에서 그분과 못지 않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인 차닌 자매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희에 속하시게 된 네분의 형제님께, 우리는 함께 우정을 나눌 것이며 그분들의 도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 이웃 사람이 오래 전 선교사 시절에 그의 동반자와 함께 미국 남부 지역의 어느 산동성이를 따라 걷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덕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오두막 근처의 개간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익사하여 그의 부모는 장례식에서

말씀을 할 목사를 모셔 왔습니다. 말을 타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그 목사는 외따로 떨어진 이들 가족을 어쩌다 한번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오두막 근처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슬픔에 잠긴 가족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두 장로는 뒤에 서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목사에게서 위안을 받으려고 했다면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 어린 소년이 침례를 받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부모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는 그 어린 소년이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장이 끝난 후, 이웃들이 다 가버렸을 때, 두 장로는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들은 두 장로가 대속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두 장로는 물문경에서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아니하니”(모로나이사 8:11)라는 말씀을 인용했으며,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 순회하는 설교자에게 동정이 갑니다. 그는 자기가 지닌 빛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므로, 죽음이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실질적인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 태초에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경전상의 타락이란 용어를 위치와 상태라는 개념과 관련시키면 좀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이란 단어는 좀더 낮은 상태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상에서의 필멸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좀더 낮은 등급으로 내려간 것은 율법을 깨뜨린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타락”은 또한 상태의 변화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명성 또는 신망에서 타락(떨어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이란 단어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들의 몸은 변형되었습니다. 살과 뼈로 된 그들의 몸을 현세에서의 육신으로 변했습니다. 현세란 일시적인 것을 뜻합니다.

경전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17:11~13; 신명기 12:23;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8, 351페이지 참조)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는 요소인 피는 그 전에 그들의 몸을 순환하고 있던 매우 순수한 물질과 대체되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고 병에 걸리며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벗, 1979년 7월호, 5~6페이지)

타락으로 변형된 후, (우리의 영체와는 다른)살과 뼈와 피로 된 몸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피의 성분은 생명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계를 맞춰 시간을 정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후, 모든 생명체는 불가피하게 필멸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세란 일시적인 것임을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삶의 실체입니다. 연령,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육신으로부터 영이 분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잃게 하는 죽음은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더디 오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잠을 자다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공포를 주거나 폭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니 이는 "사람이 처음 있게 된 때로부터 주는 범사에 있어 이러한 일을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더서 8:19)

현세에서 탄생하기 이전 영의 세계에서 현세로 오게 될 때를 갈망하며 기다렸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현세에서의 어떠한 조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마음이나 몸 또는 삶 자체에 자연의 한계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차례가 오기를 갈망하며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장례

교회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모임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난 회원의 장례입니다. 장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돌보며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장례는 복음의 교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역의 목적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매장을 금지하는 곳을 제외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매장은 교회의 참례 의식 및 그의 교리와 중요한 상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해를 다른 방법으로 다루더라도 부활의 효력을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나 조사적인 조치로 인하여 유해를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의 완전한 회복에 관해 경전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위안을 주는, 영적인 장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장례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애통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삶과 함께 전진해야 하는 현실로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이 예기되었던 갑작스런 충격이든, 부활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의 중재 및 죽음 후의 삶이 확실함을 가르쳐 주며, 영감을 주는 장례식은 이생을 사는 사람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장례식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비한 장례로 인하여 개종시킬 기회를 잃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장례식에 대한 염려

우리는 장례식의 특징이 되어야 할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염려하게 됩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평의회에서 이 점에 관해 토론하며 염려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계시와 장례식에 관해 총관리 직원들이 주신 가르침을 읽었습니다.

그 권고의 말씀 중 일부를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감독단에게 있으므로 감독은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은 교회 모임임

신권의 지시 아래 갖는 장례식은 교회 모임입니다. 그것은 성찬식과 흡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권 공보를 인용해 드립니다.

교회 역원의 감리 아래 행하는 모든 장례는 음악, 말씀 및 기도와 관련지어 성찬 모임의 일반 형식을 따라야 된다고 요청한다. 음악은 주일하고 모임처럼, 장례식을 시작할 무렵 개회 기도 전후에 사용될 수 있다. 장례식을 마칠 무렵에도 이와 같이 폐회 기도 직전에 관습대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곳에서는 합창단이 음악 순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 순서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는 장례식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긍정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언을 따르면 우리가 이미 설정한 방식과 장례식을 조화시키며 교회 밖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권 공보, 1978년 4월)

감독은 언제나 고인의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야 하며, 그들의 요청은 기존 정책과 부합되는 한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때때로 어느 가족은 장례식에 특별한 순서를 넣도록 세언하거나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당하다면 감독은 그러한 요청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의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합당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특별한 순서를 승인된 절차로 생각하여 다른 장례식에 이를 도입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한 가족에게 적합한 것으로 허용된 그 새로운 방식이 모든 장례식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때로 장의사가 도움을 주려는 생각에서 교회의 교리 및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례 의식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은 장례식이 신권의 감리 아래 집행될 때 그 의식은 교회의 가르침과 부합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나 장의사보다는 감독을 관리 역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장례식은 승인된 방식에서 벗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관을 열어놓은 채 장례식을 갖고 있으며, 회원들은 장례가 끝날 무렵 관 옆을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간단한 가족 기도 대신, 말씀 또는 음악이 추가되어 관을 닫거나 무덤을 헌납하기 전에 묘지에서 행해졌습니다. 나는 때때로 정식 장례식을 대신하는 무덤 주변에서의 의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장례식의 승인된 절차에서 변경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장의사 또는 그의 사람들이 올바른 절차와 조화되지 않는 색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감독은 그들이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부드럽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정된 방식이 아니며 각 장례식마다 고인에게 적합하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둘 수 있습니다.

가족 연사

직계 가족은 장례식에서 당연히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가족은

보통 가족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헌납합니다.

만일 가족이 말씀한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그들은 경건하게 말씀하며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은 그들이 다시 함께 모였거나 그의 가족 모임에서나 적합한 이야기를 하는 데, 이는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유머가 장례식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례식의 특징은 영성과 경건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례식과 관련된 모임에 관한 교회 지침서 가운데 한 문장을 인용해 드립니다.

“감독은 회원들에게 장례식과 관련된 모임에서 경건, 정숙, 엄숙하도록 강조한다.”(교회 지침서, 1985년 10월, 2~6 페이지; 사제 추가됨)

조문하는 사람에게 고인을 보여주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인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는 먼 데서 온 친척과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서로 기쁘게 인사를 나누지만, 불행하게도 때로는 소란스럽게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랫동안 조문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행동과 조문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모두 장례식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정을 새롭게 하는 일은 조문하는 사람에게 고인을 보여주는 방 밖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지도자는 이 문제에 관해 부드러운 어조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경건한 영은 예배당, 영안실 또는 그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가족의 감정에 민감하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시기에 영의 세계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면 쉽게 잃어버릴 부드러운 느낌과 영적인 교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과 이별의 시기에 우리는 경전에 약속된 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빌립보서 4:7)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평강, 아니 환희의 느낌이 그런 슬픔과 불안정한 시기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간증은 그러한 영감으로 강화되며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하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경건하며 정숙하고 엄숙한 순간에 보혜사께서 작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영적인 힘을 갈구하는 시기에 우리 자신의 행동이 경건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 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피하라.”(교성 42:45)

죽음이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임할 때, 장례는 기쁘고도 슬픈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성스러운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야 합니다.

엘마의 아들은 죽음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마는 회개에 관한 훌륭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죽음에 관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인 죽음을 모면하려 함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그러한 일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엘마서 42:8)

엘마는 육체적인 죽음을 모면하는 것이 단지 행복의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 계획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과 행복은 현세에서 가까운 친구가 아니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구제해 주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첫번째 부모는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죄 가운데 영생하지 않도록 에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죽음은 우리를 본향에 데려다 주는 여행로입니다.

장례식은 다른 모임과 달리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으니, 즉 복음의 교리, 영감을 주는 영, 서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모인 가족이 바로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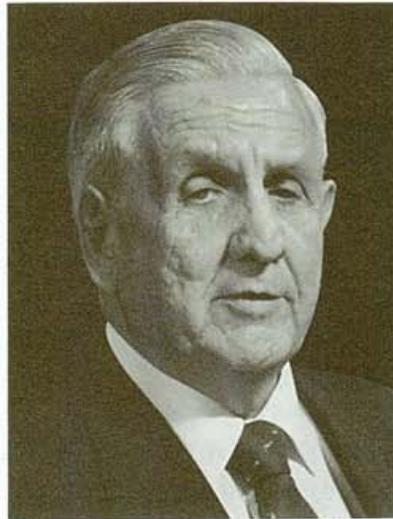
우리는 장막을 거쳐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할 곳으로 간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경건한 자세를 제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별할 때에는 어떠한 위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강은 경건한 가운데 점점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일 좋은 길

로버트 이 색클리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제일 좋은 길’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되는 “제일 좋은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린도전서 12:31)

왜 우리는 모두 “제일 좋은 길”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좋은 길”을 찾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개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마는 그의 생애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백성이 남자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의 새 것이 되나니, 거듭 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사이야서 27:24~2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로마서 6:4 참조) 그것은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사려깊게 돌보며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점점 깊숙히 빠져들어 영에 속한 것을 무시하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는 열심인 반면, 다른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있어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나민 왕이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져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야서 3:19)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린도후서 5:17)

“제일 좋은 길”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인식한 다음,
새롭게 변화하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니라”(로마서 6:4)

세계 도처에서 나는 직접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는 큰 경향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나누며,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존중하는 데 있어 새로운 생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이신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가 각기
물문경을 읽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성스런 기록에서 단지 그
말씀만 읽도록 권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문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제일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경전을 읽도록 부탁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온종일 주 나와 함께 거닐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기쁨 타는 듯 합니다.
내 영혼 채워 주시고 가까이 계신 주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어 주소서
(찬송가, 35장)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신 여러분께서는
참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사업을 지지함을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의 위대한 살아계신
예언자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인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합니다.
이 사업은 참되며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아 가는 길이요 새로운 생 가운데
행하는 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과 신앙과 기도를
전해 드립니다. 나는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능력을 더 갖고 있는 백성은
지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인생이 40여년 전
물문경을 처음 읽었을 때 보다 더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기록과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나의 간증보다 더 나에게 심오한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이 간증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영혼 가운데 불타 오르며 점차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좋은 길”을 추구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써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또
이제는 같은 목표를 지닌 후손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면서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

그리스도인다운 의사 소통

리오넬 켄드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데 직면하는 실제적인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시듯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은사로서 우리가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사히 돌아 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 표현은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및 그 전달 방식에 따라 우리의 영은 강화되기도 하며 약화되기도 합니다.

책임을 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태복음 12:36) 이 말씀은 곧 어떤 의사 표현이든지 그 결과가 따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심코하는 말, 영혼에 해를 주는 신랄한 말, 무익한 말, 저속한 말, 그리고 불경스러운 말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의사 소통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발전보다는 파괴를 조장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몇 가지 의사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올바른 관계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의사 소통 방식에 따라 험담, 유언비어 및 비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의사 소통 방식은 거짓말, 책임 전가, 비판 및 분노일 것입니다.

1. **거짓말.** 이러한 의사 표현중 첫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진실되지 않으며 기만하며 속이며 부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 소통의 근본 문제로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사탄은 이브와 대화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사 소통의 첫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난 사탄의 첫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세기 3:1)

이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2~3절)

사탄은 거짓 및 반항심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절)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왜곡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거짓과 속임과 의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잠언 12:22) “거짓말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서 42:21) 경전은 또한 어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중오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잠언 26:28)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에베소서 4:25)

성실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핵심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그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약한 것입니다.

2. **책임 전가.**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의사 소통 방식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브에게 돌린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세기 3:12) 이브는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13절)

“육으로 난 인간”(모사이야서 3:19)은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태초부터 그랬으며 말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의사 소통 방법입니다.

3. 비판.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의사 소통 방식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비평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며 고맙게 여겨집니다.

부정적인 비평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들을 종종 비방하고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의사 소통은 자극적이며 직접 듣는 모든 사람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모사이야서 4:13)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비난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4. 분노. 네번째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언행중 가장 혼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러한 감정의 폭발을 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분노하는 것은 자제력이 모자라며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대의 방문자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제력을 키우는 데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분노는 때때로 대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기적인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 또는 여자가 화를 내는 순간에 바로 가장 나약한 점을 보여 주게 됩니다.”(설교집, 4:98)

우리는 “모든 악독과...분냄과 훼방하는 것을...버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읍니다.(에베소서 4:31)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며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의사 전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고의 말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 데 관한 많은 권고의 말씀을 받았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이 말일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에베소서 4:29) 그는 또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32절)

그리스도인다운 의사 소통

우리는 서로 구세주께서 행하시리라 생각되는 방식대로 의사 소통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사 소통은 큰 소리보다는 사랑 가운데 표현됩니다. 거기에 해가 아닌 도움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고 단결시켜 주며,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사 소통은 분노가 아닌 사랑이며,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며, 분쟁이 아니고 자비이며, 조소가 아니고 존경이며, 비난이 아니고 권고이며, 비방이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을 주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거셀 수도 있지만 항상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데 직면하는 실제적인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관심을 키워 나갈 때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시듯이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여정을 더욱 밝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사 소통은 우리가 서로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하늘의 본향으로 안전히 귀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의사 소통 방식을 소중히 여기며, 이 지상에서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강화시키는 데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간증의 토양 및 뿌리

존 케이 카믹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간증을 해치거나 붕괴시키는 세 가지 위험 요소는 자만과 교만, 중대한 범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 대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합창단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특히 총관리 역원을 대신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되신 네 분을 환영하며,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이신 클라크 장로님과 스코트 장로님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증”이란 우리 신앙을 선포하거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의미는 주거나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증을 할 때 나는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부탁받는다면 기꺼이 간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자의 조용한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들의 간증이 자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증을 잃었다고 말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마가복음 9:24)하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회원들이 현재 지닌 간증이 어떻든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아내인 셸리와 나는 지난달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克兰드 성전에 다녀온 후, 우리 집 뒷뜰을 거닐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잔디가 잘 자라며 초록 빛을 더 띠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집을 빈 며칠 사이에 잔디가 말라서 건조처럼 되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식 물 분출기는 고장이 났었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잔디를 말라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간증은 마치 우리 집의 잔디와 같습니다. 잔디는 초록 빛을 띠며 잘 자랄 수 있으나, 한 여름의 열기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결코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몸이 떨립니다. 나는 누군가가 옆에 서서 “어디 두고 봅시다.”하고 조용히 응답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단 한 사람의 간증이라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토의 일부, 대륙의 한 조각인 것이다. 한 줌의 흙이 바다로 씻겨 나간다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져 마치 갑인 듯, 그대 친구 또는 그대 자신의 영지인 양 느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는가 알려지지 말라, 좋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존 돈, 헌신, XVII)

좋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울립니다. 강한 간증을 지닌 분들에게는 그 간증을 계속 키워도록 말씀드립니다. 간증을 잃은 분들에게는, 다시 간증을 회복하여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시편 55:14)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이사야 40:31)

씨뿌리는 자의 비유(마태복음 13:18~30 참조)는 우리에게 간증을 얻거나 지킬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며, 우리가 간증을 잃을 위험에 대해 피해야 할 함정을 암시해 줍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름의 열기를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지닌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토양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름의 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세 가지 원리와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가지 구체적인 권고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

첫째, 우리의 간증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것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의심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위안이 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나를 삼킬듯이 위협하던 사업상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세주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길을 빛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1984년, 헝클리 부대관장님은 나에게 접견이 있으니 아내와 함께 일반 총회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이었습니니다. 구세주께서는 동트기 전에 영으로 나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4)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불드시...리로다”(시편 55:22) 우리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엘마서 36:18)

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임재하심을 알고 있으며 나의 심령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이노소서 1:10; 교성 8:2 참조)

주님은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증이 접목되어야 할 “참 포도나무”(요한복음 15:1)입니다. 좋은 토양은 구세주에 의하여 비옥하게 됩니다.

소망

두번째 원리는 매우 간단하므로 좀더 심오하며 복잡한 개념 사이에 가리워지기 쉽습니다.

신앙은 복음이 참된지 알려는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강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간증언기를 소망하며 알기를 소망하며 믿기를 소망할 때, 간증이 생기거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고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되며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가지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이 되기를”

소망했으므로 위대한 축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습니다.(아브라함서 1:2 참조)

엘마 또한 우리가 간증을 얻으려면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여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엘마서 32:27; 사체 추가됨)

소망은 신앙과 간증을 낳습니다. 간증은 이론이나 연구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물몬경과 신약전서가 참된 것이라는 수백 가지 증거를 들 수 있으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마도 그 모든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으므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디모데후서 3:7)

나는 복음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 또는 문서상의 증거에 의해 진실됨이 입증되도록 되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신앙을 지닌 사람은 논리와 증거만으리가 아니라 신앙으로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소망이라는 요소를 우리의 토양에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실험

세번째 요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과학적인 방식과 유사한 영적인 실험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방법이며, 간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해 보면, 여러분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이 일로 영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지식과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행하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교성 50:24)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이 참됨을 알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선언할 때, 사실상 나는 행함과 봉사로 말미암아 이 사업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불구자가 낮게 되며 장님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인생의 행로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며,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예언자에게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리가 참됨을 알게 될 것이며, 빛과 진리는 점점 더 밝아져 대낮이 될 것입니다.

씨앗은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엘마서 32:28)

그렇습니다. 간증을 얻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현에 의해 개종되었습니다. 연구와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증거 없이 이성과 지식에만 바탕을 둔 간증은 그 빈틈없는 논리의 전제가 허약하거나 무너질 때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간증이 신앙의 기반 위에 있으며 경험을 통해 계속 자라나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보고, 느꼈으며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서는 응답되지 않은 질문도 많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나의 간증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정기적으로 쌓이며, 한편으로는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응답받고 뼈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을 마칠 때까지 그 여름의 열기를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

맞을 내린 그 간증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위험한 요소

나는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그 주된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1. 자만 또는 교만. 내가 말씀드릴 세 가지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만 또는 교만입니다. 도덕적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즉 지식의 추구, 재정적인 성공,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및 그의 업적은 때때로 교만을 불러일으키며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니파이서 9:29)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력 역시 사람을 유혹하며 타락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녹과 모세와 김볼 대관장님의 겸손한 성품을 상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죄. 간증은 죄, 특히 성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약화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복음을 거부하고, 도피합니다. 돌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곧 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죄는 우리의 간증을 위협하는 두번째 위험한 요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돌을 제거하고 흙을 없애 비옥하게 하며 죄를 극복하며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중 간증을 완전히 잃어 버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 대용물. 끝으로 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는 대용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훌륭한 능력있는 사람중 일부는 과학, 철학, 역사, 미술, 음악, 운동, 전문적인 일, 지적인 취미 및 여가 활동에 너무 몰입하여 이러한 관심사가 복음의 간결하고 핵심적인 가치와 성약 및 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추구가 그들 생애에서 종교를 대신하며 삶을 다스리는 요인이 됩니다.

성전의 성약과 의식에서 거둬지며, 성찬식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경전에 나오는 중심되는 복음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일성도중에도 그리스도의 평범한 제자들 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인생 및 복음에 관한 지식을 더욱 깊이 배우기를 그쳐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확실히 하며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간증을 해치거나 붕괴시키는 세 가지 위험 요소는 자만과 교만, 중대한 범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 대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뒷뜰의 잔디는 다시 초록 빛을 띠기 시작했으나, 앞 마당의 물 분출기는 갑자기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성 64 : 33 참조) 우리의 간증도 잔디처럼 시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하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 권고를, 하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빛과 간증 가운데 발전하려면,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하여 교회에서 받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기독교인다운 자발적인 봉사가 결부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닌 간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더욱 푸르게,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을 신권 직분에 성임하고, 활동적이든 활동이 저조하던 관계없이 모든 형제 자매에게 부름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복음 원리를 적용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원에게 한 가지 교회 부름을 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간증을 강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회 회원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커다란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치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정 증진의 손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우리가 와드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따뜻하고 성실한 품성과 새로 온 분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행 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총관리 역원이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우정 증진의 손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약전서를 보면, 구세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시현을 받았읍니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 : 34~35)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1)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2) 새로운 개종자가 침례받은 후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주는 일을 우정증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 말의 의미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우정증진이란 말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계의 악수(갈라디아서 2 : 9)를 오직 친척, 가까운 친구, 교회 회원,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진 일부 정해진 비회원에게만 한정시켜 손길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정을 한정시키거나 보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읍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 : 10)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 : 19~20)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며,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는 총관리 역원과 선교사 및 그외의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선교사를 지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는 선교 사업에 시간과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세상에 수십 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35,700명 이상의 복음 선교사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헌신적인 종들은 221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며 64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245,000명의 개종자가 1988년도에 침례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숫자는 상당한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진정으로 따뜻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이해심을 갖고 귀기울이며,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복지와 관심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구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는지 알아내어 구도자들의 오해나 의심 또는 걱정을 풀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따뜻하고 진실된 영은 비회원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은 곧 개종으로 인도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세계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에는 큰 희생이 필요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의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선교사의 그 모든 희생과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개종자가 와드나 지부에서 처음으로 회원을 만날 때가 개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총관리 역원들 중에서 우리가 새로 나온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 분이 나에게 그들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디버어 해리스 장로님은 최근 유타의 한 오래된 와드에 방문한 일을 내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하려고, 또는 나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모두 나를 무시하고 내게 말조차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를 알아 보고 ‘아, 해리스 장로님’하고 말씀했습니다. 감독이 돌아 보고 ‘뭐라고 하셨죠?’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 분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계신 해리스 장로이십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연단에 나와 앉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간증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떠나면서 ‘이 얼마나 비극인가! 회색 머리의 낯선 사람이 모임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알아 주지 않고 인사도 안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던 것이 교회 직책이 밝혀지자 모두 태도가 바뀌어 친절하게 대하려 하더니.’”

두번째는 3,200킬로미터나 서로 떨어져 사는 어느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복음 선교사에게 선교사 복음 토론을 배웠습니다. 각기 영이 확증하는 느낌을 받아 침례를 받았습니. 두 사람은 이십대 초반의 독신 성인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감독을 만나며, 그녀를 가정에 초청하는 회원들과 우정을 증진시켜 나갔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그녀에게 환영해 주며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례를 받은 후 바로 교회의 부름을 받고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과 교체하는 한편, 계속하여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의 일반적인 교회 부름을 계속 받아들이며 봉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녀는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지금도 활동적인 회원으로서 회원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영의 증거를 받은 이후 감독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 교사가 그녀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교회의 부름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레 주일 와드 모임에 참석했으나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곧 그녀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은 그 지역을 떠났으며, 복음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회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헤아림을 받...고, ...양육” 받지 못했습니다. (모로나이서 6:4 참조) 곧 그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옛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 갔으며 비회원과 결혼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가정에서는 현모양처로서, 또한 그 지역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생산적인 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서 참된 회원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훌륭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최근의 처치 뉴스에는 유타주 듀세슨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데 모범이 된 두 명의 나이많은 자매 선교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이 자매들이 스테이크에 우정으로 가득찬 따뜻한 분위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실상 이 자매들이 가르치며 우정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스테이크 전체의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비회원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작은 농촌에서는 활동이 저조한 가족이 활동적인 가족으로 될 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열두 가족 내지 열다섯 가족이 올해에 활동적인 가족이 되어 성전 의식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찾아내어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각성하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와드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줄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선교사들이 배워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성실한 품성과 새로

온 분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원인 우리는 우리의 와드와 지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환영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정겨운 곳이 되게 하여 구도자가 개종하는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감독에게는 우정 증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성인에게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보여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임을 가르치십시오. 와드 평의회를 할 때, 와드 내에서 우정 증진을 촉진시킬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선교사는 구도자가 침례받기 전에 반드시 감독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형제나 자매를 지명하여 문 앞에서 영접하며 새로 온 분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때때로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를 활용하여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에게 와드 구역 내에 사는 모든 사람과 우정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융통성을 두어 대제사와 스테이크 선교사 및 복음 선교사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 새로운 개종자와 활발한 우정 증진을 행하게 하십시오. 목자의 참된 정신을 지니고 감독단은 회원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정 증진을 활발히 하여 좀더 많은 새로운 개종자를 맞이하며, 좀더 많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더욱 활동적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므로 내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긴급히 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웃간에 우정과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우의를 돈독히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나 최근에 활동화된 회원은 교회회원들과



충만한 우정을 나누는 중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환영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과 지도자는 예수님의 모범대로 그들을 도우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개종자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환영하며 영접할뿐만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줄 만한 사람인지 알아내어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나누는 마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본보기를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 당시 교회의 관리 감독이었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부친과 함께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모자에 손을 대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지 에프 리차즈 장로는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예, 아버님. 모두 다 압니다. 단지 그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6)이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및 교회의 회원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펼쳐 보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미소와 우정어린 인사에 담긴 따뜻한 마음씨는 이웃간의 좋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7)

몇 년 전, 나의 친구는 어느 날 아침 차고 지붕 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멘트 한 부대가 비회원인 이웃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지붕에서 내려와 자진해서 시멘트 작업 도구를 들고 길을 건너가 그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그의 이웃은 그가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의 이웃이 교회 회원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감정을 보인적도 있었지만, 그날 일을 마칠 무렵에 그는 나의 친구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 지속되는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며, 그 계명으로 그의 제자임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로 참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빛이 우리 생활에 비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선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을 단지 개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만 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그의 이웃과 친구를 개종시키려다 반응이 없자 우정을 거두고 교제를 그치는 슬픈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비회원인 친구 및 그의 아는 사람들과 개인적이며 의미깊은

관계를 맺기를 권고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은 깊은 우정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그 후에 올 수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종종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봉사와 친절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야 하며 이웃을 단지 개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회원들은 비회원인 사람이 복음 공부에 대한 권유를 사양한 경우, 그가 반드시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공공연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좋은 친구요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심하거나 조심성 많은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절과 사랑을 단지 우리의 친한 회원에게만 한정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 보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한 행위를 교회 회원들이 절대 금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사도 행전 10:34)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내게 대답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알려 주는 몇 가지 의미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왼쪽)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의가 되신 리처드 스코트 장로를 위시하여 모든 새로운 총관리 역원을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여러 해 전, 스코트 장로는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상관인 저명한 해군 제독은 스코트 장로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자 당황해 했으며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 저명한 제독은 왜 **최고**가 아닌지? 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주님은 “최고” 중 한 사람에게 부름을 주셨으므로, 그 부름과 관련시켜 볼 때 지금도 적용되는 그 제독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가 쓴 책의 제목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알려 주는 몇 가지 의미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능에 관해 캐묻는 사람들에게 예리한 질문으로 되물으며 “내게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29-30 참조) “내게 대답하라”는 권유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질문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17)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후 감사드리러 오지 않은 문둥병자들에 관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아홉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감사드릴 줄 모르는 행위로 인해서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상에서 그의 놀라우신 목적을 이루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성 59:21 참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다가올 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커다란 두려움이 이 혼란한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교성 63:33, 88:91 참조)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배은망덕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느 면으로나 모두 걸식하는 자(모사이야서 4:19 참조)로서, “자기를 비어”(빌립보서 2:7) 겸손하게 사신 우주의 창조주에게서 구원을 받은 걸인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칠지 염려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몸에 지녀야 합니다. (엘마서 5:14 참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마가복음 3:4) 하고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끈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6 참조)

신앙개조에서 사랑할만 하고 칭찬할만 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열 두개의 신앙개조를 믿음으로써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참된 정신은 교회의 교리, 의식, 성악 및 프로그램과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균형잡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과책과 지침서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닮았어?” 하고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지 않은 동전을 사용하여, 그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드러내 보이시며, 지상에 통치자가 있는 한 적용될 수 있는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20 참조) 그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우리는 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세상의 갖가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신앙개조 12조를 따라 하나님과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바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실천한 사람들은 부패한 관리들이 비호하는 군사 정권 하에서 생활하는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줄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11 참조)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때때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목에서 그러한 선행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비교적 우리는 우리가 받은 호의를 갚고, 우리가 진 빚을 사람들에게 갚는 데 빠른 편입니다. 또 그렇게 행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불사불멸의 상태로 거하게 하시며, 충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은사중 가장 큰 은사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형편없는 부기 계원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하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했습니다.(마가복음 8:12 참조) 사악하고 불의한 백성일수록 믿음의 조건으로 표적을 요구합니다. 관능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감각에 의존해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에 대한 증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히브리서 11:1; 엘마서 32:21 참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조용히 활용함으로써 결국 “신앙으로 승리”(교성 76:53)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인인 십이사도에게 한 사람씩 물어 보셨습니다.(니파이삼서 28:1 참조) 주님은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실 뿐

뒤에서 우리를 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교성 78:18; 50:40 참조)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은 우리의 소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며 그 경우, 우리의 소망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릇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을 존중하시려는 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책임과 모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시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이 장차 맡을 일에 대해 물어보자, 예수님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하고 대답했습니다.(요한복음 21:22) 형제 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너무 많이 비교하나 따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부름을 주신 것을 원망하며 자기가 무시당한 듯한 느낌을 느껴 영성을 잃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 사체가 추가됨)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을 무시하든, 관심을 갖든,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질문입니다.(엘마서 34:5~6 참조)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응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든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요한복음 6:67) 믿음없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물러 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66절)하게 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커지기도 하고 시험받기도 합니다. 믿음에 거하여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3; 베드로전서

5:10 참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요한복음 6:69 참조) 사람은 예를 들면 불 화살이 빗발쳐도(니파이일서 15:24 참조)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방패를 높이 쳐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미깊은 질문 중에서 단지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일부는 고대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자기의 소위를 살려”(학개 1:7) 보도록 회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명확히 들었음에도, 우리의 생활 양식이 때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입니까?(니파이삼서 27:27, 베드로후서 3:11 참조) 물론 개인으로서,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더우기 죄를 지으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그만큼 더디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몇몇 회원들이 어느 면에서 고대 아테네인들과 같이 의심하고 비판하기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믿음의 약한 회원들이 도박에 손대듯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복음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부추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살찌우기 보다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말에 잠깐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전향하는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꾸준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이서 31 : 20; 교성 49 : 23 참조)

왜 우리는 우리가 발전하고 순종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의 시련을 거부하며 원망합니까? “나는 내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등록한 지상 생활에서의 학교 교육 과정을 거부합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출구는 오직 한 개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문을 찾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도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되는 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행하는 한, 간음 및 이와 유사한 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주님께서 중점을 두시는 점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한 가지 이상의 것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 : 21; 베드로후서 1 : 9 참조)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는 회사를 구하는 것 등은 훌륭하고 가치있는 일로서 생명의 책에 기입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이 일곱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을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식을 따르면, 몇 가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변명할 수 없는 행위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스스로 부도덕한 행실을 피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누가복음 9 : 23; 니파이삼서 12 : 30 참조)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탐닉하고, 때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 중에 방탕주의에 휩쓸려 젊은 시절을 바빌론에서 거하며

반항을 일삼고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릇된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것처럼 방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되돌아올 것을 마음먹는다 해도 술과 마약과 외설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쉽게 놓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저 옛날 사탄이 자신있게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모세서 4 : 1)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방탕한 인생관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및 인생에 대한 냉소적이며 천박한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조금”(니파이이서 28 : 8) 지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입씨름하며 흥정할 수 있는 야간 즉결 법정 의 판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기 보다는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엘마서 39 : 1; 교성 82 : 3 참조) 그뿐 아니라, 곧고 좁은 길에는 쉽고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불충실하여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자신의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곱서 2 : 35 참조) 이렇듯 가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연민과 욕망에 쉽게 빠져 들게

됩니다. 더우기 이것은 바다에 몰려 들어가 빠져 죽은 돼지들 처럼 오늘날에도 남녀 구분없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사람을 찾고, 도와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떠나가며 배반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 배반당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상징해 줍니다. (사무엘하 11 : 15 참조)

말씀을 마치기 전에, “내게 대답하라”하고 단순히 말씀하신 분의 위엄과 겸손에 관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두 명의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22 : 69; 베드로전서 3 : 22 참조) 그분은 단지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으나,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수없는 세계(모세서 1 : 33)를 만드셨으며, 이중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교성 88 : 47) 본 사람은 천체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이 단 한사람의 소경을 도와 주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어두운 육안을 밝히사 빛을 보게 하셨네”(알렉산더 포프, 프레데릭 더블류 파라 인용, 그리스도의 생애, 뉴욕 : 이 피 듀튼사, 1893년, 394페이지; 요한복음 9 : 6 참조)

예수님은 피곤한 경우에도 결코 싫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나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리는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과 준비에 따라 여러 면으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각 면마다 그 아름다움과 참됨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였으나, 그 권세를 함당하지 않게 사용하신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헤롯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23:8 참조) 수많은 수호 천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다렸으나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42 참조)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대속의 행위로 진 인류를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 주실 때에도 갈보리에서 혼자 버림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수십 억 이상의 인류를 위해 고통받고 계실 때, 그 곁에는 충실한 제자 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대속은 모든 경륜의 시대 및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파이서서 9:7, 25:16 참조)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고린도전서 15:22) 얻도록 주님께서 일부가 아닌 모든 탐구명에서 피를 쏟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적절히 보상해 주는 행위였습니다.

무한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의 자손 역시 끝이 없어 결국,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3-4 참조) 참으로 이 얼마나 무한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은 “내게 대답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분에 관해 조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 주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즐거 주의 일하고 계명 힘써 우리 지키나이다”(찬송가, 59장)라는 찬송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벤슨 대판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경륜의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기를 모든 예언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권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신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하다면, 신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우리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신 권을 지니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 충실한 형제님들이 지니신 위대한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주님의 사업을 행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숨은 공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손을 들어 지지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그의 원편에 앉게 될 특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지난 이년 동안, 교회와 세상에서의 그 위치에 관한 나의 생각은 더욱 새롭게 담겨졌습니다. 나는 복음을 더욱 감사하게 되었으며, 회원들에게 더 큰 사랑과 존경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더욱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과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대판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기타 총관리 역원과 정규적으로 만나게 되는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르신 이 위대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병들고, 온전치 못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표하며 인도하심을 성스럽게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는 나에게 영감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심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교회의 회원이 됨은 참으로 큰 특권이며 영예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며(로마서 1:16 참조) 교회와 그 지도자와 회원들과 교리가 비판받거나 중상받는다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담하고 단호히 나서야 합니다.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먼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 역원과 교사와 지역 지도자들이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사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의 뒤를 잇는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권고해 드리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교성 1:12)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과 지도와 권고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지혜로,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보다 몇 년 앞서 이 지상에 도착하신 부모님에게 태어 났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일을 이미 지내 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며 무엇이 불행과 슬픔으로 이끄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고를 찾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를 직접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흔히 부모는 과거로, 친구는 미래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잡지, 영화, 음악은 흔히 여러분에게 부모는 아무 것도 모르므로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훌륭합니다.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며,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목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사이사서 4:14~15; 교성 68:25~28, 93:40~50; 잠언 22:6 참조)

나는 청소년 시절에, 신권 지도자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다섯 살때 감독님이셨던 찰즈 이 포스버그 감독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영어는 다소 틀리기도 했으나,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내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신권 지도자로서 다른 분들로는, 감독님이시기도 했던 나의 아버지와 우리 와드의 감독인 나의 부친의 뒤를 이은, 매리온 지 롬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나의 생애에서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조만간, 모든 청남은 선이든 악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아름다운 하늘의 창조물로 가득 차게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적인 사탄의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게 하는 선택권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도록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모로나이사서 7:15)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론경에서 배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고린도전서 10:13)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게 되어 여러분이 받은 특권을 언제나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주어진 특별한 은사입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모든 신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와 연관된 영광이요 기회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일 지라도, 모든 임무를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완수하도록 하고, 항상 기대치 이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 헌금을 수납하고, 성찬을 축복하거나 전달하고, 침례를 베풀고,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은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주님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주님을 대신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더욱 큰 일을 받아 들이는 여러분의 능력은 작은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각자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로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생활함으로써,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더럽히거나 주님의 교회에 부끄러운 누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복음의 거룩한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재정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세상은 복음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전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말일례사여 여러분 청소년들은 다른 어느 때에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보다도 신권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시시켜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갑옷에서 틈새를 찾아 내고자 애씁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이용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주님의 기쁨부름 받은 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계명을 이해하고 매일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함으로써만이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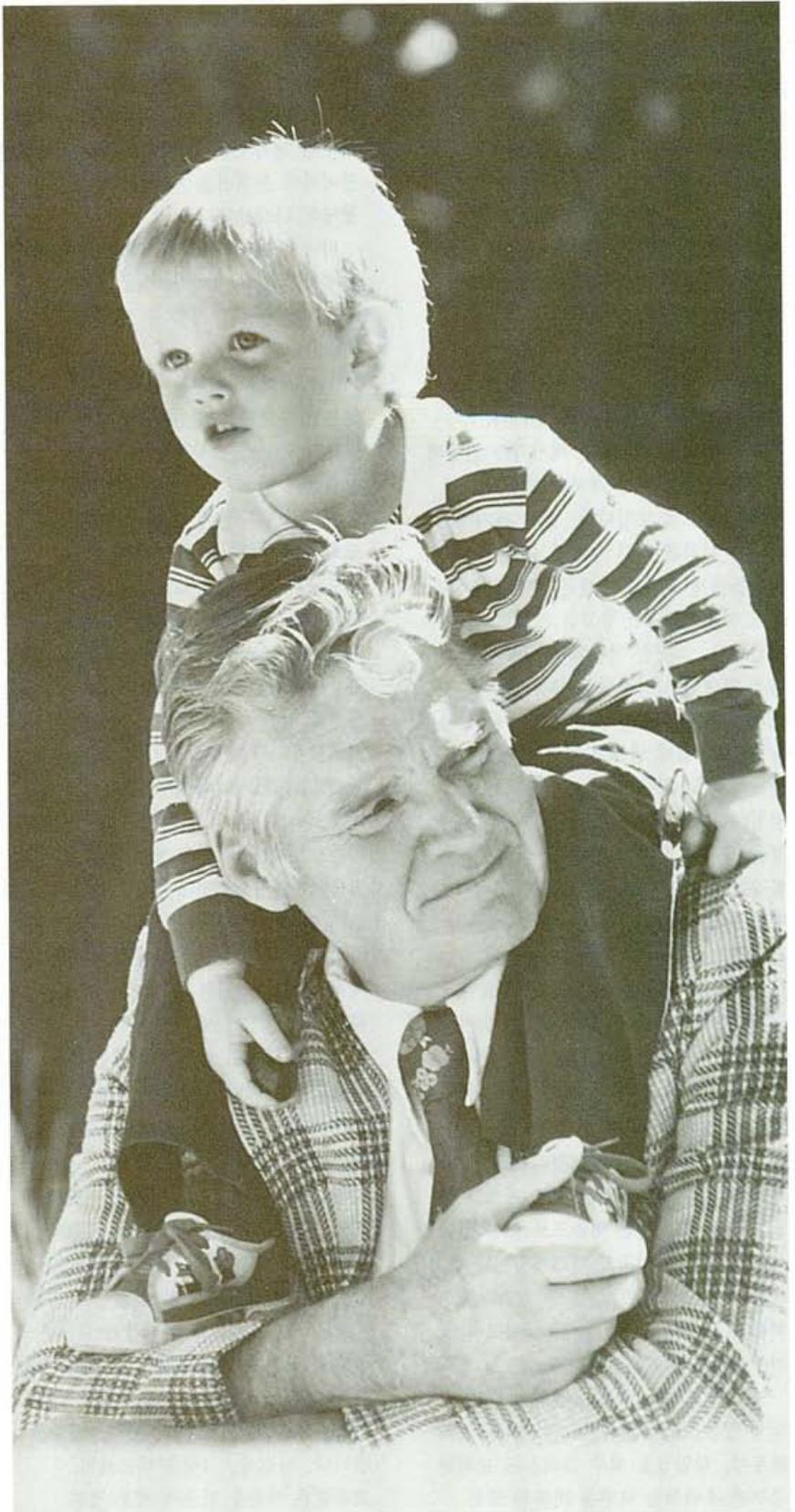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에게 현재 뿌린 씨는 미래의 수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 되시고, 신권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에게 특히 모범으로, 이들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으면 양들은 바른 길로 들어설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 신권은 비교적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서 여러분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행사하여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가정에서 영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은 신권의 권능과 권위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기타 다른 가족들을 축복하는 성스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독신 성인 형제님들은 우리 예언자의 권고를 따라 합당한 때에 결혼하고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기회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벤슨 대관장은 이와 같은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결혼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연차 대회, 1988년 4월)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나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스럽고, 충실한 많은 여성들이 이 특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주님과 여러분 자신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결혼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귀한 신권 소유자는 그의 생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들이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스포츠를 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오늘 날의 세상에서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과 교회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 방문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텔레비전이 꺼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더럽고 악하여 오늘 날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독소로 물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도 심하게 부패하고 악하여,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영의 속삭임에 둔감하게 합니다. (히라랜서 4:24) 사탄은 텔레비전과 영화를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삼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사탄의 영향을 잘 나타내는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술 광고입니다. 거기서 전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다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재미에 빠지는 시간은 어떤 상표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 광고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특히 위험한 것은 포도주와 같은 술 광고가 열매 냄새가 나는 맛있는 청량 음료와 거의 같은 종류로 선전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생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인체와 사회에 위험하고도 가공할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1833년에 주어 졌을 때 그것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우리 시대의 과학의 발견이 위대한 계시와 효력을 입증했습니다.

내가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영을 고취시키며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도 많으므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균형으로 선을 받아 들이고 악을 거부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도박이 도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정부가 후원하는 복권을 비롯한 모든

도박을 반대합니다.

대중적인 복권은 세금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은 그들에게서 돈을 취하고 반대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므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의 문제점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다음 달에 복권 문제가 국민 투표에 붙여져 그 주의 국민들은 투표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복권에 대해 정부가 후원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합세할 것을 추구합니다.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구세주께서 교회의 우두머리로 선택하신 사도 베드로의 모범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는 동안, 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한 사람이 성전 문가에 자리잡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돈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사도행전 3:6~7)

“잡아 일으키니”라는 구절을 나는 이 기적의 중요한 요점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권의 행사입니다. 이 의미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신앙 개조 5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님들은 여러분의 신권 권능이 직접 구세주에게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하다면, 신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우리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과 권능을 줍니다. 사실상, 그것은 베드로가 고통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과



대회 방문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임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님은 고대와 현대에 그의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셉 스미스로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에 이르기까지 말일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대표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교리는 속세에서 나온 평의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몇 주일 전에 우리는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거룩한 숲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땅을 거닐며 참으로 영감에 찬 경험을 했습니다. 성신은 첫번째 시험에 있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내게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7)

여러분 형제님들은 요셉 스미스가 열 다섯 살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그와 같은 요구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어느 교회가 옳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 스미스 2:10~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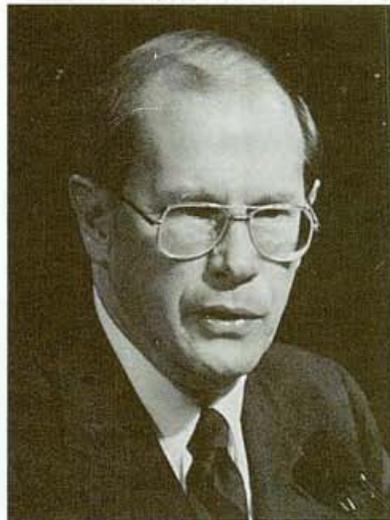
형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 본부에서 표현한 높은 이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에즈라 테프트 벤슨, 연차 대회, 1988년, 4월)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얽매어 이 거룩한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일의 예언자들이 하시는 주요한 말씀은 케케묵은 진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언자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극히 중요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연차 대회, 1964년 4월)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여러 형제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업은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신의 집안에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연차 대회, 1973년 4월)라고 말씀했으며,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우리가 대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성장과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원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여행을 다시 해 나가야 합니다.”(연차 대회, 1979년 4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회복의 예언자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하나님의 현재 예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함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경전에 나오는 일곱 가지 행위를 겸손하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영이 곧 바로 함께 하실 것임을 제언해 드립니다.”



신 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모로나이서 10:32) 오라고 거룩하게 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 데려 오라는 거룩한 명령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고, 인간을 그에게 데려 오기를 기대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이 진실로 “가장 값있는 일”(교성 15:6)입니다. 실상, 여러분이 성임받은 것은 바로

“나의 말에 따라 신앙과 회개와 죄 사유함”(교성 53:3)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교성 15:6, 29:7; 앨마서 17:11, 29:9 참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헌물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준비하고 있었”(교성 138:56)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권고의 말씀은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필경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성역을 베푸는 시기에 살고 있으므로, 새롭게 무장된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교성 6:9, 11:9, 18:14 참조)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권유해야 하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큰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대담하게 간증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4 참조)

가정을 방문하는 목적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우리는 큰 목적이 있는 명을 받았으니, 그것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교성 20:47)

그들에게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교성 20 : 47) 것을 권고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엘마서 4 : 19)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모사이야서 7 : 33)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는 “방문”하기 위해 활동 회원을
교회에 참석만이라도 시키려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가정의 가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가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고
경전을 읽도록 도와 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모든 일은
자연히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전에 묘사된
대로, 권능과 권위로 특히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방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성 90 : 24; 몰몬서
9 : 27 참조) 우리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교성 6 : 36
참조)

우리는 방문할 때도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며 “(주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성 100 : 5-6, 84 : 85)

이와 같은 방문의 결과는 스스로
간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첫번 방문에서 어떤 사람은 이십
오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고, 다음 단계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 활동이 저조한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을 기다려 왔습니다.”하고 말합니다.

— 어느 주부는 활동이 저조한 남편이
“사자가 파견 되리라는” 꿈을 꾸었음을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믿겠어요.”하고 말합니다.

— 예기치 않은 전화가 위대한 순간에
걸려 와 비활동이 되려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며 그 안에서 그는
남몰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방문—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제언

교사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사인 여러분은 영이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일곱 가지 행위(엘마서
31 : 10)를 겸손하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영이 곧 바로 함께하실 것임을 제언해
드립니다.

1. 기도하십시오. 영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동안 여러분과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분별력을
간구하십시오. (니파이삼서 17 : 2-3,
20 : 1; 교성 136 : 29, 32 참조) 예를 들어
봅시다.

— 방문시에, 두 사람의 신권 지도
자들이 탈선한 딸이 축복받게 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기도로 영감을 받고 그날 저녁
회개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고
성전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 가족으로서 인봉되었습니다.

— 일곱 살난 아들이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활동이 저조한
아버지에게 “아빠, 기도하세요. 엄마와
나를 성전에 데려가 주세요.”하고
말합니다. 그 후 그 가족은



대외 방문자

인봉받았습니다.

2. 경전을 활용하십시오. 경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영은 경전을 통해서 쫓거나 늘거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32:3; 엘마서 31:5; 교성 32:4 참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와 같이 방문하는 중에, 침례에 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느 구도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방문중에 성구를 읽다가 땅에 차고 넘치며 번성하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뿐인 어느 젊은 부부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불의한 결정을 내린 일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3.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방문하는 동안 자주 간증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은 전”합니다. (니파이이서 33:1; 엘마서 5:44-47 참조)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어느 신권 지도자는 간증을 하는 중에, 무의식중에 어느 자매의 축복사의 축복문 가운데 한 문장을 들어 인용합니다.

- 다른 방문에서, 어느 회원은 경전에 언급된 사후의 생에 대하여 간증하는 데 그것은 그가 어린 아이를 최근에 잃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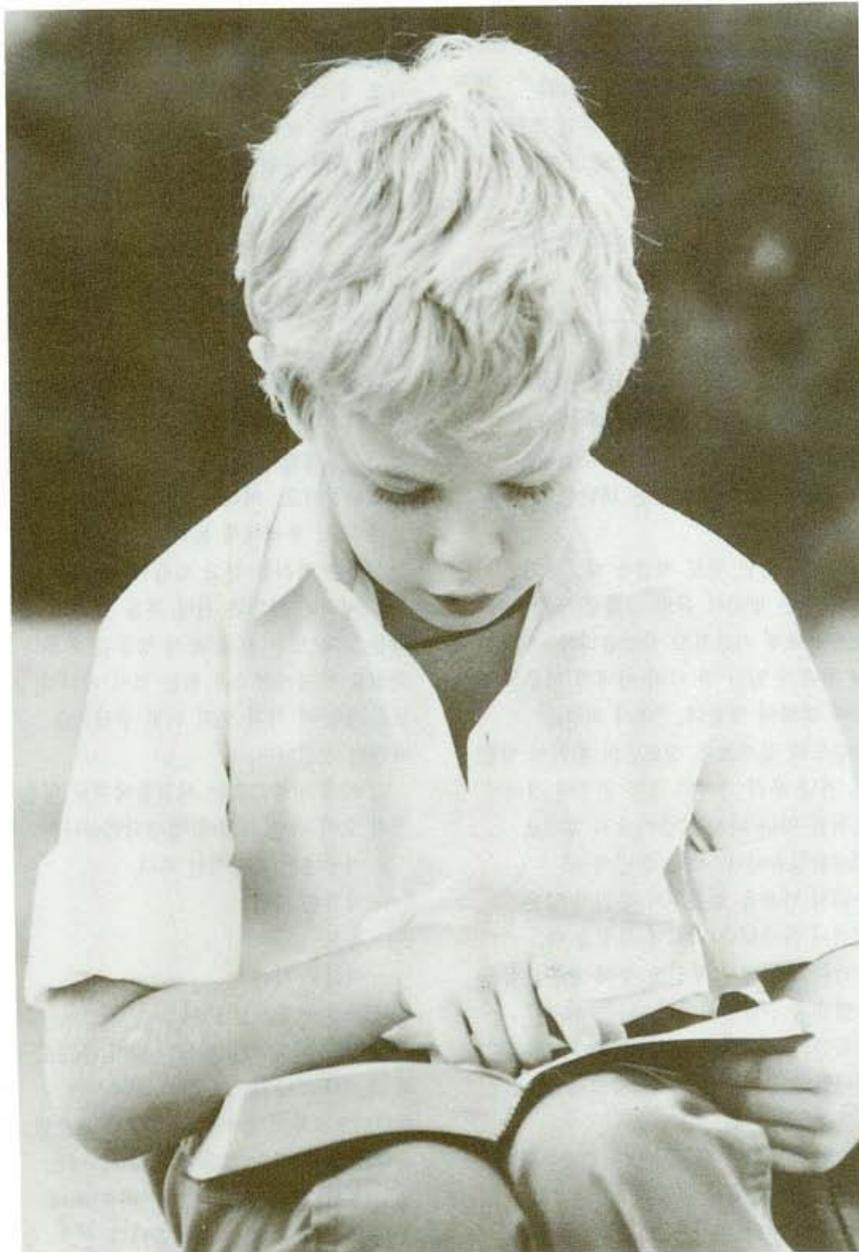
4. 음악을 활용하십시오. 녹음된 찬송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시온의 노래를 부르거나 불러 준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됩니다. (교성 25:12; 마태복음 26:30; 골로새서 3:16; 사무엘 상 16:23 참조) 예를 들어 봅시다.

- 어느 신권 지도자가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나빠 한 번도 노래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활동이 저소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교회로 돌아 왔습니다.

- 어느 가정 복음 교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녀들과 함께 노래불렀습니다. 심술궂은 노인이 울고 여러 해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졌습니다.”

5.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표현하면, 영을 매우 깊이있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34-35; 니파이일서 11:21-23; 모로나이서 7:47-48) 예를 들어 봅시다.

- 방문의 영에 감동된 활동이 저조한 어느 침대의 소년은 부모의 사랑으로



대회 방문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된 데 대하여 부모에게 사랑을 표시합니다.

- 어느 신권 지도자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 그룹에 사랑을 표시한 후, 그날 성찬식에 이십 명이 돌아 옵니다.

6. 영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 영적인 경험은 인간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그 경험을 함께 나누십시오. (교성 59 : 21~23; 누가복음 10 : 25~37; 사도행전 26 : 1~32) 예를 들어 봅시다.

- 활동이 저조한 남편이 지난 밤의 꿈에 관해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경험을 말하면서 바로 그날 저녁의 일을 뉘우칩니다.

- 두 명의 신권 지도자들이 영감을 주는 선교사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결과, 활동이 저조한 두 아들이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7. 신권 의식을 수행하십시오.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교성 84 : 20) 성도들과 병자를 축복하고, 성도들의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축복을 구하도록 권고하십시오. (니파이삼서 20 : 2~9 참조) 예를 들어 봅시다.

- 신학연구원 대학부 책임자의 갑작스런 방문에서, 범범을 저지른 어느 여대생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신학연구원을 다시 다니게 됩니다.

- 다른 사람은 그의 병상에서 곧바로 일어 납니다.

- 딸이 신권의 축복을 받고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잃었던 평안을 찾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일곱 가지 제언을 따른다면, 또 다른 제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에는 언제나 주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신이 증거하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치면 여러분의 방문은 일상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인의 음성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시간에도 그 음성애 기꺼이 따르지 않으려는 양도 더러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때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 (교성 18 : 12)실 수 있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후일 그들이 보다 더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영애 응답할 때에 다시 시도합니다. (니파이삼서 18 : 32 참조)

어느 자매의 방문

내 아내의 경험을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아내는 스테이크 대회에 관한 지명을 받고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목자와 종으로서, 그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일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방문에 관한 공과를 몇몇 신권 소유자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5세 된 형제가 일년 전 나의 아내가 방문한 일에 대하여 말하며, "내가 비결을 말씀드리 볼까요? 장로님의 부인이 방문 온 전날 우리 가족은 모두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나는 부인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가 받은 의식과 하나님을 기억케 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인을 통해 말씀하심을 느꼈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제 감독단의 일원입니다. 자매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자매님이 영을 나와 나의 가족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좀더 자세히

보아 두었다면, 오늘 저녁 내가 처음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님들도 역시 이 사업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 : 거룩한 동기 부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데려 오기 위해 주께서 보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2. 우리는 "티끌처럼" (엘머서 34 : 38; 교성 138 : 56) 겸손하여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영을 구하는 방법을 보다 더 잘 배워야 합니다.
3. 그 과정으로서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을 갖춘 합당한 모든 사람, 젊거나 늙은 모든 사람이 행할 일이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십시오. (교성 4 : 5 참조)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동반자들에게 그와 같은 방문을 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제언은 가정 복음 교육, 방문 교육 또는 보조 조직 방문을 위한 과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문에 가져 오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5. 아래 말씀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영을 가져 오기 위한 과정이 설명되었습니다.
 - 가정에서 반항적인 자녀
 - 낙담한 사람
 - 동료
 - 여러분 자신
 - 가정을 방문했을 때
6. 어느 지도자가 결심한 듯이 우리도 해 봅시다. "나의 정원회나 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일하여 그의 마음 속에 큰 변화가 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우리의 동기 부여는 다만 의무와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가 받은 부름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동기 부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경을 인용하여 간증드리면,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 "영으로 굳게 단합"하게 되며
-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능으로 가르"치며(모사이사서 18:26)
- 우리가 전에 받은 은혜대로 회복되며(모사이사서 18:26; 힐라멘서 12:24 참조)

- 하나님의 은혜 또는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이디서 12:30, 34 참조),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사서 7:47)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 곧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영적으로 공핍한 자에게 주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를 볼 때 보다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더 큰 기쁨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교성 18:13-16 참조)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어떻게하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기꺼이 행하는 마음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이 위대한 대업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제 백여 분동안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 이 큰 붉은색 의자들이 걸로 보이는 것 만큼 그다지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소란스럽게 우리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니 "몬트 브러프 형제님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까? hing클리 부대관장님께서 형제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시끄럽게 떠드는 가족의 주의를 끌고자 "hing클리 부대관장님 이라고요!"하고 말했습니다.

hing클리 부대관장이 전화를 바꿔 "브러프 형제님, 이곳에 와서 나를 좀 만나 보았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다소 굳은 어조로 두어 가지 질문에 잠시 대답한 후 "hing클리 부대관장님, 전화해 주셔서 놀랐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오. 다만 형제님께 새 빗자루를 주어 본부 건물 앞의 계단을 쓸게 하려는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hing클리 부대관장님 나는 부대관장님과 총관리 역원들께서 내가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이 걸어왔으며, 벤슨 대관장님께서 걸어 오셨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걸어 오신 계단을 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을 때, 흥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들어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심한 폭풍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유타 그리고 아이다호주에 국영 방송망의 야간 뉴스 방송으로 방영될 정도로 심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선교 본부의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지역에서 그들의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님들의 전화로 두 세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 후 선교 사무실에서 나와 선교 본부 쪽으로 가는 주차장을 걸어가며 혼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물론의 어머니들이지, 그분들은 아직도 앞치마를 꿇으려 하지 않는군. 그들은 아들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걸." 내가

선교 본부로 걸어 들어 가자 전화가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로 나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는 위대하고 심오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신권이 든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니다. 유타주 랜돌프의 감독님과 후에는 선교부장님들께서 제가 오늘 밤 이 곳에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대업에서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모두 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알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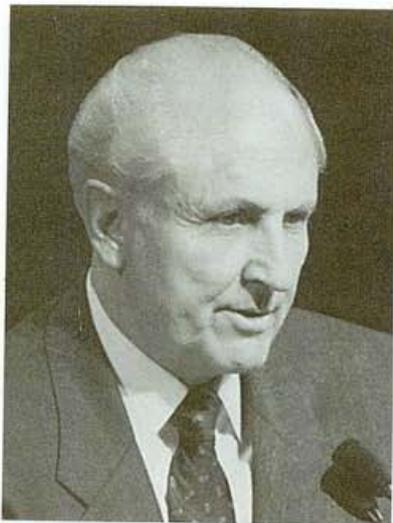


대회의 방문자

교회를 선택하라

앨버트 출즈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부친은 ‘네가 만일 나와 교회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 곳에서 몇 년 전에 앉아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가 연차 대회에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개종자로서는 충격적인 경험입니다”라고 그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렉터 장로님, 이것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으로서도 대단치 않은 경험은 아닙니다. 나는 것처럼 자라온 사실에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나는 아이다호에 있다가 피닉스에 전화를 해 핑클리 부대관장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에게 전화를 하고 목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나는 다른 가족과 함께 그 주의 일요일에 95세로 이곳 솔트레이크시에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모친은 22년 전에 앞서 가신 부친과 사년 전에 그 뒤를 따라간 내 아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목요일 오후부터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미친 그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린 소년시절 신권을 받게 되었을 때, 나의 부친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앨버트 만일 네가 나와 교회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를 선택하라.” 감사한 것은, 나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똑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주었습니다.

나는 목요일 오후에 핑클리 부대관장님께 약속을 했으며, 오늘 저녁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헌납할 것과 내가 요구받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든지 봉사할 것을 소망함을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교회 그리고 총관리 역원에게 다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아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자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신권의 승영 의식에 대하여 더욱 더 감사하고 이해하고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뉴욕시에서의 기쁨에 찬 삼 년간의 선교 사업 경험을 마친 후의 이 봉사는 나에게 신권과 그 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영원한 속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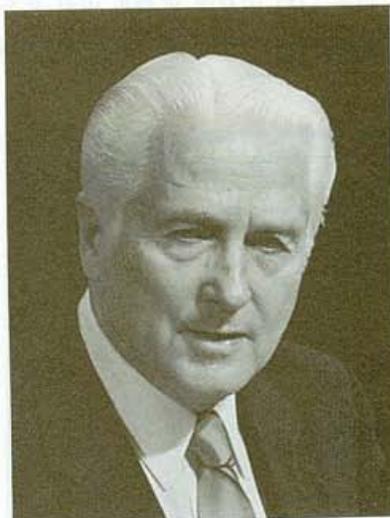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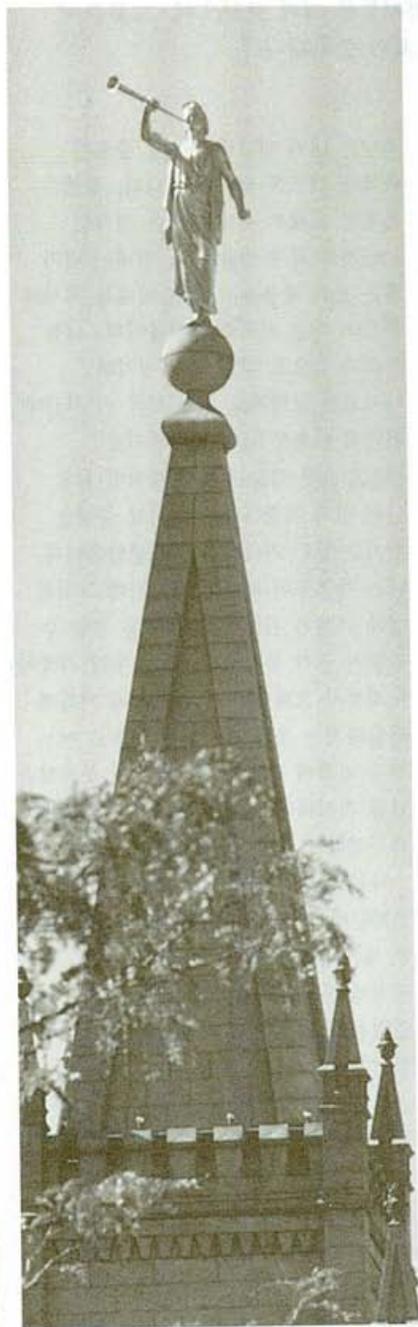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신부된지 15개월된 지금의

아내는 장막 저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첫 번째 아내 로즈마리와 함께 이편에서 도와주어 내가 성공할 것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성공할 것임을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음

로이드 피 조지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우리에게는 위대한 책임과 위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신권이 일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책임과 위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필경 우리는 선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려 가르쳐 주시는 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 계시록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찌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19~20)

신권을 가진 형제 여러분,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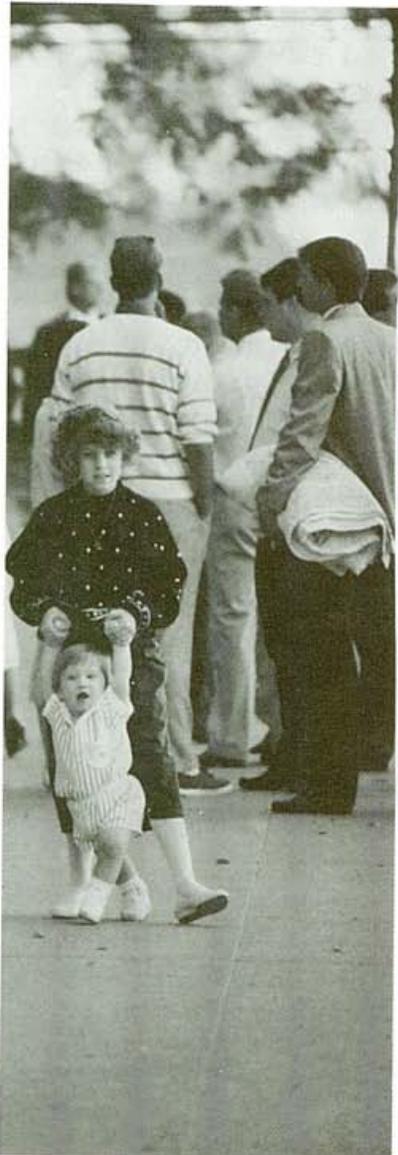
우리 선교사 두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심대의 남자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난 관심이 없오. 그러나 내 누님과 어머니에게 물어 보겠소. 그들은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오.” 그는 철심대였고 그의 누님은 팔십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99세였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을 가르쳤으며 침례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고 흥분해 한 나머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정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침례를 받은 후 간증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8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내가 스무살 때, 선교사들이 나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나에게 침례받도록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부인은 침례받았을 때 백번 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부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자와 모든 선택된 사도들로 부터 느낀 사랑과 존경에 겸허한 마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곳 연단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에 대한 위대한 형제애와 사랑의 영을 느낍니다. 나는 이 위대한 예언자와 그분과 함께 하신 분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주님께서 내가 받은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나를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성취하기를 소망하여
시편에 기록된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시편 14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제럴드 이 멜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예언자들을 지켜 보았으며, 그분들이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대관장단 사무실이나
대관장단의 보좌에게서 부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금요일 몬슨 회장과
회담한 이래 내 마음 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전
세계의 교회의 신권 소유자에게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특권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영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영예스럽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부름에서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할 수 있고 것처럼 훌륭한
축복에 대해 주님께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함께
특별한 사랑의 유대를 맺은 선택된
동반자가 제게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내가 아내를 지지해
왔듯이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에 정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아내의 마음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족들을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것처럼
많은 가치가 있는 다른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가깝게
생활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들도 어느
정도 변화해 나가겠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나를 지지해 주고 필요한 것은 조정해
나가리라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온타리오주 키체너에서
1920년대에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 왔던
두 명의 선교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는 말일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담이 되어
있었는데, 조부의 집을 지나쳐 가다가
그들의 송별식에서 연주되었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노래를 들으러 그
집에 다가갔을 때 할아버지가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입했으며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복음이 참되며 우리를 인도하는 예언자가

계심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많은 무리에게 침례 요한의 예언자의 부름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그런 후 그는 요한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 보다도 나은” 선지자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7~13)

한번은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냐?” (마가복음 11:30) 물론 요한의 사업은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예언자들을 지켜 보았으며, 그분들이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벤슨 대관장님을 전에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예언에 의해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계시의 영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신성한 부름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승리의 저편에 있는 목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스포츠맨십에 새롭게 불을 붙이고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합시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 교회 내의 농구 선수권 대회와 그후에 소프트볼 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로 또는 관람자로 참여했었습니다. 가장 받기를 원했던 상은 최우수팀이 받는 상이 아니라 스포츠맨십 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받을 때 관중들의 박수는 더 크고 길었으며 미소 또한 모든 사람이 크게 지었습니다. 승리의 저편에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경기장 내에서의 심한 언쟁, 심판 모욕 등 빈약한 스포츠맨십을 나타내는 일들에 관해 대관장단 사무실에서 발송한 서한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마땅히 개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스포츠 임원이란 제목으로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 대관장단에서 이 사실을 특징짓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스포츠 활동들은 신체적인 단련이나 승리

자체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유일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강화하고 성실성을 키우고 각 참여자 내부에 그를 지으신 이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참여의 목적이 승리에 있다면 이 목표는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건물 안에 있는 홀동실은 교회 회원들의 십일조로 지어졌습니다. 공평하려면 모든 합당한 정남 청녀가 놀고 배우고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래리 버드나 매직 존슨 또는 존 우든 또는 팻 릴리와 같은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수에게 선수복을 입힐 때, 그를 게임에 정정 당당히 참여시키십시오.

곧 농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에게 적절히 권고해 주십시오. 관중이나 코우치에게도 한 두 마디 주의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험은 경기에 지고서도 우리 스스로 그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끄러운 경험이었었습니다.

첫째, 결과가 의심스러운 농구 경기에서 코우치는 후반전이 시작된 직후 나를 경기장에 들여 보냈습니다. 나는 인바운드 볼을 잡아서 골대를 향해 드리블해 가서는 슛을 던졌습니다. 공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상대편 가드가 나의 공격을 저지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골대는 우리 편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시여, 공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소서.” 볼은 링에서 빙빙 돌다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람석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몬슨 퇴장시켜라, 몬슨 퇴장시켜라.” 코우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프트볼 경기에서 빠른 공을 잘 던졌습니다. 소프트볼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무더운 현충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내가 공을 던졌던 13회까지 가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7회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동점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3회 말에 두 명이 아웃된 상태에서 주자는 3루에 있었으며, 타자는 왼쪽 필드에 높은 공을 쳤습니다. 나는 그 공을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볼은 왼쪽 외야수의 손 사이로 빠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38년 동안이나 공을 놓친 그 친구를 놀려 왔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결코 그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게임이었습니다.

한번은 파이어니어 파크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공을 던질 때 상대편 팀이 한 팔 밖에 없는 타자를 타석에 내 세웠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투수는 그러한 타자에게 어떻게 공을 던져야 하는가? 나는 타석을 향해 느린 볼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타자는 2루수 머리 위로 공을 쳐냈습니다. 나는 흔들렸습니다. 다음 타자는 멕시코에서 돌아온 귀환 선교사로서 185센티미터에 백 킬로그램이 넘는 호머 프록터였습니다. 나는 높고 빠른 안쪽 볼을 던졌습니다. 그는 첫번째 공을 공원의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장외 홈런으로 쳤습니다. 나는 한쪽 팔의 타자 버넬 헤일즈가 2루와 3루를 돌아 홈으로 질주하면서 띠운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웃었습니다.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스포츠맨십에 새롭게

볼을 붙이고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합시다.

주님의 사업에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격의 성장이 보장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분야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사이야서에 있는 베나만왕의 말씀은 복지에 관한 완전한 경전상의 설명이며 우리 각자에게 엄숙한 책임을 안겨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26)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께서는 궁핍한 자를 돌보는 기금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렇지만 교회가 소망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금을 금식헌금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훌륭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 헌금을 배로 낸다면 자원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교회 복지의 기본적인 것들” 신권 역원에게 주신 말씀, 1974년 3월 6일, 10페이지)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말일성도는 금식일에 감독에게 가족이 그날 소비했을 음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쳐야 하며 가능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 후하게 주어야 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12월호, 148페이지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최소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하게



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는 두 끼를 금식한 대신 절약된 금액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10배라도 더 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연차 대회, 1974년 4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말일성도들이 보여 주는 후한 행동은 전설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2차 대전 후 유럽에 있는 궁핍한 성도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보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이 후한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을 줄이는 일에도 왔습니다. 관개 사업, 급수 시설, 개선된 농경업 등은 모두가 실현될 수 있는 꿈의 일부입니다. 또한 아이다호주에 있는 테톤 댐 재난 때에도 어려운 자들의 외침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먼 나라나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자, 궁핍함을 잘 알고 가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신성한 특권은 이 배고픔을 구제하고 궁핍함을 해결해 주며 가난을

줄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니라.”(교성 83 : 6)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교성 104 : 16)

내가 살고 봉사하던 지역에서 한 번은 양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대체로 그 사업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수만 개의 신선한 계란과 수백 킬로그램의 닭고기를 창고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도시 출신으로서 자발적인 농부가 되는 경험은 손에 물질이 잡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실망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십대의 아픈 신권 청소년들이 양계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모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양계장에 모인 열성적이고 활기에 찬 젊은 일꾼들은 단숨에 잡초를 뽑고 한테 모아 잡초와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옆에서

우리는 핫도그를 먹으며 훌륭하게 치운 것을 서로 자축했습니다. 양계장은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음과 불길로 인해서 놀라기 잘하고 신경이 예민한 5,000여 마리의 암탉들이 놀라 갑자기 날뛰며 알까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잡초가 더러는 자라게 내버려 둔 결과 더 많은 계란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동기로 통조림을 만들고 무우의 잎을 자르고 건초를 운반하고 옥수수에 물을 준 교회의 회원은 궁핍한 사람을 도와 준 그러한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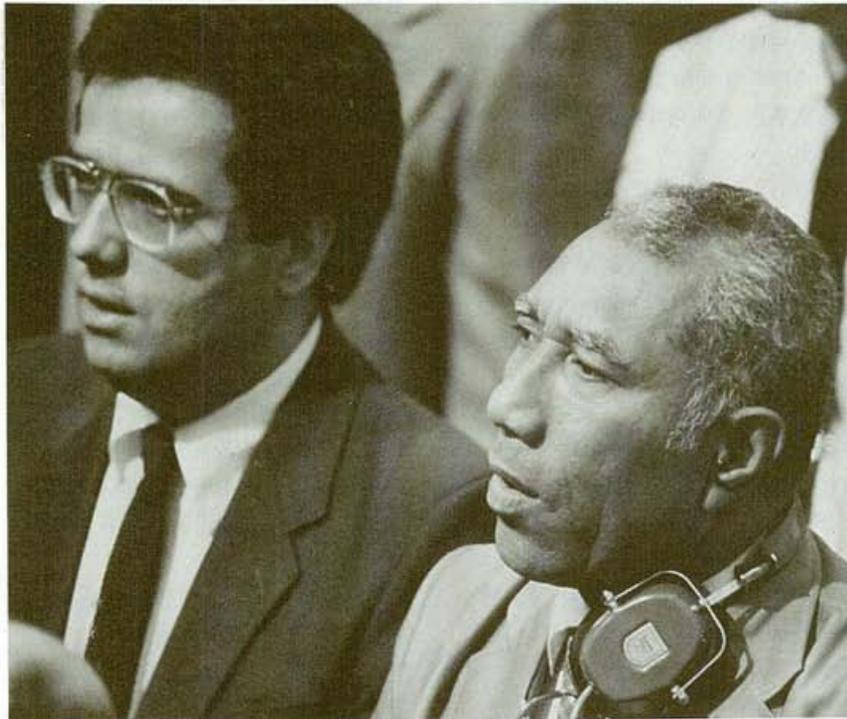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따르고 궁핍한 사람을 돌볼 때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해 주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거기 유하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제하게 하였느니라”(17 : 9) 엘리야는 그 과부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오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10~11절)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참으로 가련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더 이상 아들과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 참조)

그러한 그녀에게 엘리야의 대답은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날 먹었으나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13~16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영감을 준 신앙입니다.

근면, 검소, 자립은 이러한 노력의 지침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부채를 피해야 합니다. 30여년 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울면서 예언자를 찾아가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죽었으며 그녀에게는 갠 능력이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기 위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기적으로서 그녀에게 많은 기름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갠고 남는 것으로...생활하라”(연차 대회, 1957년 4월)

“빛을 갠고...생활하라(열왕기하 4:7) 이 얼마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현명한 권고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순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이 순종할 때 인간은 항상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창고 운영 방법이 모든 가족이 필요한 식량,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생활 필수품을 일년분 비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때로 우리는 소위 “부모에게 소홀히”하는 것들을 봅니다. 너무나 자주 정서적, 사교적 그리고 때로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까지도 자녀가 나이든 부모에게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고에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시간, 재능, 기술, 사랑, 성별된 물건, 재정적인 방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감독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독들은 이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기본 지침이 되는 것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감독은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가난한 자를 찾아내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 궁핍한 자를 돌볼 때 감독은 분별력, 올바른 판단, 평형 및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자원은 신성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3. 복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 능력껏 일을 해야 합니다.

4. 감독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5. 감독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봉사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감독은 생활 양식보다는 생활 자체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신성한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할 때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방 두 개 짜리 연립에 사는 노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은 조그만 탄 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다가갔을 때 82세 된 남편이 눈보라 속에서 허리를 굽혀 밖에 쌓여

있는 젖은 탄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더 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감은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와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목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난로에 떨 연료가 없었지만 집을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분탄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도움을 받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부에게 조그만 저탄장을 하나 만들어 주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물론이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에서 자재들을 구합니까? 우리가 자주 목재를 구입하는 지역의 목재상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의 영혼에 밝은 색깔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옹하기로 했습니다. 저탄 창고를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철물들을 기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저탄 창고는 단순했지만 회색의 페인트를 칠한 지붕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등 평의원이었던 이 목수는 이 작은 창고를 지으면서 참으로 큰 영감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나의 연로하신 이 친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창고의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는 넓은 문과, 반짝거리는 경첩을 가리켜 보였으며 문을 열고는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진 바삭 마른 탄을 보여 주었습니다. 감격한 음성으로 그는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사람이 이런 멋진 저탄 창고를 갖다니요.” 그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매일

예배당에 나와 의자에 먼지를 털고
카페트의 먼지를 청소하고 찬송가를
정리했습니다. 그분도 그가 받은 것에
대해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지 계획이 그의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교성 52:40)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금식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과 그 약속을 설명하는
이사야의 권고를 듣고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7-9, 11)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감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부름받고 성임받고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는 사랑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받게 합니다.”



우리는 방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회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 벤슨 대관장님께서는
오늘 서약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해
주시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신권의
형제로서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지금
말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나는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유서깊은 건물은
만원입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여러
교회 건물에 모여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단합으로부터
오는 큰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합당한 남편과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관리하고 아론 신권을 소유한
아들이 사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충성과 사랑, 꾸준함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의
진실함과 정당함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사업과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하도록
권능으로써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나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께서 대관장단 제1보좌로 이
자리에 서서 신권 소유자들의 단합을
호소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가 개인적인 개성을 버리고
틀로 찍어낸 로봇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그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신앙의 큰 기초석이 되는
것들에 대한 단합된 확신을 마음속에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석에는 요셉 스미스
역사에 있는 사건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번째 시현의 진실성과 당위성,
영감받은 예언자에 의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출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티끌에서 말하는



새로 부름받은 스코트 장로를 환영하는 벤슨 대관장(가운데)

음성으로서의 물문경의 진실성과 당위성, 고대에 신권을 지녔던 자들에 의해 회복된 신권의 실재성과 권세, 즉 아론 신권의 경우에 침례 요한, 멜기세덱 신권인 경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이 그 결과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단합된 확신, 이 왕국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세워졌으며 그를 계승하여 대관장의 직무를 수행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오늘날의 예언자에 의해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단합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요소에서 단합된다면 이 사업은 온 세상에 유익을 줄 힘을 계속해서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나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엄숙한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있지만 교회의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대관장님께서도 와드에 소속되어 있고 감독님이 있습니까?” “물론이지요.”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러면 감독님과 십일조 결산 접견도 하시나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듯이 나도 나의 소속 감독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의 탁월함과 그의 교회의 조직을 운영하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벤슨 대관장님께서 그의 감독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감독님께

친근감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비슷한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현재 만 천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모든 감독이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 부름받고 안수에 의해 성별되고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감독이 그 와드에서의 회장단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이 대제사로서 와드의 관리 대제사입니다. 모두가 막중한 청지기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무도 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와드의 감독도 그가 감독으로 일하는 대가를 교회로부터 보상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감독의 자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던 때의 자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디모데전서 3:2~6)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7, 9)

이 말씀들은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성장해 온 와드의 감독의 생활에서 그 모든 요소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 와드에는 천 백 명의 회원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 모두를 알고 사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요, 상담자요, 관리 역원이요, 의지처요, 교사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스럽게 “감독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규율로써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며 우리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해 주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나는 여러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경이 다르고 성품과 개성이 달랐지만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와드 회원과 그의 사업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감독님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성실함과 선함으로 인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관리하는 회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금 즉 백성들의 십일조, 금식을 하여서 바치는 헌금, 넉넉치 않은 가운데서 바치는 헌금을 절대로 정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돈을 관리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신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함은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덕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악마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전 와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안다면 그는 여러분 앞에 간계를 써서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 도덕적인 문제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영감받은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색 문학을 읽거나 도색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는 은밀한 장소에서 도색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할 도덕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경우 개인적인 합리화나 부끄럽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 불행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감독실에서 개인적인 사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 판사로서의 자격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사가 된다는 일은 두려운 책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에 대해, 침례받기 위한 합당성, 신권을 받기 위한 합당성, 조직에서 역원으로 봉사하고 가르치기 위한 합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금식 헌금과 주님의 창고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적법함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람 중에 요청하기를 꺼린다 하더라도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처가 없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모든 양떼에 대해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원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야 하며 위로해 주고 달과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은 회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등은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판단하는 데 민감해야 하며 여러분의 사랑은 넓고 강하여 잘못 행하는 자들과 비판하는 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기꺼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만이 그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든 자원이 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감독에게 보내진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독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거의 2년이나 됩니다. 그때 저는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었으며, 돈도, 직업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은 빼앗겼으며 살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열 일곱 살에 교회를 떠났으며 모든 규율과 계명을 어겼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행복과 성취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 대신 저의 생애는 비참함과 고뇌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나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극을 벗어 버리기 위해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까지도 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도 저를 거절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찾아 뵈고 교회로 돌아간 것은 그때였습니다.



대회 방문자

“감독님께서서는 제 말씀을 이해하시며 들어 주셨고 권고하고 인도하고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고 그 안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무척 힘들지만 어떤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저에게는 그렇게 할 가치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생활하고 회개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가득합니다. 고뇌와 절망의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속죄로 인해 저의 연약함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 잊혀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축복하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셨으며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장애를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나의 사업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가족에게 유익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께서서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이해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위치에 결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방황하는 그의 자녀에게 감독님으로서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와드라는 탑에서 파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드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들간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성장하고 있으며 성실과 의로움이 커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더 큰 사랑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고 또 나타내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비밀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임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보호되고 잘 지켜져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감독은 개인적으로 와드의 아른 신권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든 없든 그들의 지도자요, 교사요, 모범입니다. 여러분은 관리 대계사로서 와드에 속한 가족의 가장이 되며 불화를 가라앉히는 자로 부름받았으며 고소당하는 자의 옹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리가 가르쳐지는 모임을 감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임의 영적인 본질과 회원들을 위해 성찬이

집행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워진 주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한 성약과 의무를 상기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부와 고아에게, 연약하고 피로움을 겪는 자에게, 병든 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팔 소리는 분명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와드에서 죄와 무관심과 배도를 정복하여 승리로 이끄는 주님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때로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일을 하는 데는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주어야 할 부름은 많고 또 다양합니다. 그외에도 다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마땅히 바쳐야 할 시간과 정력을 도적질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대회 방문자

시간을 도적질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힘과 능력 저편에 있는 지혜를 축복받게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직장과 가족과 교회 회원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자신의 임무가 과중하여 불평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봉사에서 얻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그 대가 또한 크고 감미로우며 여러분이 해온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힘이 있음을 알며 선교사로 추천할 권리가 있고 회원들에게 성전 문을 열어 주어야 할 능력이 있으며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곤경에 처한 자를 도와 주어야 할 부름이 있으며, 가르치고 인도하고 영감을 줄 의무가 있으며 공평함과 진리로 판단하고 사랑과 이해로, 자비와 신앙으로 헤아려야 할 명령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세계적으로 이 교회에 있는 훌륭한 감독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만 천 명이나 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강하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세운 목표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길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취하는 휴식이 감미롭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자녀를 위해 하는 봉사를 통해 주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나의 소년 시절의 감독님을 돌이켜 봅니다. 그는 내가 나의 훌륭한 부친으로부터 이름과 축복을 받을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침례받기에 합당한가를 점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집전을 통해 내가 집사에 성임되기에 합당함을 아셨습니다. 그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최초의 교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내가 한때 속했던 제사 정원회를 감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스테이크 부장님에게 내가 멜시세텍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는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다고 교회 대관장에게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는 저의 귀환을 환영해 주셨으며,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 추천서에 서명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봉사하시는 가운데 늙어 돌아가셨으며 그의 장례식에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던 소년의 마음으로, 그가 인도하고 권고해 준 청소년의 마음으로 여러 방면에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준 성인의 경험으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감독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선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들을 돕는 보좌와 그의 지시에 따라 부름을 수행하는 모든 역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는 데 필요한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지닐 수 있으며 가난한 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판단하되 인간이 판단하듯 하지 말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할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함으로써 그에게 봉사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언젠가는 그 직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슬픔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원 중에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부름받고 성임받고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는 사랑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받게 합니다.



대회 방문자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병고침에 대한 의무는 상처입은 자를 감싸 주고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영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니그로스 옥시덴테 섬에 있는 발코르도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무척 번창했던 필리핀의 제당 산업의 중심지였던 발코르도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몹시 찌는듯한 날씨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짧은 소매의 흰 셔츠에 짙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구두는 잘 닳여져 있었읍니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인 마바도 곁에 있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빅터 잭스씨, 여기는 웬일이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중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 줍니다. 선교사이지요.” “어디에 사십니까?”

“패네이 섬에 있는 일로일로라는 곳의 작은 집에서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왔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때를 생각해 봤읍니다. 몇 년 전이었지요. 그들은 그때 뉴욕주의 스키스테일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었읍니다. 그는 화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잘 알려지고 유명한 화학자였읍니다. 그는 뉴욕에 본부를 둔 다국적 회사로서 상당히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읍니다. 화공품을 합성하여 만든 그 회사의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팔려 나갔으며 그 제품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 오게 한 대가로 그는 상당히 높이 인정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는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높이 존경받았읍니다.

그는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옥크타운 스테이크의 부장이었읍니다. 지역 와드에는 그분의 지시 아래 충실하게 봉사하는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뉴욕시티를 출퇴근하며 미국의 우수한 기업에서 요직에 앉아 일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그들의 교회 지도자였읍니다.

이제 그는 정년 퇴직을 했읍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을 팔고 가구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부했읍니다. 그들은 옷가지와 가족 사진 그리고 가족 역사 기록을 제외하고 차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처분했읍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보내더라도 자비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를 했읍니다. 그들은 이제 필리핀의 발코르도 선교부에서 매우 친절한 그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업율은 매우 높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읍니다. 그러나 잭스 부부가 가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람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을 격려하고 힘과 소망과 신앙을 주었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해와 분쟁의 상처를 고쳤읍니다. 그들은 병자를 축복하고 병든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서 봉사했읍니다. 그들의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으며 그들의 웃음은 기쁨을 주었읍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수준에 따라 생활했지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강한 팔을 갖고 우뚝 서 있었읍니다.

이 뉴욕의 전직 고위 간부와 그의 아름다운 동반자는 그들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사랑을 바쳐 가며 실의에 빠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치료해 주는 축복으로 구세주께 봉사하고 있었읍니다. 이 은퇴한 뉴욕 출신의 형제는 대단히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에 살던 집의 거실만한 곳에서 필요한 살림 도구 몇 가지만 갖고서 생활했읍니다.

그들 부부는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읍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헌신적인 연로한 선교사 부부로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핍함을 충족시켜 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재정적 보상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읍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필리핀으로 올 때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읍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지명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또 다른 선교부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높으신 치료자이신 주님의 대업 안에서 봉사하는 치료자들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병을 고치고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질병과 슬픔, 긴장과 질투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이 있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병고침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라기 4:2)

말라기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생과 사를 다스리는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였으며, 앓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다니시며 착한 일을”(사도행전 10:38) 행하시는 기적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곳에 한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요한복음 4:46, 47, 50, 51)

이것은 다른 병고침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주님께서 행하신 두번째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교회 및 지역소식 참조)

주리니”(마태복음 16:19)

그와 똑같은 능력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것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를 통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능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사에 관심이 깊은 사람 가운데 1839년 7월 22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윌포드 우드럽이 언급한 기록을 잘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의 나부는 비위생적인 습지였습니다. 병자들이 많았으며 요셉도 그 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가득 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자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고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강건너, 아이오와주 몬트로스에 있는 주민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드럽 장로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방문한 첫 집은 병이 들어 누워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브리감 영의 집이었다. 요셉은 그의 병을 고쳤으며 그 후로는 브리감 영도 이들과 함께 다른 병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몬트로스에서 병에 걸려 누워있던 윌포드 우드럽, 울슨 프랫, 존 테일러를 방문했다. 이들 역시 병을 고치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들이 다음으로 방문한 집은 엘리야 포드햄의 집이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다가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에게 말을 했으나 포드햄 형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의 눈은 머리에 박혀 있는 유리알 같았고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요셉은 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그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드햄 형제의 안색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요셉이 자신이



교회 본부 청녀 회장단

누구인지 아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는 조그맣게 '예'하고 대답했다. 요셉은 그에게 병고침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연약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은 채 우뚝 서서 잠시 동안 그를 응시하더니 매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포드햄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하게 될지어다.' 그의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마치 집의 기초가 흔들리는 듯했다. 포드햄 형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하게 되었다. 그의 발에는 짐질약이 붙여져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떼어내고 옷을 입고는 빵과 우유를 먹고 예언자를 따라 거리로 나왔다. (조셉 펠딩 스미스, 교회 역사,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223~24페이지)

야고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야고보서 5:14~15)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장로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게 한 현대 의학의 경이로움을 칭찬하고 감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고통을 덜어 주며 죽음의 순간을 멈추게 한, 과학과 의학업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는 말로 다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많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식의 한계와 기술의 부족함을 제일 먼저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이들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때로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는 성스러운 능력을 그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충실한 장로라면 병자를 대신하여 이 위대한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던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 이외의 다른 많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한 잡지에서는 전세계에 걸쳐 방영되고 있는 신성 모독에 관한 영화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편지가 편집자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 편지 중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알콜중독자였고 간음을 범했던 사람입니다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타임지, 1988년 9월 5일, 7페이지)

죄의 고통으로부터 들리워져 더 높고 고귀한 삶을 이룩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가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분쟁과 말다툼과 논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을 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갇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마태복음 5:38~41)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그 치유력에 있어서 놀랄 만한 이 원리를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만연하는 질병입니다.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총관리 직원들의 영접을 받는 대관장

병고치는 능력은 논쟁과 비난과 결점 찾기와 험담을 잠잠케 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 병고침의 영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데도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병고치는 능력을 지닌 자로서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성 81 : 5)

야고보의 권고에 따르는 자들의 병고치는 능력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 : 27)

우리는 소송과 분쟁이 만연하고 기소와 보복이 가득 찬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병고치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이었던 스티븐 엘 리처드 장로와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관장단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나에게 미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고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부대관장님, 부대관장님께서 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호사요. 나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 싶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많은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닳을 붉히는 일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광파레나 거창한 머리기사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인 구세주의 병고치는 능력은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파국을 가져 왔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잘 수습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키게 할 때 이러한 교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일, 즉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데에 그들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초기에도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렇고 그 사업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의도로 고발하고 거짓을 행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자연적인 성향은 대항하는 것이며 거짓의 진위를 조사하고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구세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 : 43~44)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고든 비 영홀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뎀스 대관장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위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넬 케이 에쉬튼



앨 폴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님 에이 맥스웰



라셀 영 밀슨



탬민 에이저 옥스



영 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저 스크트



님 앨 라슨



메리온 더 펄스



윌리엄 그랜트 핑거터



로버트 켈 박맨



휴 디블류 피녹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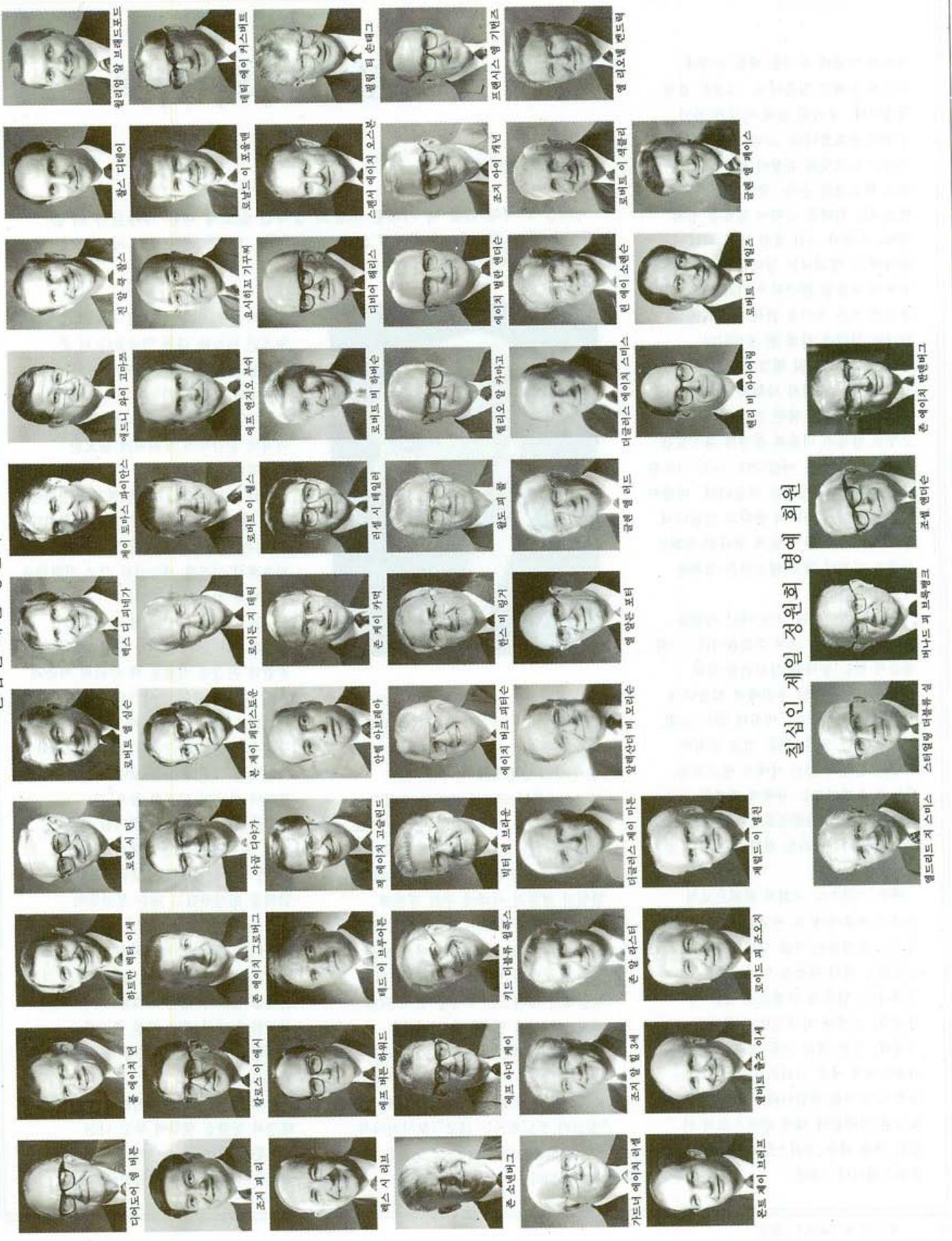


제임스 영 페리모어



제이 리차드 블라크

칠십인 제일 정원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데릭 에이 커스버트

윌리엄 티 손테그

프랜시스 엠 기번즈

앨 러모벨 캔드릭

찰스 디네이

로날드 이 포울렌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조지 아이 캐닌

로버트 이 석클리

클렌 앨 페이스

진 알 록 왈스

요시히코 기구찌

디미터 헤리스

에이치 발판 렌더슨

린 에이 소렌슨

로버트 디 케일즈

에드워드 와이 코마즈

에프 알지오 부쉬

로버트 비 하버슨

윌리엄 알 카마고

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헨리 비 아이어링

존 에이치 반덴버그

제이 토마스 파이먼스

로버트 이 웰스

러셀 시 테일러

윌리엄 피 팔

클렌 앨 라드

조셉 앤더슨

렉스 더 피네가

로이론 지 테팅

존 케이 카릭

한스 비 랑거

앨 일든 포터

버나드 피 브룩뱅크

로버트 윌 심슨

본 제이 캐더스톤

안젤 아크레아

에이치 버크 피터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스티어링 더블류 실

로렌 시 린

아람 디아가

제 에이치 고슬랜드

비틀 엘 브라운

더글러스 제이 마튼

제럴드 이 멜린

윌리엄 지 스미스

하트만 액터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테드 이 브루어

키드 더블류 윌콕스

존 알 라스터

모이트 피 조오지

블레이크 던

칼포스 이 액시

에프 버논 하워드

에프 아더 케이

조지 알 윌 3세

앨버트 홀츠 이세

데이디어 엠 버튼

조지 피 리

렉스 시 리브

존 쇼넨버그

기드너 에이치 러셀

문트 제이 브리프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할 때 우리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병고침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의 참된 종이 되려 한다면 그 병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이 온 땅에 퍼지고 우리의 사회와 가정에 스며들어 악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탐욕과 미움과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들이 사자와 함께 늑게 된다면 평화는 분쟁을 이겨야 하고 병고침은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는 그가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성신권을 통해 사용되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신성한 가르침, 비할데 없는 모범, 견줄데 없는 생애, 모든 것을 초월한 희생은 심령이 상한 자에게 병고침을, 다루고 소리지르는 자에게 화해를, 겸손과 용서와 사랑으로써 구한다면 전쟁중인 나라에라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병고침에 대한 의무는 상처입은 자를 감싸 주고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쟁으로 병든 이 세상에, 논쟁과 이기심으로 침체된 가정에, 또한 죄와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능력의 효능과 기이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높은 곳으로부터의 축복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룩한 도움과 영적인 인도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약속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자유로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우 리들은 모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하고 시급한 방법으로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고를 받지만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옴으로 영적인 인도, 즉 옳은 길을 걷고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 줄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신 경전의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때에 겸손해지고 그에게 와서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1:28) 우리가 그러한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믿으며 물문경에서 베냐민 왕이 말한 바와 같이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모사이아서 3:19) 따른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룩한 도움과 영적인 인도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약속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자유로이 주어지는 은사, 즉 태어나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그러한 영적인 경험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는 어린 나이였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혼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말일성도가 알고 있듯이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지역은 요셉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종교 문제에 관하여 광장한 동요”가 있었었습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그것은 실로 온 지방을 떠들석하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 종교 단체를 형성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흥분하여 “동요와 분열”을 조성해 냈다고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5 참조)

이제 막 열네 살이 된 소년으로서 그가 진리를 찾고자 했던 노력은 스미스가의 식구들이 당시 각기 다른 종교를 신봉했으므로 더욱 혼란에 빠지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는 여러분이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생각과 느낌을 고려해 보시기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 혼란기에 있어서 나의 마음은 진지한 반성과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의 감정은 이에 대하여 깊고 예리한 관심을 가졌었으나 나는 이 모든 종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때가 지남에 따라 감리교파에 마음을 두고 어느 정도 이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혼란과 서로 다른 종파간의 분쟁이 너무나도 컸으므로 나같은 세상일에 미숙한 소년에게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소란이 대단하여 끊임이 없었으므로 나의 마음은 때때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종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그른 것인가,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하고 자문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이들 종교가들이 일으킨 커다란 혼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내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8~12)

아시는 바와 같이 그후에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결정한 어린 요셉은 짐 근처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드린 진지한 기도의 응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방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히 간증드리는 그 위대한 시현은 어린 요셉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보다는 우리의 경륜의 시대가 갖고 있는 더 많은 문제에 대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복의 처음 순간이 경전에서 가장 신성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어린 소년이 영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였던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열 네 살된 또는 어느 연령에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물려오는 수많은 압력, 특히 영생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민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몇이나 부모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인 갈등을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나이가 열 네 살이든 십 살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깊은 것”(고린도전서 2:10)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경전을 탐구하려 하였습니까?

이 소년이 진실한 마음으로 경전을 탐구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즉 경전과 기도는 모든 인간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분명 그는 분분한 견해로 혼란을 겪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나 나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 스미스는 매우 특별한 영이며,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적어도 열 네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열도록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혼란들을 가려 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나이와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둔해짐을 느낍니다. 시련이 극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혼란과 근심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연령의 고화와 경험의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아들과 딸들이며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약속은 아직도 진리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내가 말씀드릴 두번째 예는 요셉 스미스와 같이 어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시인 존 밀튼이 말년에 맹인이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가에 대해 엘리자벳 로이드 호웰이 쓴 글을 기울여 보십시오.

저는 늙고 눈도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지만
저는 쫓겨난 몸이 아닙니다.

저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앞을 보지 못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늙고 도움이 없으나
전능하신 아버지, 저는 당신 곁에
있나이다.

당신의 영광스런 얼굴이
저를 굽어 보시며 그 거룩한 광채가
외로운 저의 거처를 비취오니
저에게는 밤이 없사옵나이다.



겸손히 꿇은 저의 무릎
당신께서 저의 시력을 어떻게 하신
뜻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밀튼의 인내를 위한 기도" 세계의
위대한 종교 시, 캐롤라인 마일즈 힐
편집, 뉴욕 : 맥밀란 출판사, 1954년,
19페이지)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음은 오직
당신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외부 세계가 혼란하고
불안하고 냉혹할때 젊은이나 노인 모두가
내부와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경전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길을
밝히는 빛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시야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해 생겨난 혼란 가운데서
어린 요셉이 분명하게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께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맹인 시인 밀튼에
관해 호웰 여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근원에 의존한다면 연령과
경험, 자신의 부족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꾸준히 그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구한다면
어리거나 늙었거나 또는 중년이거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영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향력에 우리
자신을 유지시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젊은이와 노인이 기울인

노력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군대와 접전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시리아의 왕은 엘리사의 예언적 간섭을
피하고 싶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열왕기하 6 : 14~15)

전세는 시리아의 군대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과 소년이 대항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온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사의 수종드는 소년은 두려움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이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눈에는 노인 엘리사와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사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기하 6 :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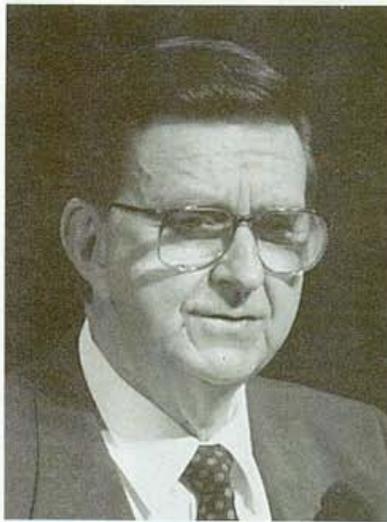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 할 것임이니”(교성
78 : 18) “내가 나의 영을 내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교성
11 : 13)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에서의 문제에 당면하고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고 영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율법

메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언젠가 복음에 대한 탐탁치 못한 소견으로 인해 우리의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길에 놓여 있는 특별한 축복과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와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슬픈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나는 차를 수리하기 위해
1974년형 차를 정비 공장에 가져 갔던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그 노인이나 기술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으므로, 정비소
주인은 그 노인이 과연 그 낡은 차에
그처럼 많은 돈을 정말로 들이기를 원할
것인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차 소유자가 말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것이
아닌데...”

“누구의 것이죠?”하고 정비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딸의 것이죠. 딸 아이는 나의 차가
안전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거든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뿐입니다.”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뚜렷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랑스런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족
이외에는 더 가까운 이웃이 없습니다. 이
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존심과 자립을 위해
희생하는 딸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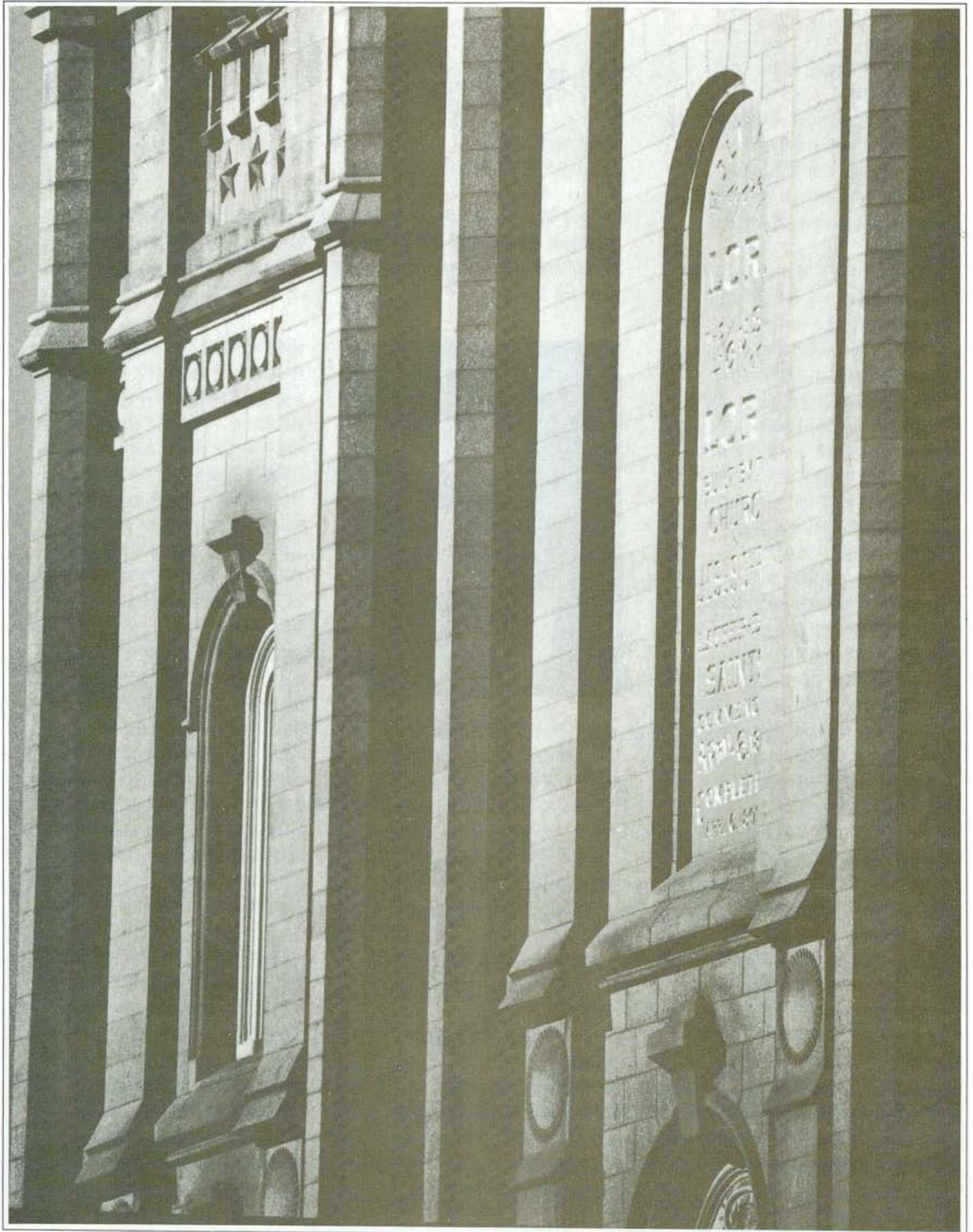
같은 주말에, 나는 감독과 동행하여
심하게 병이 난 환자를 찾아 병원에 갔던
어떤 스테이크 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환자의 손을 잡자, 그는 고통과
혼미함 속에서도 그의 친구인 바쁜
지도자들이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오늘 아침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는 계획에
들어 있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한 깊은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생활 태도에서 이 원리를
기꺼이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두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6~40)

사도 야고보는 이 두번째 계명을
“최고한 율법”(야고보서 2 : 8)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갈라디아서 5:14)

그리스도의 성역과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적용해야 함에 추호라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읍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누가복음 10:29)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중 강도를 만나 강탈당하고 매를 맞아 거반 죽게 되어 길에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읍니다.(누가복음 10:31~32)

이러한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왔읍니다. 사마리아인은 십이사도까지는 그 고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마태복음 10:5~6 참조) 그는 그곳에 멈추어 서서 곤경에 처한 이 사람을 즉시 돌보아 주고 또 계속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네 의견에도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6~37)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원리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그 생애와 가르침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는 사람이 그러한 것이 없이는 가장 위대한 영원한 축복—즉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5:31~46) 경전은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봉사 행위는 기독교인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그러한 진리를 확인합니다.

종교는 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리와 의식 또는 선교사업이나 지도력에 내포되어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 의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모든 계명에 대해 갖는 관계에 의해, 영의 인도를 받는 자신의 양심이 승인하는 정도에 의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큰 사랑과 비이기적인 선함으로 이 계명대로 생활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경이롭게 보입니다. 언젠가 “복음”에 대한 탐탁치 못한 소견으로 인해 우리의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길에 놓여 있는 특별한 축복과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와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옛 랍비의 금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즐길 수 있었던 모든 훌륭한 것을 거절할 일애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역경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그것의 일부를

겪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종교는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 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계획은 그들의 사랑을 실현할 육신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도록 초대받는 큰 영광을 받읍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와 같이 봉사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장애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 위해 어느 사회 단체의 초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여인은 그녀 자신이 심한 장애자로서 그녀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양쪽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부축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호흡을 돕기 위한 산소 탱크가 실린 한 대의 작은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합당치 못함을 주장했지만 장애자들을 도와준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상을 받았읍니다. 그녀는 훌륭한 부친이 자신이 처음 학교에 가던 날 그녀를 위해 꼼꼼히 준비를 해 주었으며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회사에서 집으로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굶사등과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딸의 외모에 대해 가해지는 부정적인 말들에 대비하도록 딸을 준비시켰읍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 불완전하고 때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일들의 결과일 뿐이라고 그는 딸에게 확신을 시켰읍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몇 사람이라도 너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다면, 너는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자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안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한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봉사의 기쁨은 때로 은밀한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조용한 방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 군대의 막사와 피난민 수용소에서, 기타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 장소들입니다. 대개 그것은 알려지지 않지만 “창세로부터...예비된 나라를 상속”(마태복음 25:34)받을 자들을 위해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표준을 나타내 줍니다. 이들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없는 자,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에게 봉사하는 자들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고 말씀하신 분이 보여준 모범과 정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지만(마태복음 25:46 참조),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게을리 하는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5)

영감을 주는 물몬경의 가르침은 “최대 최후의 회생”,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회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와 공의와 자비 및 기도에 관해 가르칩니다. 기도와 기도의 영에 대한 힘있는 설교를 마친 뒤 엠엘레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까지 말한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해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같이 되리라.”(엘마서 34:28)

교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을 때, 선교사를 부르고,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지도자를 임명하는 계기가 주어져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교성 52:40; 모세서 7:33 참조)

주님께서는 옛날의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봉사할 의무가 있는 여러 종류의 궁핍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에스겔 34:4)

엘마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제로 그 집과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오게 된 불쌍한(자들)을 받아 들여 먹이고 입히며 거할 땅을 내어 주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돌보아 주”었습니다.(엘마서 35:9)

그 정신은 아직도 교회 회원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난민 수용소에서 교회를 대표한 젊은이들은 그 훌륭한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살도록 준비시키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일하는 특별한 정신을 관찰한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수천 톤의 벽돌처럼 확고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을 마치 구세주를 대하듯 경건함으로 대했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축복-봉사의 축복을 경험한 뒤 선교사들은 정상적인 그들의

임무로 되돌아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엄숙한 간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까지 내가 해 온 일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봉사의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제단 위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는 이미 자신의 고통을 겪어낸 고귀하고 헌신적인 젊은 여성이 거의 온종일을, 것처럼 소중한 여리고 오랫동안 애써온 대학원 공부도 중단한 채, 걱정에 싸인 가정에서 자리에 누워있는 자매를 돌보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은 여류 방학에 집에 왔다가 당시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마약성 물질을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대어본 것이 이제는 중독이 되어 동부에 있는 저명한 대학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집에 머물면서 이것은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한 율법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뜻깊은 것이며, 그것은 복음의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나 복음의 정신과는 떼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참으로 우리가 영예롭게 속하게 된 이 교회는 가끔 온 세상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알고 또 도와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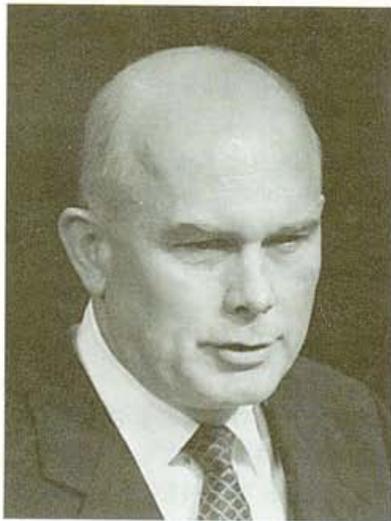
오늘 아침 내가 말씀드린 목적은 그 계명을 존중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원하는 대로”(모시아야서 18:29) 서로에게 나누어 주라는 권고를 몸소 받아들이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예를 기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도전하거나 그의 속죄와 부활의 실재를 의심하고 있는 오늘날 두번째 증거, 즉 몰몬경의 메시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 약 2천 년 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예리한 질문입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칼과 같이 그것은 숨겨진 것을 밝혀 내며 진리와 오류를 갈라내고 종교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다가 갑니다.

여기에 오늘날 주어지는 몇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찬양하지만 그가 메시아, 구세주 또는 구속주임을 부인합니다. 어떤 저명한 신학자들은 세속화된 우리의 세상은 초자연적인 것을 벗겨낸 “새로운 신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신이 현대인의 고통과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배척합니다. (존 에이 하돈, 20세기의 기독교, 가든 시티: 뉴욕, 더블데이사, 1971년, 356, 359페이지)

어떤 기독교파의 한 감독은 “예수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외쳤습니다. (“신의 죽음’에 대한 어느 성직자의 견해”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66년 4월 18일, 57페이지)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 아래, 많은 종교는 “어떤 신도 우리를 구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주의의 신조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종교 백과사전: 종교적 신조, 제이 고든 멜튼 편집; 게일 리서치사, 1973년, 641페이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그가 사명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깨끗케 해 주지 못했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지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 또다른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을 위한 성령회, 원리 개요, 4, 1980년 79~83, 238~39, 247~48, 252, 298~99페이지)

몇 년 전에 한 말일성도 학생이 중서부에 있는 대학에 등록한 후 기독교인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나 대학 당국자 모두가 물론이 신청에 적합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신학자와 상의한 끝에 이 물론은 기독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여년 전 그 이야기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의 회원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혼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때로 우리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랫동안 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강의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수법은 학문 주변에 놓여 있는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교실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일반적인 단순한 법칙이야말로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들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로 우리 중에 복음을 가르치는 데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 진리를 가르치고 간증하는 일을 게을리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교사며 구세주입니다. 그의 속죄는 아담의 죄값을 치렀으며 죽음을 이기었고 모든 사람의 부활과 불사불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주체이시며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의 속죄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죄로부터 깨끗케 되어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메시아의 속죄의 희생은 모든 시대에 예언자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동물의 희생으로 상징되었으며 율법의 의미를 한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최대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시리라.”(엘마서 34 : 14) 속죄는 구약의 예언자가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끌려 갔도다.

“그가 산 자의 땅에서 꿇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이사야 53 : 5~8, 12)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초기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한복음 1 : 29)

성역을 마칠 때 예수께서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 : 28) 말일성도로서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하며 물을 마십니다.(교성 20 : 79 참조)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 구세주께서 겪으신 고통과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속죄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복음의 첫번째 원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 : 3) 골로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 : 14; 히브리서 2 : 17, 10 : 10 참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 : 24)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요한일서 1 : 7, 2 : 2, 3 : 5, 4 : 10 참조)

우리는 성경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영감을 주는 찬송가, “위대하신 주님”에서 다음 가사를 노래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지시고

내 죄를 없애서 피 흘려 돌아가심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영문 찬송가, 86장)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에 관해 성경은 그 설명이 분명함에도 성경만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물론경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더욱 분명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교성 20 : 8~9, 27 : 5 참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도전하거나 그의 속죄와 부활의 실재를 의심하고 있는 오늘날 두번째 증거, 즉 물론경의 메시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물론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상기시키셨습니다.(연차대회, 1986년 10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언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물론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시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물문경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벤슨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문경은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며 주님에 대한 이 경전의 간증은 분명하고 순수하며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연차대회, 1986년 10월)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위 “자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완전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켈달 화이트 이세, 물문 새로운 정설: 위기의 신학, 솔트레이크 시티: 시그네이처 출판사, 1987년, 43~44페이지 참조)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세속적인 또 다른 단체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자신의 정신력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대-새로운 시대적 관심에 대한 예전의 두려움”, 인사이트, 1988년 7월 11일, 55페이지 참조)

말일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단 교리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12) 이 표현은 우리의 의로움이 구원과 승영을 얻게 해 준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성한 운명을 타고 났다 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거쳐 영생을 얻도록 해준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말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니파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가까이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서 25:23)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는 그의 유명한 시 “정복되지 않은 것”에서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을 그렸습니다.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로 얼룩졌으나 굴복하지 않으며”, 단호한 인간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문이 얼마나 좁든,
생명책에 얼마나 많은 죄가 기록되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반 세기 후에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다음과 같은 글귀로 이 시에 대해 썼습니다.

그대는 진실한가? 그렇다면 피로써
그대를 산 그는 누구인가?
누가 사나운 바다에 몸을 던져
홍수로부터 그대를 건졌는가?

누가 타락한 인류를 위해
그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겪었는가?
인간이 다시 살아나 끝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닌가?

너의 교만한 힘이 그의 능력을 떠나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의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
그대가 옮겨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인간은 파도의 거품과 같고
나무의 잎과 같으니
그대, 자신의 영혼의 선장이여, 그것이
사실인가
누가 그 자리를 그대에게 주었는가?

자유의지는 그대의 것
스스로 옳고 그름을 행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그에게 보고해야만 하느니라.

인생의 위대한 덩어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뚫힐 줄 모르는” 머리를 땅에 숙여라.
그리하면 그분 안에서, 그분만이 홀로
그대 영혼의 선장임을 알라.





(임프르브먼트 이라, 1926년 5월호,
611페이지)

인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치지 않는 노력과 정복되지 않는 의지로 위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선한 일을 한 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경은 “구원의 율법으로 인하여만 입하는 것이 아니니”(모사이야서 13:28) 즉 구원이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비추어서 의로운 육신이 없”습니다. (니파이이서 2:5)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무익한 중에 불과합니다. (모사이야서 2:21 참조)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엘마서 22:14 34:11 참조) “무한한 대속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엔 부족하리라.”(엘마서 23:12; 니파이이서 9:7; 엘마서 34:8~16 참조) “그러므로 구속은 성스러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나니 주는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율법의 뜻을 이루셨나니”(니파이이서 2:6~7)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니파이이서 25:26)

물론경에서 구세주께서는 속죄와 그것이 회개, 침례, 의로운 일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갖는 관계를 포함한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음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라.”(니파이삼서 27 : 14~16)

구세주께서는 그 가르침에서 그의
 피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영원토록
 의존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방법으로 이
 원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니파이삼서 27 : 19)

요셉 스미스는 신앙개조 제3조에서
 똑같은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어찌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짐질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의
 피흘리심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타락하고 죄많은 자신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적은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경우처럼 나에게도 “불가해하며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와
 속죄,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뉴스사,
 1882년, 148~49페이지 참조) 그러나
 성신은 나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주셨으므로 나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생애를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천하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음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4 : 10, 12;
 니파이삼서 25 : 20; 엘마서 38 : 9; 교성
 18 : 23 참조)

나는 예언자 리하이와 더불어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니파이삼서 2 : 8)

나는 예언자 엘마와 더불어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함을” 간증드립니다. (엘마서
 5 : 21) 엘마가 설명했듯이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엘마서 42 : 16) 그러므로
 “주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엘마서 42 : 15)

나는 물론경의 여러 예언자와 더불어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육체를 입고”(엘마서 7 : 13)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과
 비통함과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삼서 9 : 21; 엘마서
 7 : 12~13; 모사이야서 14 : 4; 교성
 18 : 11 참조)

구세주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으며 또 모든 인간이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삼서 9 : 23; 엘마서
 11 : 40; 요한복음 3 : 5, 8 : 24 참조)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세상의 구속주”라
 “나는 나를 낳으신 이의 뜻 곧 내게



관한 아버지의 뜻까지도 완수하였나니
 이를 수행하였음을 내가 만물을 내게
 복종케 하며

“모든 권능을 지녀...세상 사람이 행한
 업적과 행위에 따라 만민을 제각기
 심판하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겪으리라.
 이는 나 하나님이 무한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회개하라...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교성 19 : 1~4, 13, 16~17)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물론경의
 예언자요 왕이었던 베냐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보라...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3 : 17~18)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의 계명과
 성약을 지키려고 할 때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크게 외쳤듯이 우리도 “궁핍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모사이야서 4 : 2)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 : 6~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표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기도하는 습관, 배움의 장소, 사랑의 전통, 간증의 보고입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그러한 보편적인 목표에 대한 이 설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관련이 있었고, 지금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도를 갖고도 왜 그토록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빈번하게 얼굴을 찌푸리는 자가 웃는 자보다 많고 절망이 기쁨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성한 가능성의 매우 낮은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혼동되어 있으며, 죄에 휩쓸려 많은 사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대의 빌립이 한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사도행전 8:31)

행복은 사치품이 많은 것이나 세상의 견해인 “즐거운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낯선 장소에서 그것을 찾아서도 안됩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생각은 집이 크거나 작았다든지, 이웃이 잘 살거나 못살았다든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경험들을 즐거워 합니다. 가정은 삶의 연구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곳을 떠날 때 우리가 행하게 될 행동을 크게 좌우합니다.

영국의 수상인 마가렛 대처 여사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철학을 말했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건설하는 건축용 블럭입니다. 그것은 유아원이요, 학교며 병원이요 휴식처이며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의 여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런던 타임지, 1988년 5월 26일)

“가정은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 집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에드가 에이 게스트, “가정” 가족 애송시집에서, 데이비드 엘 조지 편집, 가든 시티, 뉴욕, 더블데이라, 1952년, 151~52페이지)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나의 집 뿐이리”(찬송가, 177장) 우리는 그러한 유쾌한 추억에서 생각을 돌립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이 성장하고 어린 시절이 가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설한 가정에 책임을 집니다. 영원이란 짧은 여정이 아니므로 우리는 현명하게 가정을 건설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잔잔한 날도 있고 바람부는 날도 있으며 햇빛이 비취는 날도 있고 그림자가 지는 날도 있으며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행하는 행위 살아가는 삶은 지상의 여정에 있어서의 성공에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사는 대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편부모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가 하면 다른 가정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수나 특징이 어떤 것이든 간에 행복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1. 기도하는 습관
2. 배움의 장소
3. 사랑의 전통
4. 간증의 보고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찬송가, 186장) 기도의 적용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한 가정의 첫번째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도를 들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최근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느낌, 소망 그리고 감사를 표현함에 거리낌도 없습니다.

가족 기도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며 따라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유익한 매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문다”는

옛 문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부부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 그들은 하나의 이상을 세워야 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가능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소망을 취하여 매일의 생활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하십시오”(성전 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신부”, 레이디스 홈 저널, 1912년)

10월 7일이 되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지 40년이 됩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 동편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을 주례한 벤자민 보우링은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신혼 부부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게 될지도 모르는 불화를 하루 이상 넘기지 않게 하는 확실한 공식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몬슨 형제, 하루는 형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다음날 저녁에는 몬슨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날 생겼을지도 모를 어떤 오해도 기도하는 동안 다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드리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 전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받았을 때 맥케이 대관장은 나의 가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공식과 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가족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적용한 똑같은 공식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나의 가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에 이르는 여권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번째 표시는 가정의 배움의 장소가 될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장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양서일 것입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며,
책은 기쁨의 땅에 이르는 관문이며,
책은 위로 이끌어 주는 통로이며,
책은 친구이니 와서 읽어 봅시다.
(에밀 포울슨)

독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량 문화 시대에서 우리는 요약되고 변경된, 원서만큼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하는 많은 책들을 쉽게 흥미거리로 읽으면서 정신을 고양시키려 합니다.

저명한 저자인 제임즈 에이 미케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어떤 책을 읽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의 이상은 그때에 형성되고 목표는 분명하게 결정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서 88:118)

표준 경전은 내가 말씀드리는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자녀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는 손자들을 데리고 교회의 인쇄 시설을 구경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물문경의 선교용 보급판이 인쇄, 제본, 정장되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자 아저씨가 물문경 한 권 가지라고 하시니 너의 것으로 한 권을 잡도록 해라.”

책 한 권을 집어 가슴에 껴안고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사랑해요. 이걸 나의 책이에요.”

나는 그날 있었던 다른 일들은 별로 기억할 수 없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어린이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표현을 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자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 도서관의 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이나 딸들이 “나는 아빠를 따르겠어요.” 또는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게 하는 태도로 생활합니까? 도서실 선반에 얹혀 내용이 표지 속에 묻혀 있는 책과는 달리 우리의 생활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용이 공개되는 책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세번째 표시는 사랑의 전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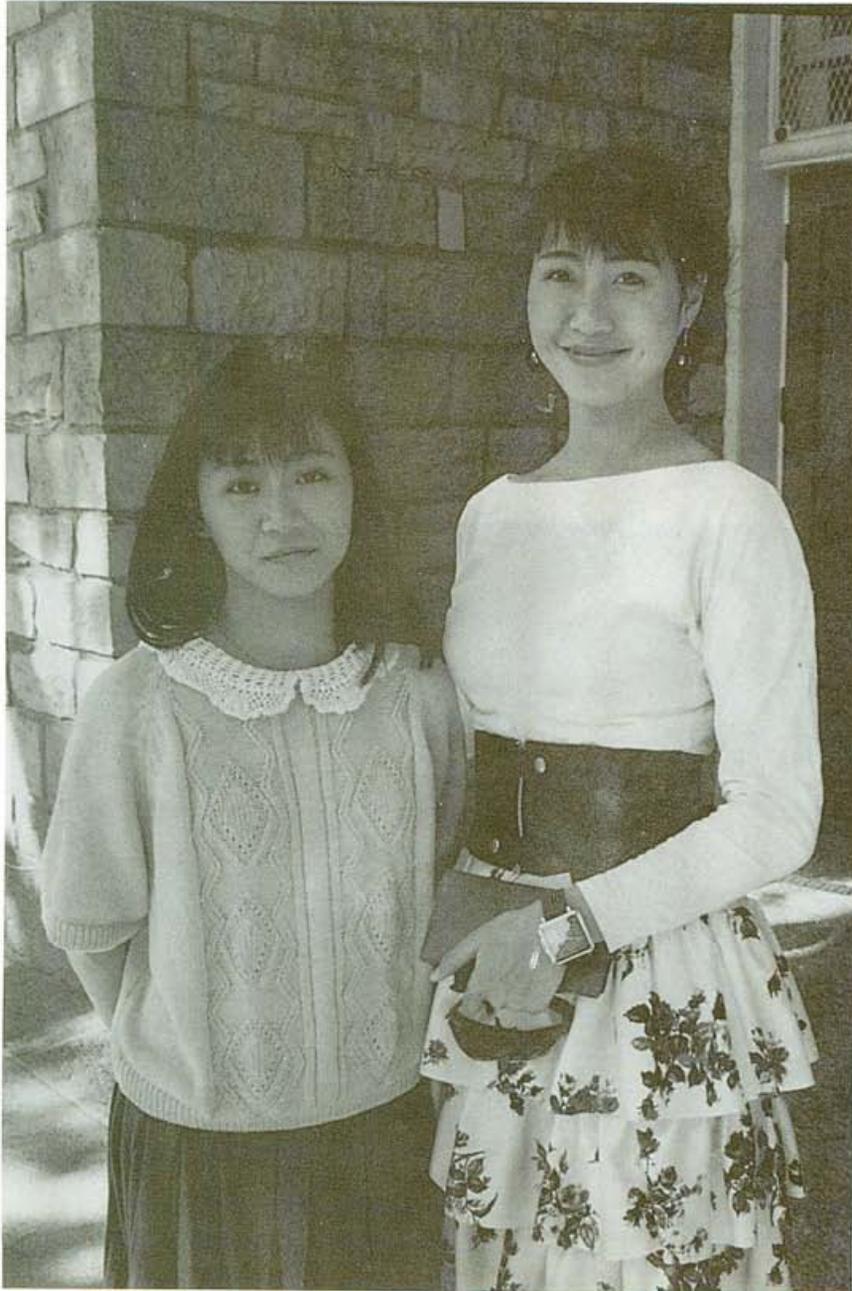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부에노 거리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셨으며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끌어당겨 주시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막내 삼촌 내외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 모퉁이에 있는 소화전은 그 오래전 기어오르던 높이에 비하면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다운 현관은 옛 모습 그대로였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벽에는 숙모가 수놓아 만든 벽걸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자를 사랑하라”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 레이는 그녀를 간호하고 있으며 그는 충실하고 영원한 사랑의 표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법대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교훈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범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들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 사랑의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나의 부친은 인쇄업자로서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힘들여 일했습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분명히 집에서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로한 가족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분은 아버지의 삼촌이신 데 심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어 걷지도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아버지는 저에게 ‘토미야, 이리 온. 큰 할아버지께 차 좀 태워 드리자.’ 1928년 형의 낡은 올스모빌 차를 타고 우리는 큰 할아버지가 사시는 에잇스 웨스트로 가서 나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절름발이가 된 큰 할아버지를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는 문을 열어 드리곤 했는데,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애정에 찬 마음으로 그를 앞자리에 태워 잘 보이도록 했는지를 지켜 보았습니다.

차를 태워 드린 거리도 짧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큰 할아버지를 데리고 낡은 1928년 형 올스모빌로 거리를 달려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전통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물론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야곱의 꾸중을 듣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러러 너희를 고발하니”(야곱서 2:35)

많은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부부간의 불화, 때로 잔혹한 행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 턱은 사라지고 사랑의 불빛은 더 이상 비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다. 나의 친한 친구 두 사람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들이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내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는 나의 친구 프레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약해졌지만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충실함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찬사입니까.

게르트루드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한 아내는 그의 남편 마크를 방 안에서 편안하게 해 줍니다. 방은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 줍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남편과 대화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오랜 간호를 하는 동안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의 어느 때보다도 남편을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우리는 벤슨 대관장님의 가정 이외의 가정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와 나는 3주 전에 있었던 벤슨 대관장님의 62주년 결혼 기념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손자, 증손자들이 대관장님과 그의 동반자가 손을 잡고 “가정에 사랑의 불꽃이 탈 때”, “사랑의 옛 찬미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인도할 때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회원들은 경건

공부, 성전 참여 및 함께 인생을 즐기는 벤슨 대관장님 가정의 모범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가정의 표시로서 사랑의 전통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네번째 표시는 간증의 보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한 가장 첫번째이며 우선적인 기회는 가정에서 주어집니다.”하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물론 가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잠시 들리실 기회를 갖게 될 때 기꺼이 그곳에 거하고, 쉬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복음의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169페이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만 강한 간증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확신에만 오래도록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아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여 간증을 얻지 않는다면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사랑,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순수한 존경 등은 간증을 자라게 하는 옥도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간증을 전하고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은 노상의 충돌, 바다에 이는 큰 파도, 우리 시대의 소요 등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회원과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축복하고 성결케 하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를 목격하였습니다. 호레이스 디 엔사인 선교부장과 나는 시드니에서

다원까지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다원에서 나는 그 도시에 처음 세워지는 예배당 기공식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우리는 마운트 이사라는 광산촌에 잠시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마운트 이사에 있는 조그만 공항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그녀의 두 아이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딴 루덴이라고 하는 교회 회원이고 애들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이번 비행기로 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잠시 이곳에 계시는 동안 만나 뵈고자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교회 회원이 아니며 자신과 두 아이만이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탑승할 준비를 하자 루덴 자매는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돼요. 저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그때 커다란 음성으로 기계 정비 관제로 30분 간 연발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루덴 자매가 속삭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방금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남편이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매주 집에서 갖는 가정 초등학교에 남편도 참석시키고 그에게 복음의 산 간증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칠드런스 프렌드와 가족 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결코 남편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운트 이사를 떠났으며 나는 그곳에 다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와 눈물로 가득 찬 감사와 이별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던 자녀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베인에서 가진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과 복음대로 생활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모인 형제들에게 루덴 자매와 그녀의 신앙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지으며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루덴 자매의 남편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더 훌륭한 모범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슨 형제님, 저는 리차드 루덴이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은 저의 아내입니다. 그 아이들은(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내의 끈기와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결국 해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모든 사람들의 흐느낌으로 깨어졌으며, 그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임의 광경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도록 결심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족 각자가 환영받고 “가정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합시다.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합시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20)

“행복한 가정의 표시”, 곧
 기도하는 습관
 배움의 장소
 사랑의 전통
 간증의 보고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그는 얼마나 그 느낌을 좋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책임을 게을리하고 어떤 기구가 이 책임을 떠맡아 수행하여 그로 인해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스 코트 장로님, 장로님께서 이 위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장로님을 환영한 다른 사람들의 인사에 저의 환영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가장 독특한 정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부름을 받아 이루어진 정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장로님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과, 단합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우리 정원회에 함께 하며, 장로님의 재능과 능력을 우리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게 됨을 기뻐합니다. 환영하고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나는 오늘 대회의 메시지로 잠언에 있는 다음 말씀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주님께서는 오늘날 부모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라.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느니라.(교성 68:25, 28~29, 31~32)

그 말씀은 직설적이며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래 전 나는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의 일을 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제2보좌의 책임은 당시의 유년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울고 소리지르고 애원하곤 했습니다.



대회 방문자

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가서 문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밖에서 문의 손잡이를 잡고 교사가 그 아이를 교실 안에서 달래고 진정시킬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아이를 가르칠 인내심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교사님께 맡기니 주일학교 시간에 경건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 전 페더스톤 장로님과 내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과 여러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을 강화하는 데 신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의논하기 위해 약속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훌륭한 학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유년 주일학교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 문까지 데리고 와서 문 안으로 떠밀어 넣고는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학교 당국이 자녀 교육을 완수하는 책임을 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또한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들과 접견할 기회를 가질 때 몇몇 선교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선교사로 내 보내기만 하면 내가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겠지”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학생과, 선교사로 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훌륭한 가정에서 훈련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태초부터 부모에게 경교의 음성으로 주어진 경교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책임을 게을리하고 어떤 기구가 이 책임을 떠맡아 수행하여 그로 인해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가운데 많은 것이 가정에서 실패했다는 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고 이혼과 우울증과 자살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 가정 생활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기초를 둔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연차 대회, 1982년 10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정에 훌륭한 강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김블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전체로서의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얼마나 충실하게 역점을 두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의 책임과 가족 및 가정의 역할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 와드나 스테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회원들이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이 프로그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프로그램이 복음 중심의 가족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결코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연차대회, 1978년 4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라 십대의 청소년이 된 후에 기본적인 가족의 전통이나 습관을 만들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영을 받아들일 때 복음 교육을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녀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과 물론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예언자의 이야기와 가족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소개해야 할 일관성있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자녀의 생활에 복음을 생활화하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하며 그들이 올바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폭력과 죄로 찌여진 프로그램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디오 시장에서는 가족의 오락과 학습에 유익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가족 기도, 주례로 하는 가정의 밤, 정기적인 일요일 모임 참석을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에게 일하는 방법과 노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활동의 날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생애에 복음의 기초를 닦아 주는 일은 오로지 부모의 어깨에 짐지워져 있습니다. 물론 도와 줄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의깊게 그리고 계획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자신을 삶을 건설할 확고한 기초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 두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두번째 분야는 그들이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관심사를 토론하면서 내가 흥미를 가졌던 것은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을 배운 농촌 출신의 학생들은 학교의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적인 물질로 버릇을 나쁘게 만든 학생들이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비싸고 멋진 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의 표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을 믿습니다. 어린 딸이 인형을 갖고 싶어하면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형에게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재봉사에게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녀로 하여금 인형의 옷을 만들기 위해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몇 년 후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옷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들에게는 연장을 주어 자신의 썰매와 조그만 마차 등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들이 성장하면 연장을 다루는 법에 익숙하여 수레, 집 또는 어떤 물건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210페이지)

세번째로 자녀들은 정직한 노동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잘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보고 만족함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건너 이웃 어린이들이 받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이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들이 모든 체육관이나 교양 개발 과정에 등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자리 정돈, 옷 간수, 치약을 절약하기 위해 튜브를 짜는 법, 전등 끄기, 상 보기, 잔디 깎기 또는 정원 관리 방법 등을 모르는 것을 알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청결하게 하고 정돈하고 절약하는 이 단순한 행동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며 장차 자립해 나가게 될 때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이 주님의 것이라는 기본 지식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돌보고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선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몸을 가꾸는 주름 장식과 멋진 옷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가꿀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품위있게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육체의 청결과 순결,



그리고 구원의 원리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즐겨 이 모임에 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0~211페이지)

김볼 대관장님께서서는 여러 해 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우리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품위없는 유행에 따르지 말고 우리의 표준대로,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 받는 방법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의도하는 생활방식, 즉 구세주의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삶을 반영해 줄 것입니다. 정숙하지 못한 유행에 따라 옷입도록 가르침을 받은 어린이가 교회 대학이나 선교사 훈련원, 또는 성전 결혼이나 안식일 참여를 위해 옷을 입을 때 하루 밤 사이에 전혀 다른 옷을 입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숙하고 단정한 스타일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소녀는 대가족의 막내딸인데 다른 자녀는 모두 아들들입니다. 아들만 있는 대가족에서 유일한 딸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은 바지를 입고 딸은 드레스를 입도록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단정한 드레스 이외에는 입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옷을 입을 때 변화를 가져 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애에서 어느 때라도 교회의 복장 표준에 맞추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의 초기부터 배워 온 것입니다. 그녀가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다시 성인이 될 때 합당한 복장 표준을 받아들이기란 그녀에게 쉬운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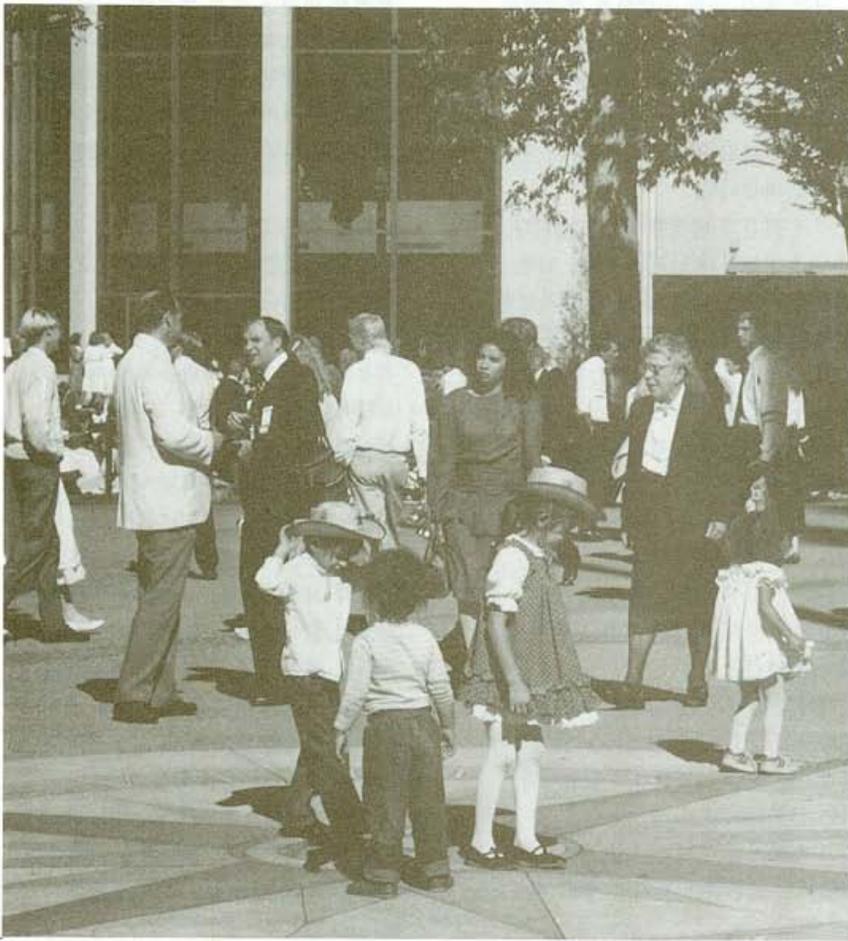
것입니다.

내가 여성들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서 내게 편지를 보내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표를 아끼십시오. 바지 차림이 안식일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읍니다.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는 정숙하고 건전한 스타일의 복장을 요구하는 복장 표준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이 우리가 없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어린 아이의 생활에서 가르쳐지며 실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방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선교 사업, 교회 대학, 신학 연구원 등은 이 훌륭한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의 생활에 복음의 표준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나 선교사들이 변화를 입기 위해 오기보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봉사할 준비를 갖추어서 온다면 이 기구들이 공헌하는 바는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권고입니다.

“우리 종교의 정신이 우리 생활 가운데 깃들도록 생활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화평과 기쁨, 행복 및 만족함을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유쾌한 아버지, 유쾌한 어머니, 쾌활한 자녀들, 유쾌한 이웃, 사회, 도시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있는 삶이며 나는 말일성도들이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4페이지)

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을 우리 자녀들 생활에 심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분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에 명철을 가져다 주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참된 친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지 않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불안하고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꿇고 첫번째 몇 발자국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을 영원히 완전하게 변화시킬만한 신뢰를 받게 되면 느낌이 예민해지고 감정 역시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름과 이 부름이 뜻하는 모든 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 온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의 영혼의 느낌을 보여 드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셔서 내 능력껏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는 순종하기로 한 결심이 주님과 성약을 맺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님의 도움으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한 능력과 용기를 갖고자 생활하며 다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결심을 해 봅니다.

이제 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을 약하게 하는 습관이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빛나감으로 근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몇 친구 분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현재와 그리고 일생 동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성전이 헌납되는 동안, 나는 인생의 과정을 다시 잠깐 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멕시코나 중미의 많은 남녀 지도자들이 참석한 여덟번째 헌납식에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부탁받은 나는 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느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새 시대의 장을 여는 기반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고통받으며 아낌없이 바쳐 예언을 성취시킨 장막 저편에 계신 분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나는 몰몬경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준비하고 보호해 준 과거의 예언자들이 간청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우리가 몰몬경을 팔 밑에 끼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고 또는 집에서 몰몬경에 먼저만 쌓인 채

책장을 열어 읽고 생각하거나 그 내용을 생활에 적용시키지도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함을 느꼈습니다.

그 책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성스러운 부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극복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육 년 동안 내가 기울인 모든 노력은, 그들에게 몰몬경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되었을 것임을 마음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을 어떻게 바로 잡고 어떻게 인생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스럽게 주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은 주님에 의해 예언되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서 주님은 인생의 중대한 잘못은 바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몰몬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에스라 테프트 벤슨 장로님께서 성전의 조용한 방으로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겨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주님이 뜻하신 대로 몰몬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의 심오한

확신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느낌을 갖도록 영감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심을 저의 마음에 전해주는 증거를 가졌읍니다.

이 두 친구, 곧 벤슨 대관장과 물론경이 미친 영향은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내게 위안이 되고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벤슨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하고 의로운 아들인 예언자이시며,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합당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신 분으로, 지상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대변자가 될 자격을 갖춘 덕과 고상한 성품을 갖추셨읍니다.

그는 구십 세로 집어들어 세계 각지를 다니시며 우리 각자를 직접 만나 보고자 하는 소망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영감받은 메시지를 읽거나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돕는 방법을 알고 있는 참된 친구의 따스함과 곁에서 함께 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내어 주신 소중한 친구인 물론경을 드립니다. 이 책 안에는 페이지마다 위안과 인도와 평화와 다른 참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여러분은 니파이, 야굽, 이노스, 베나민, 엘마, 암몬, 힐라멘, 물론, 모로나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우정과 모범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신앙과 순종의 길을 가리켜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범법의 쓰라림과 고뇌를 극복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예외없이 이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한 친구이신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벤슨 대관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물론경과 성경 그리고 다른 경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그의 힘과 그의 위엄과 그의 완전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사랑과 연민 그의 자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어떠한 짐이라도 그는 들어줄 수 있으며,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는 정케 하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고 누구의 삶이라도 그는 깨끗이 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와 순종 그리고 신앙을 통해 스스로 주님을 찾아 보십시오.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요한복음 3:16~17)

물론경에는 구세주의 위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나에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운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것임이요,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3~8)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겸손과 신앙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힘과 위안을 기도하셨고, 그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의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드렸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지 않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불안하고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꿇고 첫번째 몇 발자국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며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세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변화하고자 함으로 인해 용서를 가져다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압니다. 그의 아들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평화스런 어린이

미셸린 패커 그레슬리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만일 여러분이 가정의 밤 또는 가족 기도를 해 오지 않았다면 처음 시작하기가 어색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해 보십시오. 가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히클리 부대관장님, 스코트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일곱 살 된 제미는 어머니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 가족은 약 일년 전부터 그 집의 주부인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일곱 자녀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어머니를 낮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가능한 것을 했지만 고통스러운 정도로 힘든 삼 개월이 끝나갈 때,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헌신적이었던 제미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워하는 흔적도 없이 이 어린 일곱 살 된 소녀는 몇 분동안 사랑스런 태도로 평온하게 기도드리며,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미는 어린 아이였으나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런 평화를 얻었습니까? 그녀는 부모님에게서 영적인 이해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 준비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자녀들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이 어린이들은 세상에 온 가장 용감한 영에 속해 있음으로 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네 자녀를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니파이삼서 22:13)

주님안에서의 평화는 그들이 자기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구속적인 환경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그들은 연약한 썩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인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봉우리가 아름다운 식물 또는 꽃으로 자라나기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어린이들도 영원한 운명을 개인적으로 성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경우나, 내부에 있는 것이 완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식물은 번성하기 위해 빛과 물, 공기 그리고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랑과 그 기원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본성의 가르침으로 번성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부수되는 평화를 위해 좋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평화는 세상적인 압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조용한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이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준비시키기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가족; 연령층이 다양한 자녀를 둔 가족; 부모중 한 분만 있는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이웃;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사들—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며 복음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리라”(교성 19:23) 우리가 평화스러울 때 우리의 자녀들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현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집안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복음 원리가 기정 사실이 되고, 일상 생활 방식이 되어,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예절과 존경심을 갖추어 자녀를 대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으므로, 그 자녀들은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느끼며 그들의 목표는 영원임을 알고 있어, 그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독이 묘사한 것과 같은 가족은 연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란 없는 법입니다. 어느 가족이나 약점을 갖고 있고, 때로는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그리고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이 가족의 각자를 강화시키며, 지침을 줄 수 있고,

가족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의 밤 또는 가족 기도를 해 오지 않았다면 처음 시작하기가 어색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해 보십시오. 가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이제 나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은 사탄의 사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의 일을 좌절시키려 들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가족이 저녁 기도를 위해 함께 모이는 시간은 그날의 경험을 나누고, 경전을 읽으며, 간증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가족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신앙개조 하나를 암송하거나 경전 구절을 암기하거나 물몬경을 낭송합니다. 어떤 가족은 자녀나 부모중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매일 각 가족이 그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연령층이든 자녀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찰—특별히 그들의 부모로부터—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몰두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고 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생활하셨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주님의 무릎에 앉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 시절에 구세주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 대해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유월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 기쁨에 들뜬 군중들 속에서 어린이가 되어 보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경전에는 “무리의 대부분”(마태복음 21:8)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가 오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려 애쓰며 점점 흥분이 고조되어 예루살렘의 좁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자 여러분은 대단한 함성이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귀가 걸어갈 밑바닥에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옷과 나무 가지를 펴고, 종려 잎을 공중에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9) 여러분도 그곳에 있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하여 그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하며,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개발하며, 그분과 같이 함께 있기를 바라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녀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복지와 영적인 성장을 가장 큰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헌신적인 여러분, 어린이를 관리하는 신권회 및 초등학교 지도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은 주님에 대해 배웁니다. 호주에서 어느 현명한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올 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스런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 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번 해에 물론경을 읽고 토론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스콘신주의 아홉 살 된 매트는 그의 와드에서 가진 어린이 성찬식 발표 시간에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그가 배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텐버에서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리하이의 가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나도 내가 알았던 집과 모든 친구와 학교와 와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삼개월 동안 보관해 두기는 해야 했지만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며 우리는 집과 소중한 것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니파이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실 것임을 알려 기꺼이 받아들였는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물건이 없는 살 수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는 불평하는 니파이의 형제들이 아니라 좀 더 니파이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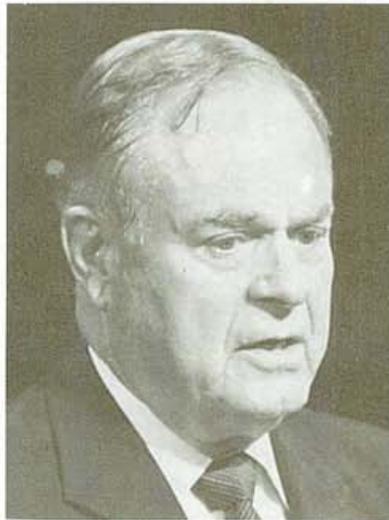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인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게 해서 안됩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축복을 가져 참으로 평화스런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영생의 자질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교회에서도 영생의 교리는 언제나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많은 회원들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영생의 자질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대회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생각했던 많은 것을 이미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말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은 느낌이 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은 그것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어온 약도 있었습니다. 젊음의 생에 대한 전설이 인간을 지구 끝까지라도 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주름살 크림으로부터 비타민이나 운동 프로그램까지, 콜레스테롤이나 기후 조절 또는 휴양지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의복과 음식 준비 및 영양 보충 등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약속합니다.

의학계는 우리 사회의 수없이 많은 범,

규정 그리고 관습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와같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인간 생명의 질적인 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는 어쨌든,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헨리 8세, 조지 워싱턴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세대와 더불어 죽었으며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수 없이 피어난 이 인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존재에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옴의 위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물론 그는 다시 살 것입니다! 대답은 영생의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자들까지도 역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다시 살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그의 무신론자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둘러 모여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그래,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하며 어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 하셨어요! 누님 아주
 멋있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군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나는 그가 그로 인해
 행복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멸의 인생의 성격에 대해
 보편적인 관심이 팽배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원은 길고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부주의하고 세속적이며 유물론적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잘해야 무관심합니다.

누가 압니까? 글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그분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획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언자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영생의 교리는 언제나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많은 회원들이 그에 대해 더
 많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하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니파이서
 2:8)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대회 방문자

천사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날 밤 “그 분은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판에 기록된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이서 34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미대륙의 거주민들에게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알기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며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년 전 우리가 남미로부터 배로 돌아오는 도중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 명의 목사가 승선했으며, 곧 그들은 나에게 와 물문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명은 감리교도였으며 한 명은 장로교파,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문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질문을 하고 나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잘 어울렸습니다. 약 십분이 지난 후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미있지 않아요?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문가 이틀 후 감리교도 형제는 나와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당신이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가 계시에 대한 나의 지식에 감정이 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심과 물질적인 소유에 휩쓸려 단순히 관심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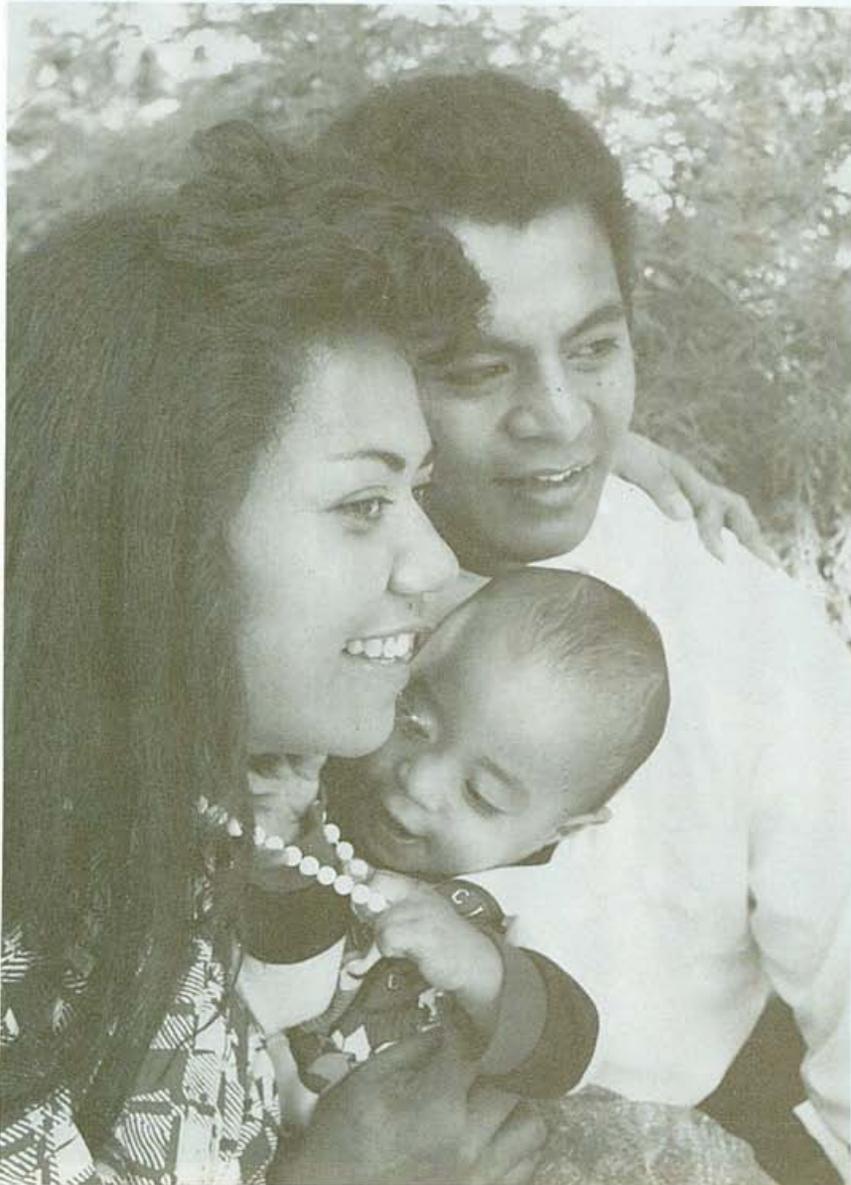
엘레이 크리스찬슨 장로는 복음에 개종하여 유타로 이주한 덴마야크의 한 부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그에게 그의 많은 재물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곳에서 정착한 후에 그는 다시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간증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그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권고하려 하자,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스, 돈 생각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라스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하고 응수하자, 그는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요”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라스는 “그럼, 좋소. 난 가지 않겠요.”하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찬슨 장로는 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갈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38~41)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이서 31:20)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모로나이서 4, 5; 교성 20:77~79 참조)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하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섬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5, 27)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날을 묘사한 곳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35~36절 참조)

분명히 이 봉사의 부름을 다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저희는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5:45~46)

이 봉사에 따르는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신권과 그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교성 107:3)이라 불리웠으며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교성 84:21~22)

또한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교성 84: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과거 8년 동안 교회의 성전의 수는 6개가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을 비롯해 17개에서 41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은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그들의 구원으로 여긴 것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면전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 열심인 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는 성스러운 의식을 받습니다.

구원의 교리는 우리에게 단지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거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복음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레이먼과 레뮤엘은 생명의 나무로부터 그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은 자 까지도 그들의 회개를 전제로 하여 그의 모든 자녀를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성전으로 가면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우리는 지상에서 복음을 아는 특권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대리로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침례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기회가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다시 가는 특권은 우리가 그곳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영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조상을 위해 이 봉사를 행합니다. 모로나이도 요셉 스미스에게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요셉 스미스 이서 38절) 살아 있는 자녀인 우리의 마음은 돌아가신 조상인 우리의 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에게 의식이 제공될 것이며, 그 의식이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그들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사불멸 또는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값없는 은사를 통해 가능해진 유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행복과 영광의 영생은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억할 수 있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왔습니다. 나는 유아기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때가 내 생애에서 하루라도 있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영생을 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것을 확신하고 증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복음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봉사하라는 부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부의 수는 6천 쌍이나 됩니다. 이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많은 부부들이 이 일에 합세하면 예기치 못하는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194장)을 부를 때 나는 가난과 끊임없는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닌 용감한 성도들이 건립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현남의 순간을 기다리는 성도로 가득 찬 성전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음”(마티아스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그의 생애와 노력의 역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4년, 68페이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영감에 찬 기도를 들으리라는 소망으로 모여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들 마음에 가득 찼을 기쁨의 순간을 펠프스 형제는 자신이 느꼈던

하늘의 영을 잃지 않기 위해 봉투 뒷면마다 급히 묘사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방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의 시현과 축복 회복되오니
천사들도 세상 다시 찾아주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퍼지오니
땅에 덮힌 장막 거두워지네
천국 무리 함께 찬송 부르오니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양
(찬송가, 194장)

영은 오늘 오후 우리를 축복해 주었듯이 당시의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계시되고 회복되었던 초기의 역사와 개척자들의 유산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불과 150년의 세월이 오늘날의 근심과 개인적인 과제로부터 커틀랜드의 회생과 고난을 구분짓습니다.

“나는 모든 물몬은 자신을 그들의 개척자 조상과 가끔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만큼 용감한가? 자립심이 강한가?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가? 기꺼이 희생하려 하는가? 라우렌 테처 올리히는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나 방편도 마련해 놓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둔 채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해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이 순진한 가족들을 데리고 적대감에 쌓인 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라고 하는 부름에 응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여성이라면 성전을 빛내기 위해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깨뜨릴 수 있으며 오만으로 마차 속에 누워 있는 나와 모든 것을 남겨 두고 들판을 건너 선교사로 떠나는 남편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겠는가?”(앤사인, 1978년 6월호, 54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비교적 쉽고 편리한 생활이 개척자 시기에 살아남은 자들의 용기와 강인을 부족하게 하고 그들은 결코 우리 개척자 조상들이 당면하여 승리를 거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과거의 그들에게 있어서처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그들의 것처럼 위협하고 우리의 회생은 또 그만큼 큰 것입니다...”

“최초의 개척자들의 중요한 자질은 낙천주의, 즉 낮설고 불안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능력이었습니. 광야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

“개척자는 반드시 스스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여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땅에서 썩을 캐내야 하는 남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척자들은 그들의 짐을 지고 미래를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비전과 용기를 갖고 그들은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 갑니다.”(같은책, 55페이지)

주님께서는 그러한 개척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한 연후에 온 세상에 나아가 나의 복음을 아직 받아 보지 못한 산 자 모두에게 전파하라”(교성 112: 28)

영감에 찬 예언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 예배당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1974년 또 다른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혀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살아 계신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은 세상에 복음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활동이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70년 6월호, 95페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일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구원의 교리와 성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개인적으로 도와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는 한 가지 사업의 다른 분야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돕는 일로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그들의 거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사인, 1981년 5월호, 5페이지)

이러한 예언적 표어의 정신으로 우리가 알던 예전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회원의 개종, 우정 증진 및 잃어버렸거나 교회에 반감을 품은 또는 무시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활동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간 제한을 받았던 여러 국가에서 교회의 관심사에 팔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험과 감수성과 과거의 세계에 대한 풍습의 이해,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성숙한 부부들이 꽃을 피울 좋은 토양에 회복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천우의 기회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자질을 갖춘 부부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과 벤슨 대관장님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부와 독신이 되어 있을 몇몇 여성들의 목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 선교부장들로부터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부에서 있었던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 할머니, 즉 텍사스 출신의 알타 클라트와 플로리다 출신의 하젤 스틸스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탐구해 온, 그러나 침례를 받는 데 확고하고 사랑에 찬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정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붙여진 꺼질 줄 모르는 영적인 불꽃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알몬트 유타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아무 문제 없이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의 인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목장주는 그 두 자매가 “건초를 거둬 들일 겨를도 두지 않고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그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이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선교사나 우정 증진자가 없는 거의 토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할머니는 하루에 비포장된 시골길을 160킬로미터나 여행합니다. 먼지나 험한 길이 갈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한 자매 회원의 집을 방문해서 이 훌륭한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그들이 가르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저의 남편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에 의해 그 남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지시받은 그들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가 침례받던 날 그의 아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스테이크 선교사와 협의하고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하는 계획에 적절히 따르는 이 할머니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금년에 열 네 가족이 활동 회원이 되었으며 성전에 갈 계획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 뿐만이 아니라 비회원에까지 미친 이 영향은 전 스테이크에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처치 뉴스, 1988년 9월 10일, 8, 9, 12페이지 참조)

가르침을 받고 온정으로 우정 증진된 뒤 교회의 커다란 영향력 안으로 인도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모로나이사 6:4)게 됩니다. 스테이크 선교사는 함께 일함으로써 새로운 개종자가 복음의 지식을 얻고 간증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또한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도 우정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업에 연로한 회원들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슨 대관장님께서서는 미망인이 된 그의 두 누이들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은 자녀가 열 명이고 다른 분은 여덟 명입니다.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 보냈던 그들은 그들의 감독을 찾아가 그들 자신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상의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께서서는 오래 전 그 누이들이 전화를 걸었던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벤슨 대관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다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빠가 예전에 봉사하신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연차 대회, 1984년 4월)

그들은 영국으로 가서 20개월간 동반자로 봉사했습니다.

현신적인 수천 명의 노부부와 독신 자매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훌륭한 영향력을 끼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이따금씩 보이는 개인적인 큰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부 선교사는 선교사 추천서에다 80개 꿀벌들의 통을 돌봐 줄 곳을 찾는 즉시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합당한 개인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엘마가 말한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심시켜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 개심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왔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엘마서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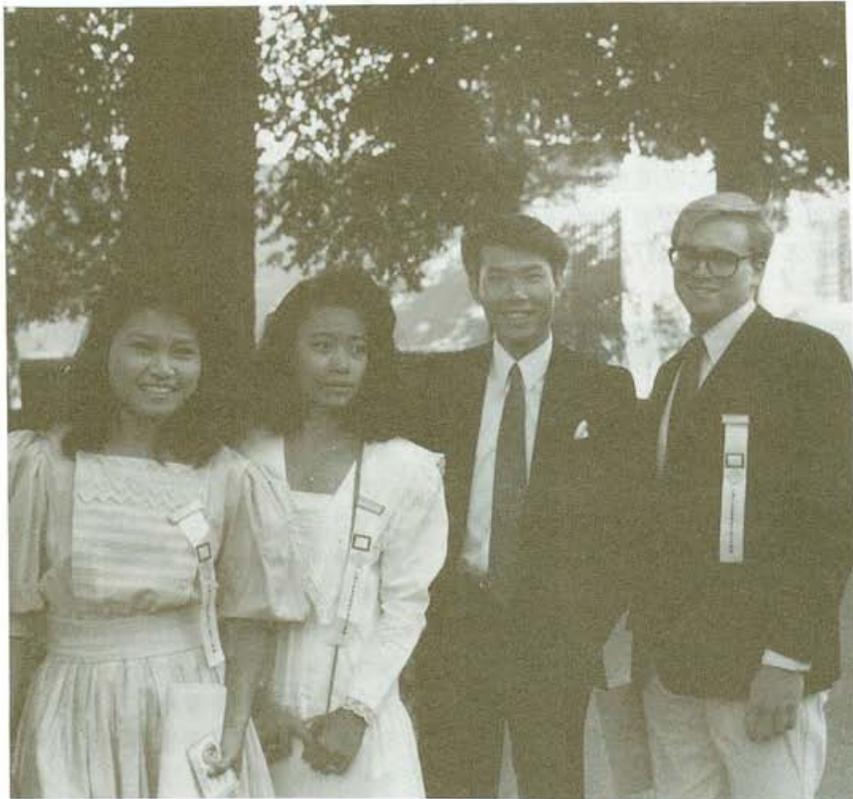
주님의 사업은 축복을 받아 이제 전세계적으로 천 백 이상의 쌍이 부부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위시하여 라틴 아메리카, 즉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 쉰 한 쌍의 부부 선교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리오 그란데 강에서부터 남미의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쉰 여덟 개의 선교부가 있는데, 쉰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한 선교부에 한 쌍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선교사 부부가 유타주에 사는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범위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있는 스테이크마다 한 쌍의 부부 선교사를 보낸다면 278쌍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한 쌍의 부부 선교사가 두 개나 세 개의 와드에서 봉사하도록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900쌍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만 그렇습니다. 약 2,000쌍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쉰 한 쌍이 봉사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외의 여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필요 사항이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새로운 회원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내에만 55세에서 70세 사이의 회원 부부가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부의 수는 6천 쌍이나 됩니다. 이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많은 부부들이 이 일에 합세하면 예기치 못한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하늘의 권유를 기다리는 귀중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3)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분명 의욕을 갖고 계시겠지만 신중히 결정하라는 부드러운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의 이전 스테이크에서 여덟 쌍의 부부에게 그들이 계획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미루어 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봉사로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아더 툄린은 전에 감독을 지냈으며 그의 아내 마이라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더는 자기가 이제 거의 칠십이 다 되었는데 어쩌면 영국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아더 형제, 당신은 어느 곳에서도 죽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라면 사람이 죽기에는 위대한 곳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안락한 혼들

의자에 앉아서 죽지 말고 구두를 신은 채 죽도록 하시오.” 툄린 부부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더는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친 뒤 여러 해를 더 살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가정과 가족을 떠나는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새로운 전도 지역으로 보내져 언어를 배우거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가가호호를 하며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일하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대개 부당한 것들입니다. 부부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들의 규칙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선교 부장은 각 부부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잘 파악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 또는 재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활동과 임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 부부 선교사들은 개발 지역이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선교부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엠마 루와 조셉 슬라코프스키는 스페인어를 몰랐는데도 페루 리마 남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훈련을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 집에서 언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범적인 예비 선교 언어 학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슬라코프스키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비 선교 언어 학습 과정에 참여해 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걱정이 되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예순 여섯인데 학교 공부가 내겐 쉽지 않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비 선교사 훈련원 서반어 프로그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나는 스페인어를 곧잘 읽을 수 있고 스페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기적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이 부름이 끝난 뒤 스페인어 선교부에서 한번 더 일할 계획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고 더 깊은 영성과 주님에 대한 개인의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께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서 약속하셨듯이 재능을 키우는 선교 사업보다 우리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주님의 축복을 더 강력하게 가져다 주는 일은 드뭅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지만 여러분은 이보다 더욱 가깝게, 서로가 더욱 큰 노력으로 더욱 밀접하게 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동반자의 영혼 깊숙히 있는 훌륭한 새로운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단합심을 느낄 것이며 하늘의 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부탁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독님을 찾아 가십시오. 아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잘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을 말씀드리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안내하고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연구하고 건강을 돌보고 자녀가 손자 손녀에게 격려했듯이 자신의 선교 기금을 모을 준비를 하십시오. 제2의 언어를 배울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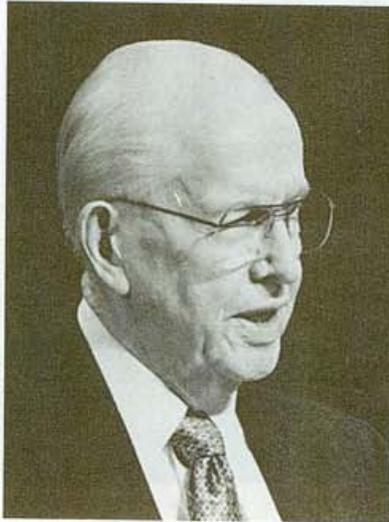
영원한 공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공평한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감할 순간이 가까워 오고 예언자로부터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자로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의 신성한 부름에 나의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은 신성한 목적에 있고 우리가 잘 따른다면 우리를 틀림없이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바를 성취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간증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나는 간증드립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의 겸손한 증으로서 영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참된 것에 대해 순수한 간증을 드리고 증거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상대한 대회를 마무리짓는 이 시간 나의 마음은 충만하며 나는 부드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의 권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의 겸손한 증으로서 영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순수한 간증을 드리고 증거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특권입니다.(앨마서 4:19 참조) 나는 이렇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며(사도행전 17:29; 니파이일서 17:36 참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며 그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니파이일서 10:18; 니파이서 2:25; 앨마서 24:14, 34:9; 니파이삼서 12:48, 28:10)

전세에서 영으로 존재하던 우리의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구세주로 예임되었음을 나는 간증드립니다.(모사이아서 4:6~7; 앨마서 34:9)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2:10; 모사이아서 3:17; 앨마서 38:9 참조)

루시퍼도 역시 천국 회의에 있었음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모반하였습니다.(모세서 4:3 참조)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 천군의 삼분의 일이 지상으로 내어던짐을 받았으며 육체를 입지 못했습니다.(요한계시록 12:7~9; 교성 29:36~37 참조) 루시퍼는 모든 의의 적이며, 온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니파이서 2:18, 27; 모사이아서 4:14 참조)

필멸의 상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음을 나는 간증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첫째 지체에서 충실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이 둘째 지체에서 필멸의 상태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이 둘째 지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3:26 참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모로나이서 7:16; 교성 93:2; 요한복음 1:9 참조) 그들은 침례 후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신의 은사의 빛을 더 받습니다. (신앙개조 제4조; 교성 20:41 참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아모스 3:7; 힐라멘서 8:13~20 참조) 그의 자녀들이 예언자들을 배척했을 때에만 예언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데려 가셨으며 그러고 나서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니파이일서 3:17~18, 7:14; 힐라멘서 13:24~27 참조)

그리스도는 그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의 부친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일서 11:18~21;

모사이아서 3:8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시면서 죄 없는 생을 사셨습니다. (교성 45:4; 니파이삼서 12:48, 27:27 참조) 그분은 그의 자비를 통해서 모든 영혼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위대한 속죄를 행하셨습니다. (신앙개조 제3조; 니파이일서 25:23; 모사이아서 4:6~7; 엘마서 11:41~45; 교성 76:50~70, 132:19 참조)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성역을 베푸시던 동안 지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마태복음 16:18; 사도행전 2:47; 니파이삼서 21:22 참조) 그분은 남자들을 불러 사도와 예언자로 성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어 그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9; 요한복음 15:16 참조) 그들은 계시를 받았으며, 이 계시는 새로운 경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20~21; 교성

68:4 참조)

세상이 사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며, 이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영적인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2~7 참조) 경전은 끝나고 배도가 퍼졌으며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동안 세우신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니파이일서 27:4~5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 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오래 계속되던 배도의 밤이 끝났으며(요셉 스미스서 2:15~20) 또한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자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그를 성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을 부여했음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서 2:68~72; 교성 27:5~13 참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말일에 회복되었습니다. 진실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사, 권리, 권세, 교리, 역원 그리고 축복을 지닌 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교성 65편, 115:3~4 참조)

하나님은 물문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예언자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만져 볼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주셨음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교성 20:8~33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이 책은 미대륙의 고대 주민들에 대한 경전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교성 135편 참조) 물문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책이 참된 것인지 간구하는 사람들이 만일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성신의 권세로써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10:3~5 참조)

나는 미대륙이 으뜸되는 땅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일서 1:5 참조)

하나님은 미합중국의 헌법 제정자들을 세우셔서 영감받은 헌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교성 101 : 77~80 참조)

이것은 복음의 회복에 필요한 서약이었습니다. (니파이삼서 21 : 4 참조)

미대륙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축복된 땅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미대륙을 기초로 삼아 말일에 전세계적으로 그의 왕국의 운영을 계속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서 1 : 7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합법적인 계승자들,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은 지상의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과거에 존재했으며,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리라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교성 21 : 1~7, 107 : 91~92, 112 : 15 참조)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다른 동료들이 있으며 그들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진실로 그들은 교회 관리 정원회, 즉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입니다. (교성 112 : 30 참조)

나는 죄악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교성 84 : 49~53, 1 : 14~16 참조) 그것은 과거보다 더 고도로 잘 조직되어 있으며, 더 영리하게 변장되어 있으며, 더 강력하게 조장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권세와 이득과

영광을 갈망하는 비밀 결사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과 민족과 나라의 자유를 전복하려고 애쓰는 한 비밀 결사가 미대륙과 전세계에 그의 악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더서 8 : 18~25 참조)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힘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교회 회원의 숫자는 성실한 회원들의 충실함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보다 교회가 더 잘 조직되거나 준비를 갖춘 때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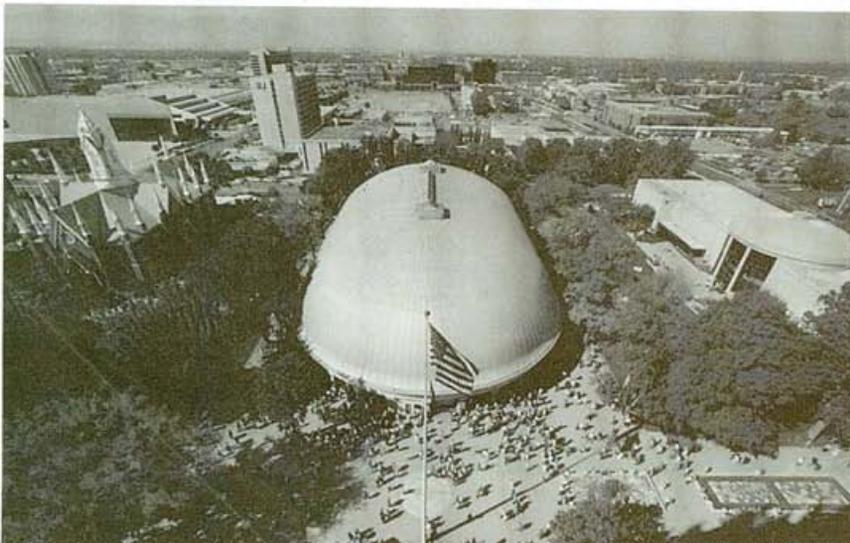
악한 세력이 루시퍼의 영향력에 힘입어 증가하고 선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아래 증가할 때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은 마지막 대결이 있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지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이 문제가 더 명백해지고 명확해질 때 온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나 악마의 왕국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돌이 거세게 휘몰아 칠 때 의로운 자들은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곧 지상의 나라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며, 한 없이 악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45; 교성 1 : 9 참조)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힘을 주실 것이며 피할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결국 마지막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니파이서 22 : 15~23 참조)

나는 모든 사람이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집에 결서를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에 한 나라를 말일에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히 서게 될 돌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 2 : 34~45; 교성 65 : 2 참조) 지금은 교회 회원인 우리가 주님의 모든 방법대로 생활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전한 것들을 널리 퍼지게 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널리 퍼지지 않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건과 예언자와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 눈과 들을 귀와 하나님의 지시를 경청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많은 해가 지나지 않아 세상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성 76 : 41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며, 이 때는 권세와 큰 영광을 지니고 오시어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성 43 : 26~33 참조)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며 그후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서 9 : 15, 41 참조) 하나님은 육체로 있을 동안 행한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엘마서 5 : 15 참조)

나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만이 올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신앙개조 제3조 참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엄숙히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이 됨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런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이 얼마나 교회의 여성들에게 뜻깊은 말입니까?

여성에 대해 가르쳐 주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잠언 31 : 10, 10~31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살피며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하여 깊은 경외심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본질상 세속적으로 보이는 많은 일을 했으나, 그녀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또는 물질적인 준비, 즉 의, 식, 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원리의 세속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 사이에는 결정적인 면에서 균형이 잡혀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교성 29 : 34)

가깝게 지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분에게 필요한 것을 시중들고 있었던 반면 마리아는 앉아 구세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 : 40~42)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는 그분의 권고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준비에서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정을 포함한 우리의 물질적인

준비는 그곳에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은 우리의 질서있는 가정에 평화와 만족의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자매는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자신의 집에 총관리 직원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대청소와 요리가 끝났습니다. 그녀의 열 자녀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맞추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상 손님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손님의 방문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그녀는 영적인 준비도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준비로 인해서 매일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준비로 인해 우리의 시련을 참고 극복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갖추 때 어느 것 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준비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신권을 지지함으로써 준비합니다.

영성의 성품은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연주하는 것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틀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삼일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승영을 추구해 나가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현대의 예언자는 기름의 준비는 매일의 의로운 생활에 의해 한 방울씩 쌓이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계속하여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더 해 줍니다. 금식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가정 방문 교육, 우리의 신체적 욕구를 조절하는 것,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것, 양육, 서로 돌보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 및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 하나의 행위가 우리의 등불에 연료가 될 수 있는 한 방울의 기름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어느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언자의 유익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빚을 지지 않고, 집을 정리하며, 우리의 일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채소원을 가꾸도록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은 예언자가 말씀할만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그보다 더 좋은 조언이 과연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의 예언자가 주는 권고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합니다. 청년들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들의 노래를 암송하며 선지자들은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자께서 교회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간단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것인 신성한 유산, 즉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딸임을 기억하십시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11페이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대회 보고, 1986년 10월)

불행히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셨으며 축복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해 준 몇 가지 사건을 들려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에 ‘충분히’ 좋은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자기 중심적이 되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나는 나를 둘러싼 주님의 팔과 나에게 보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주께서 받아 주신다는 아름다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사를, 더욱 큰 인내와 더 많은 자제력, 더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신임을 압니다.”

“나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신체를



돌봄으로써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더 행복하고 더욱 유익한 종이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도 봉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준비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매일 의로움과 인생의 영적인 길을 얻기 위해 일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깨닫도록 도우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에게는 축복과 책임이 따릅니다. 일을 다 하고 나도, 눈에 띄지도 않고 찬사나 세상적 권세에 부수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가족의 생활에서 심각한 약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속이려고 숨어있는 인간의 교활한 계교”로 인해(교성 112:12)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택된 자들까지도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교성 123:12)는 자들을 찾아 나서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준비는 항상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그녀의 목표와 야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계획을 시작하면 흔히 그 실행을 변경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노력의 시어머니를 모실 가정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가하면, 여동생의 학업을 마치도록 도와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절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봉사를 기꺼이 했으며 모든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일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행해야 한다면, 그녀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그러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런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비로운 소망과 기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엠마 스미스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상으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언자인 남편과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수월하게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순교당한 직후에 엠마에게 축복을 원하는 그녀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메시지를 보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었으나, 축복문을 쓰도록 이야기했으며 다시 그녀를 보게 되면, 그 편지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축복문 속에 나타난 신앙과 의로운 마음에 감동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소망합니다. ...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종을 통해 계시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소망합니다. ... 내가 책임지고 있는 또는 책임지게 될 모든 자녀를...하나님의 왕국에서...그들이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한 지혜를 소망합니다. ... 나는... 명량한 용모를 갖추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기를 소망합니다.”(원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적당한 위치로 가게 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 등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88년 4월)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의로운 말로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준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나아가고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교성 128:22)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면서 기뻐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와 가까이 지내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세상의 간교한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라. 권세와 세도를 구하라. 네 자신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자 힘쓰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차라리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마가복음 9:35; 마태복음 20:26~27 참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나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으로써 견디어 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교성 123:17)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름

미셸린 패커 그레슬리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는 특별히 10세 및 11세 소녀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열 살 때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친구와 함께 담요와 과자를 가지고 아이다호 우리 집 뒤에 있는 건조밭으로 갔습니다. 한 여름날 낮에 건조밭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아주 크고 무성하게 자라 있어 우리가 발 한 가운데에 담요를 펴고 앉아 건조를 울타리 삼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과자를 먹으며 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불만의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 아주 크고 풍성하게 자라있는 민들레를 뽑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길게 잘라—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그 즐거움을 관계 도량 물 속에 가라 앉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민들레 즐기는 끝에서부터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더 길게 자르면 양쪽 모두 전체 즐거움과 꾸불꾸불한 섬유 솜털이 될 때까지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멋진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밝고 파란 깨끗하고 따뜻한 하늘 아래 둘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그 날과 민들레 즐거움을 창조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너는 속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니?”하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를 쳐다보며, “아니야. 난 아니야”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무뚝뚝한 거의 감정이 없는 대답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그러니?”하고 내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너는 잠시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야. 인생은 내게 별 의미가 없어.”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나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었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세 및 11세된 소녀들, 나의 사랑스런 어린 자매들과 나의 친구에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아름다운 건조밭에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며 뜻하십니다. 경전은 인간이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파이서서 2:25 참조)

그것은 10세 및 11세의 소녀들도 그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이 지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녀들은 초등협회에서 이 주제를 자주 반복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충실함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릴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이곳 지상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의 방법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거나 사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며 사탄을 따르는 것은 불행과 비참함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서서 2:27; 엘머서 5:40절 참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나의 생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생일이나 성탄절 또는 어머니의 날에 항상 묻는 질문을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생일 선물로 무엇이 좋으시겠어요?”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내가 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라”

그들의 행복은 내가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선행 또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경전을 통해 계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해에 배웠던 물문경의 위대한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가 없다고 이룰진대 행복도 없다 이르리라”(니파이이서 2:13)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선하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멸의 세상에서 필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는 유혹과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을[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임]...이루시려 함에 지어진 것들의 짝이 있어야 하겠기로 금단의 열매를 짝함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었고 하나는 달게 하시며 다른 것은

쓰게 하셨느니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이서 2:15~16)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나쁜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할 것인가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유혹, 질병, 사고 및 비극은 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그때가 여러분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인도하며 사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회와 같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거나, 품위있게 옷을 입거나,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잔은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수잔은 이제 막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뜰에서 언니들과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으며 물을 마시려고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수잔, 저녁이 다 됐다. 언니들을 불러주지 않겠니?”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으로 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므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녁 시간이 아니야. 네가 우리를 놀리는 거지.” 그들은 수잔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어리나 위엄있게 손을 허리에 올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야. 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거야. 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날 믿을 수 있어”

그녀는 그녀의 침례가 어떤 행위의 표준을 요구함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가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녀가 성장기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의로움이란 단어를 공부하면서 나는 의로움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함, 미덕, 도의 등은 모두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완전이 우리의 목적지이며 의로움 또는 선함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마차입니다.

우리가 그 마차에 올라타지 않거나 올라서도 바퀴가 부서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바퀴는 고칠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다시 선택하거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할 때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용기를 내어 할 때마다, 부탁받지 않고서 사려깊은 행동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 가거나 친구를 도와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하기 원하거나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스럽게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기 위해 안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성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힘들 때라도 여러분은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경전을 읽을 수 있으며 성신은 여러분이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은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응답이 올 때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함과 행복함에 대해 생각해 볼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외롭거나 거부당한 또는 당황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데 대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티를 떠나야 할 때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옳으며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음을 아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위안받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여러분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이며,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나는 그 푸른 건초밭에 있었던 그날 나의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무엇을 들어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면 인생은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용기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선포할 수 있는 십대 초의 소녀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십대 초의 소녀들이 바로 지금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감

아데스 지 캡 자매
본부 청년회 회장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인기를 희생하고, 요청을 받으면 외로움을 감수하며, 필요하다면 거절까지 해야 하는 청년들이 이처럼 요구되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이 조용히 이곳 태버나클이나 스테이크 또는 집에 앉아 이 조용한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속으로 은밀한 약속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이 이 약속을 맺었는지를 아실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소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결심을 하였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 자매님들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하였음을 공공연히 서약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유타 홀리데이 지역 초등협회 소녀들의 합창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약속을 반영해 주는 한 단어가 바뀌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간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함께 자주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써서 여러분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마다 여러분 소녀들이 나에게 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청년에 대해 생각합니다. 낮이나 밤에도 나는 많은 시간 여러분을 내 마음 속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간구하며, 유혹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매일 옳은 것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수만 명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사랑과 애정 어린 부모님과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며 여러분과 함께 걷는 헌신적인 청년 지도자인 수만 명의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열 두 살 생일부터 열 여덟 살이 될 때까지의 이 귀중한 몇 년은 여러분의 행복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주 중요하며 아주 결정적이며 큰 영향을 미치며 극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녹색 박공의 앤이란 훌륭한 책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특별한 시간에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앤이 그녀의 후견인인 마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릴라, 열 네 살이 다 되어 가다니 엄숙한 생각이 들어요. 스테시 선생님이 지난 수요일 우리 십대 소녀들을 모두 시냇가로 데리고 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이십대가 될 때이면 우리의 성품이 발전되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대한 기초가 놓여지기 때문에 십대에 어떤 습관을 형성하며 어떤 이상을 갖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일 그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 그위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나와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릴라, 우리는 아주 엄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아주 조심하며 훌륭한 습관을 기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가능한 한 민감하게 되어 우리가 이십대가 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심했어요. 마릴라, 이십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것이예요. 나이가 들고 성장한다 것이 무섭게 느껴져요.”(뉴욕 : 아베넬 서적, 1985년, 186~87페이지)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계속 남아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에 주어질 것처럼 큰 중요성으로 우리는 헝클리 부대관장께서 청년에게 주신 다음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홀륭한 선, 소책자, 1986년, 2페이지)

나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끝없는 회장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그녀의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훌륭한 회장이 되고 싶으며 주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우리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등불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비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끝없는 회장과 보좌들이 서로를 위해 또한 모든 청녀들이 서로 더 가깝게 느끼고 우리의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매애로 이끌고자 함께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곳에 계셔서 그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며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진지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알고, 성신의 속삭임을 따를 수 있도록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며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청녀와 나는 그녀의 반에서 비활동인 회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녀 월계반 회장은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도착하여 우리가 영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도록 다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아주 조금만 열렸지만 점차 더 많이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그 소녀와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활동이 저조했던 딸은 점차 그녀가 문을 열어준 것 처럼 그녀의 마음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하고 그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교회를 떠났고 그후 그는 나를 떠나 버렸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두렵다고 말했던 월계반 회장이 손을 내밀어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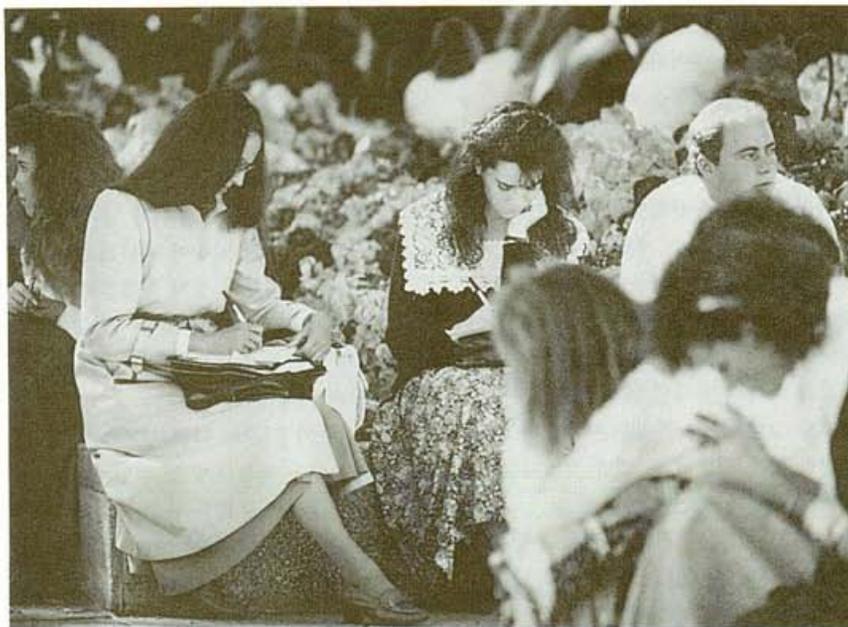
말했습니다. “우린 널 환영해. 우린 널 환영해.”

그 순간 나의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반회장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나 그 청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인기를 희생하고, 요청을 받으면 외로움을 감수하며, 필요하다면 거절까지 해야 하는 청녀들이 이처럼 요구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때, 그것은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모범은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용기를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악의 권세가 진리와 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며, 그 싸움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젠가 선과 악의 전쟁에서 영원한 선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각자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싸움터에서 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옳은 것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매일 같이 닦쳐오는 모든 유혹과 싸움에 대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태도를 정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난 이것을 하겠다. 난 저것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추종자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은 아주 특별한 남자 친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게 하려 소망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옳다고 느낌이 들 때마다 표준이나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몇 주일 전에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나의 간증을 전했으며 왜 내가 안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로부터 쪽지를 받았는데, 그는 내가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청년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표준을 갖고 있고 이런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 후 그녀는 이처럼 강한 결심을 하며 그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 앞에 놓아두는 어떤 시련도 의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처녀들은 각기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의 우리들도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등불을 갖고 있는 이 처녀들은 이 빛을 상징합니다. 등불은 그것이 기름으로 채워져야 만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따라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름을 얻을 수 있고 매일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매일 생활에서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 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사업을 돕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좋은 가족,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교회 회원, 더 좋은 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고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구하고 귀 기울일 때 받게 될 인도하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라는 것을 단순히 상기하는 것이나, 어떤 영화를 보지 않거나 유행가를 듣지 말라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또는 핑계를 만들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속삭임이 여러분이 읽은 경전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속삭임을 따를 때 따듯하고 좋은 느낌이 여러분에게 느껴져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은 것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줄 기름을 얻는 두 번째 확실한 방법은 몇 가지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외우고 여러분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서 점차 새로운 구절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집에서 보낸 편지와 같이 경전을 사용하고 읽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왜 선과 악이 있어야 하며 왜 우리가 시험받고 시련받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하여야 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청녀 여러분, 오늘 날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여호수아 24:15 참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방종이 아니라 자신의 수양을 선택하십시오.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권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일반 대중의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 경전과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타협이나 불평하지 않고 따르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불의한 동료의 압력에 굴하거나 부도덕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결을 지키며, 그들의 행위와 믿음이 일치하며 욕과 같이 “죽기 전에는 나의 순결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욥기 27:5)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빛이 되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세번째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주는 지식과 축복의 은사인 엔다우먼트를 받기를 고대할 때, 여러분은 확고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집인 성전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잠시라도 그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실로 누구인지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이해와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제가 아는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 많이 구세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을 따르는 데 무엇이 필수적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여러분은 하늘의 집과 더 가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점점 더 많은 청녀들이 모든 종류의 활동이나, 테이트, 파티나 결정 사항, 비디오, 그리고 구입한 갖가지 판이나 테이프에 대해 온갖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방향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데려 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나를 나의 목표와 나의 사명, 나의 인생의 목적과 지금 이곳에서나 다음 세상의 행복으로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재와 같이 타버려 결국에는 상처를 남기고 수치와 절망, 그리고 후회를 남겨줄 세상적인 기쁨의 일종이 아닌가?”

여러분이 내부의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언젠가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청녀회 표창을 받는 청녀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결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결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녀, 어머니,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빛과 힘과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고 경전을 연구하며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마음과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며 결코 시들지 않는 빛으로 함께 맺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딸들입니다. 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교회 회원의 성스러운 결속은 결혼 상태, 나이 또는 현재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 모임은 영광스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세 여성 조직의 회장들에게서 받은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말씀은 영감적인 것이었으며 그분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칭송해 드립니다.

음악은 특히 마지막 찬미가 “와서 네 등불을 높이 들라”-“그리스도의 참된 빛은...우리 통해 빛나리...주님 이름 영화롭게”(캐롤린 제이 라스무스와 래리 더블류 바스티안 “와서 햇불을 높이 들고” PMYW0071, 1988년)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우리들 각자에게 나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전에 나는 본부 신권 대회에서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이 연단에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나는 잠시 동안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독신 성인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선함과 충실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빛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림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모범과 봉사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마땅히 본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 줌으로, 어린아이들이 시온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눈빛을 빛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호부조회, 청년회, 초등학교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주 훌륭하게 준비하여 영으로 가르치며 참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십대의 소녀들과 효과적으로 일하며, 그들의 야영대회와 축제를 지도하며, 무도회에도 함께 가고, 그들에게 훌륭한 모범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헌신과 애정으로 주님을 위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더 위대한 봉사의 능력을 갖추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나, 수줍어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과부와 환자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들께서 여러분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맡도록 부름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와 청년회 그리고 초등학교 조직의 회장단에서 일하며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온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주요 조직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개 가족에 대해 강조한다 해서 여러분을 주님이나 주님의 교회에 귀중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원의 성스러운 결속은 결혼 상태, 나이 또는 현재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의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와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해의 왕국의 결혼 목표를 유지함

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으로 승영될 것이며 여러분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에 참여하리라는 극히 현실적인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코 이 기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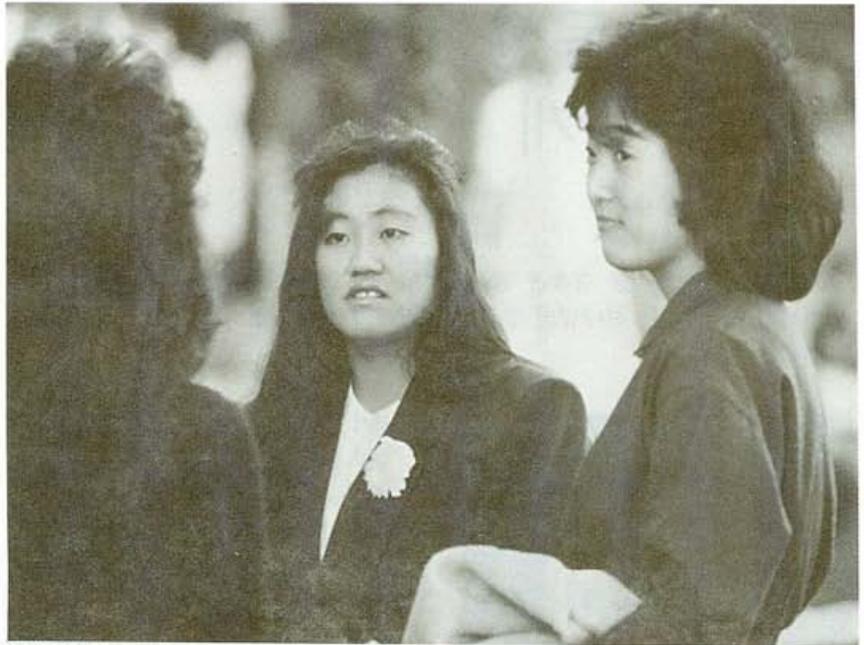
목표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결혼하십시오. 성전 결혼은
 승영의 복음 의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딸이 모두 이
 영원한 축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합당하게 성전으로
 데려갈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의 행복을 가볍게
 버리지 마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이
 결혼할 장소라는 결심을 지금 하십시오.
 이성과의 관계를 맺을 때까지 이러한
 결정을 미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도록 명령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매력있게 가꾸며, 높은 표준과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이성 관계는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십시오.

그렇지만, 또한 배우자의 선택에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의 신체적
 용모와 그의 은행 계좌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 그의 보다 더 중요한 자질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는
 여러분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며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며 그의 신권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활동적입니까? 그는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며 충실한 남편과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자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독신 자매들에게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 되어 결혼은
 가치가 없는 것이며, 여러분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기를 또한
 경고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학위를



대회 방문자

마치거나 어떤 일을 추구할 때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독신 자매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현재 직장에서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이웃에게 기여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신 자매들이
 비록 학위나 직장은 희생시키는 한이
 있다해도, 성전에서 영예롭게 합당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의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현모양처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선 순위를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심

나는 또한 교회의 모든 여성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이 합당하고 충실하게
 견디면, 여러분은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저는

모두 축복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세까지 기다려야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상에 주실 것임을 여러분에게 확신해
 드립니다. 시간은 오직 사람만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면을 마음 속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는 또한 과부가
 되거나 이혼한 분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로 향합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을 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함을
 확신하십시오.

혼자 부모의 책임을 맡아 생활하시는
 분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며 결혼한 부부와의
 우정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원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은 독신 부모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특별한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딸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배우고 발전하며 봉사함

이제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충실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영속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심을 아십시오. 그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희망을 줍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시편 91 : 2)

구세주의 생애를 주의깊게 연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경전을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매일 물론경을 읽고 그 힘과 영적인 권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를



대외 방문자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결코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부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빌립보서 4 : 13)음을 깨달으십시오. 인생은 결혼 생활 위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행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거나 좁은 영역에 갇혀 있는 자매는 아무도 없습니다.”(“연설” 위민스 익스포넨트, 1873년 9월 15일, 62페이지)

교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모임과 독신 성인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십시오. 내성적이 되지 말고, 자신을 잊고 여러분의 교회 부름이나 개인적인 자선 봉사 행위, 알려지지않은 개인적인 친절한 행위로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받기 원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들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자신의 짐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진실로 나사렛 예수는 “사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 : 39)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십시오. 개인적인 성취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및 영적으로 향상시키십시오. 훌륭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함”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시키십시오. 계속하여 성장하며 배우고 발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축복에 대해 감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께서 선하게 대해 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 요셉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68 : 19)

교회의 훌륭한 독신 성인 자매를 위한 저의 겸손한 소망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백배 이상”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실로 그렇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이 계속하여 충실하면, 여러분이 진실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과 그의 자녀들을 섬기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왕관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덕과 순수함은 여러분을 진주보다 더 값지게 만들어 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고 겸손하며 상냥한 여성은 창조물 중의 보석입니다. 이런 덕위에 여성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별처럼 의로움과 경건함,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과 소망을 간직할 때, 어느 누구도 그녀가 진실로 위대한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복음 이상 슐트레이크시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49페이지)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지지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훌륭한 자매님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축복을 남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부모, 교사 및 교회 회원이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은 1988년 10월에 말씀한 것으로서 1989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을 위한 것이다.

1989년도 복음 교리반...교성 및 교회사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5	데이비드 비 헤이트
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달린 에이치 옥스
7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조셉 비 위스린
8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9	보이드 케이 패커
1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엘 리오넬 캔드릭
13	진 알 룩; 존 케이 카머
14	매리온 디 행스
15	닐 에이 맥스웰
17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엘 톰 페리
18	조셉 비 위스린
19	윌리엄 지 뱅거터
2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23	러셀 엠 넬슨
24	조셉 비 위스린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보이드 케이 패커; 윌리엄 지 뱅거터
3	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4	하워드 더블류 헌터
6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8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달린 에이치 옥스
10	달린 에이치 옥스
1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18	로버트 디 헤일즈
19	엘 리오넬 캔드릭
29	엘 톰 페리
30	엘 리오넬 캔드릭
3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33	닐 에이 맥스웰
39	하워드 더블류 헌터; 리차드 지 스코트
41	매리온 디 행스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	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3	보이드 케이 패커
5	리차드 지 스코트
6	보이드 케이 패커; 윌리엄 지 스코트
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15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존 케이 카머
1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달린 에이치 옥스
2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5	러셀 엠 넬슨
30	마빈 제이 에쉬튼
34	매리온 디 행스
36	마빈 제이 에쉬튼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리차드 지 스코트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총관리 역원
5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2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6	달린 에이치 옥스
7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달린 에이치 옥스
8	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9	윌리엄 지 뱅거터
10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14	닐 에이 맥스웰
15	러셀 엠 넬슨
1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닐 에이 맥스웰
20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24	엘 러셀 블라드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28	조셉 비 위스린
3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39	러셀 엠 넬슨
40	매리온 디 행스
4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마빈 제이 에쉬튼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달린 에이치 옥스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23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28	러셀 엠 넬슨
31	매리온 디 행스
32	데이비드 비 헤이트
35	리차드 지 스코트
36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42	윌리엄 지 뱅거터; 로버트 이 색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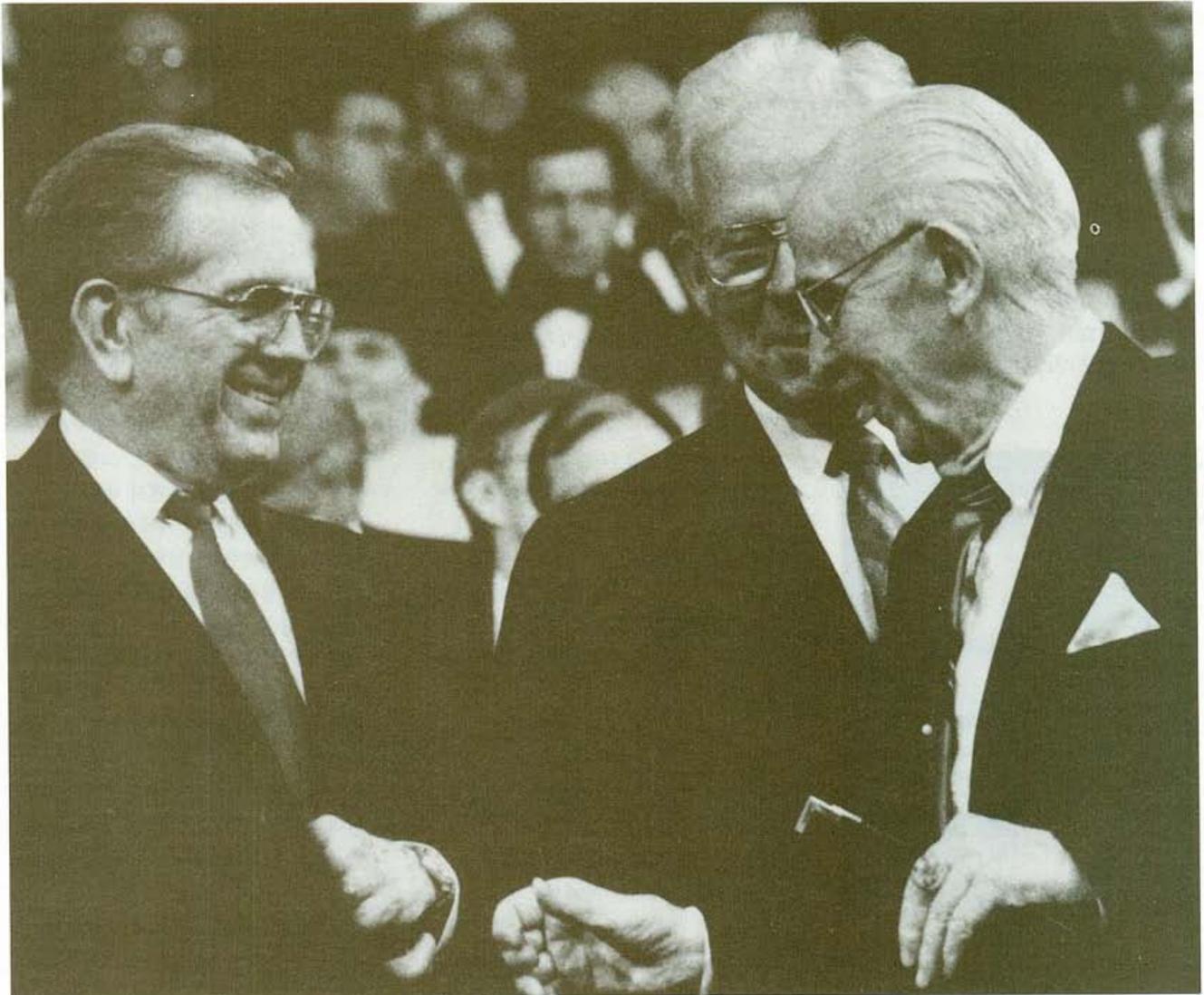
피프티반 제2과정 /
블꽃반 제2과정 /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로버트 이 색클리
3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윌리엄 지 뱅거터
6	엘 톰 페리
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엘 톰 페리
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엠 러셀 블라드
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10	하워드 더블류 헌터
12	로버트 이 색클리
13	엘 리오넬 캔드릭
14	하워드 더블류 헌터
17	마빈 제이 에쉬튼; 엘 리오넬 캔드릭
18	러셀 엠 넬슨
19	닐 에이 맥스웰
20	매리온 디 행스
2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엠 러셀 블라드
22	존 케이 카머
2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달린 에이치 옥스
25	매리온 디 행스
30	마빈 제이 에쉬튼
31	진 알 룩
32	로버트 디 헤일즈
34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달린 에이치 옥스
3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제임스 이 파우스트
40	하워드 더블류 헌터
42	로버트 디 헤일즈
44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1989년도 벨기세택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3	마빈 제이 에쉬튼; 진 알 룩
4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엠 러셀 블라드
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진 알 룩
9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1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엘 톰 페리
14	진 알 룩
15	마빈 제이 에쉬튼
16	매리온 디 행스
17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1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후)
22	엘 톰 페리
23	매리온 디 행스
24	데이비드 비 헤이트; 로버트 디 헤일즈
2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26	엘 리오넬 캔드릭
27	로버트 이 색클리; 로버트 디 헤일즈
28	달린 에이치 옥스; 존 케이 카머
29	러셀 엠 넬슨
34	마빈 제이 에쉬튼; 닐 에이 맥스웰



벤슨 대관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는 케커 장교(왼쪽)와 에쉬튼 장교(중앙)

1989년도 상호부조회

공과	총관리 역원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2	에즈라 테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앨 톰 페리
3	존 케이 카머	고든 비 힐클리 (일요일 오전); 앨 리오넬 캔드릭
5	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워스틴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9	에즈라 테프트 벤슨 (여성 대회)	
10	제임즈 이 파우스트; 로버트 디 헤일즈	
15		러셀 엠 벨슨
17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	로버트 이 색클리	
21	제임즈 이 파우스트	
22	달린 에이치 욱스	

1989년도 상호부조회

공과	총관리 역원	
자선봉사 및 보충공과	가정관리 사회 관계	
에즈라 테프트 벤슨 (토요일 오후); 리차드 지 스코트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5	에즈라 테프트 벤슨 (여성 대회); 마빈 제이 에쉬튼	
6	메리온 디 랭스; 진 알록	
7	데이비드 비 헤이트	
8	엠 러셀 벨라드; 진 알록	
9	윌리엄 지 뎡거터	
11	고든 비 힐클리 (일요일 오전); 메리온 디 랭스	러셀 엠 벨슨

복지 사업

주제	총관리 역원
1. 약물 남용	러셀 엠 벨슨
2. 금식 헌금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 봉사	메리온 디 랭스; 로버트 이 색클리
4. 복지 프로그램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와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벗 연차 대회 보고인 1월호와 7월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들어 있지 않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는 대관장단이 행한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하나를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미셸린 피 그레슬리 회장(중앙), 베티 조 잭슨 자매,
제1보좌(왼쪽), 루스 브로드벤트 라이트 자매, 제2보좌



새로 부름받은 스코트 장로



벤슨 대관장 및 총관리 역원

